普洱茶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차용품 전문점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3월 1일(음력 2월 2일) 수요일 (주간) 제 567 호

항일불교인사 업적 조명 '한밤중'

독립유공자 279명 中 불교인사 36명, 전문연구단 발족 절실
일화 · 하규 스님 등 공적 뚜렷 … 자료 · 유적없어 '등록' 못해

3 · 1절 87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불교계 인사의 항일활동에 대한 고증 작업이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독립유공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불교계 항일운동 인사가 어느정도 되는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31년 만해 스님에 의해 결성된 항일비밀결사단체 '만당(卍黨)'의 핵심당원으로 경상도 일대에서 군자금 모금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 1938년 진주형무소에 8개월 간 옥고를 치렀던 일화 스님(1897~1956).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범죄인 명부가 소실되는 바람에 일화 스님은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

일화 스님의 유족 정모씨(58 · 경기도 부천시)는 "유족들이 보훈혜택을 받고 받지 않고를 떠나 종단과 불교계 학자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어간 이들의 행적을 발굴해 명예를 찾아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독립운동가로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족이 없어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는 조하규 스님 역시 마찬가지다.

만해기념관 전보삼 관장은 "문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적을 명확히 고증하고 독립유공자로 추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로 등록될 수 있는 자격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명시돼 있다.

또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제반의 서류를 갖춰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장 신청을 해야 하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독립유공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종단과 학계의 철저한 자료조사와 연구 작업이 선행돼 역사적 고증자료를 확보해야 가능하다.

부천대 김광식 교수를 비롯한 관련 학자들은 "광복이 된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불교계 독립열사들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 않고 있는 것은 종단과 학자들의 책임이 크다"며 "그동안 역사의 그늘에 묻혔던 불교계 독립열사들의 업적을 오늘에 되살리고 동시에 불교계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 유족들이 역사적 고증과 사료 수집 등을 하며 행적을 밝혀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종단과 불교계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해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검증 작업을 벌여야 하지만 이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제치하 당시 스님들의 기록을 추적해 온 혜봉 스님(이천 지족암 주지)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279명의 독립유공자 중 불교계 인사는 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교계 인사의 항일활동 규명작업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태허 스님(운암 김성숙, 1898~1969)의 업적을 기리고 불교계 독립열사들의 활동과 업적 연구를 위해 지난 1월 23일 '운암 김성숙 기념사업회(회장 이수성)'가 창립됐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과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암 김성숙 기념사업회 민성진 사무국장은 "종단과 불교학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한다면 많은 무명의 불교계 항일 독립열사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음은 물론 불교계의 위상도 함께 높아질 것이며 보다 많은 유족들도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명 독립활동가들의 조명은 친일논란을 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역사바로세우기의 중요 과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범불교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종단 차원에서 전문 연구단이 구성되어 정부문서 추적 · 탐문, 각 사찰의 미공개 자료 수집 등 관련 연구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봉축위 봉축표어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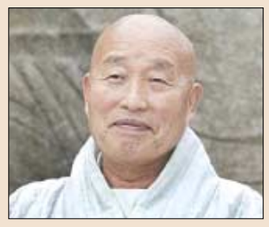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을 선정했다. 봉축표어 공모에는 670점(327명 응모)이 참가했으며, 당선작은 중국에 소재한 한국사찰 '장안사' 신도 임병학(54)씨가 응모한 것.

봉축위는 "맑고 깨끗한 어린이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요, 어린이 마음처럼 맑고 깨끗한 세상을 발원하는 의미가 담겨있어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조용수 기자**

지관 스님 정진석 추기경 축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정진석 대주교 추기경 서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2월 22일 발표했다.

지관 스님은 메시지를 통해 "세계가톨릭에서 한국 가톨릭의 신앙이 두터움을 반영한 것이자, 세계평화를 위한 한국 가톨릭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축하했다. **조용수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



산문밖의 禪 17면
죽렴장 박성춘씨
아름다운 베이커리 6면
중매카페 '따뜻한 만남' 9면
두 불자형사의 하루 19면
손바느질 전통 가사 23면
초의다풍의 실체 26면
불화속 명장면 28면

종성 스님 읽던 책 한곳에 …

本社, 9일 '종성문고' 개원 … 1만5천여권



서옹 대종사의 전법제자인 임제선원 조실 종성(1930~2004) 스님의 유지를 받든 '종성문고'(사진)가 문을 연다. 본사는 3월 9일 오후 2시 본사 법당 및 종성문고에서 종성 스님의 법제자인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종성문고 개원식'을 갖는다.

'종성문고'는 지난 2004년 12월 21일 입적한 종성 스님이 열반 3개월을 앞두고 불자들의 교리공부와 스님 · 불교학자들의 불학 연구를 위해 기증한 장서 가운데 1만 5천여권으로 조성됐다. '종성문고'에는 한글 도서 1만 2천여권(본사 소장도서 포함) 이외에 일본어 2천 600여권, 중국어 1천200여권, 영어 600여권 등 다양한 언어의 불교학, 선학, 동양학, 문학 서적 등이 소장돼 있다. 특히 한 · 중 · 일 · 몽고 · 남전 대장경과 <선종전서> <선장> 등 선학 관련 자료는 대학 도서관 이상의 귀중한 자료들을 갖추고 있어 불교학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본사는 불자들을 위해 종성문고를 무료 개방하고, 도서대출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삼국유사 특별전-일연 탄생 800주년 기념전' 시민 발길 이어져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월 23일 개막한 '삼국유사 특별전-일연 탄생 800주년 기념' 전시회는 어린이 관람객으로 북적인다.

삼국시대 역사를 기록한 책을 보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체험. 전시장 한 편에 마련된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그림 퍼즐도 아이들의 손길로 완성된다. <삼국유사>가 생긴 유래에서부터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는 <삼국유사>에 이르기까지 볼거리와 이야기가 가득하다. 사진은 <삼국유사>를 추려 펼쳐낸 인각사본 <삼국유사>를 보고 있는 어린이 관람객들. **사진=고영배 기자**

'종무행정' 정식학과 됐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학과 신설, NEXT 사업 선정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현해)는 2월 21일 동국대 본관에서 제216차 이사회를 열고 불교대학 내 불교사회문화학과 신설을 결의했다.

불교사회문화학은 실천불교학을 지향하는 학문으로 크게 ▲불교사회복지 ▲불교문화콘텐츠 ▲종무행정 등을 교육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종학연구소 신설을 포함한 연구교수제 도입도 결의했다. 소요되는 비용 절반은 학교에서 나머지 절반은 법인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 외에도 불교대학 우수교원 초빙을 위한 불교대학 교원초빙연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인원을 5명으로 하되 구체적인 운영이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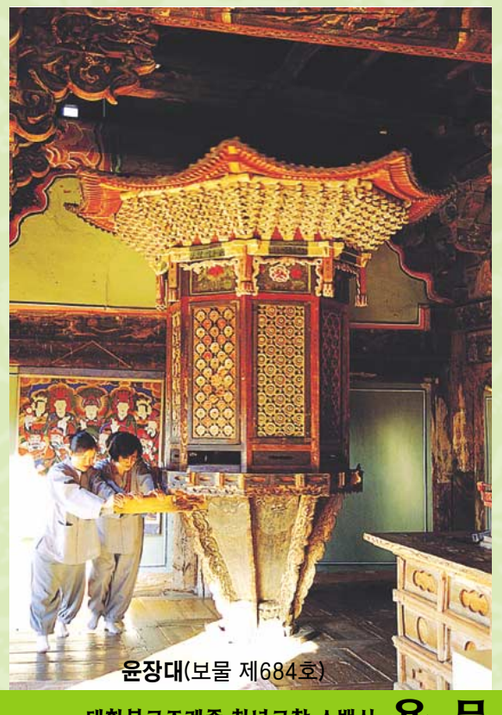
한편 동국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6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대학종합평가 결과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또 동국대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학과가 정보통신부가 정보기술(IT)분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NEXT(Nurturing EXcellent engineers in information Technology)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3년간 총 24억7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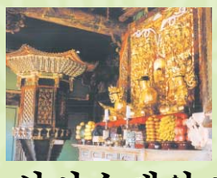
'맞춤형' 불교정보 · 생활의 지혜 · 감동깊은 이야기
붓다뉴스 이메일 서비스 시작
buddhanews.com 2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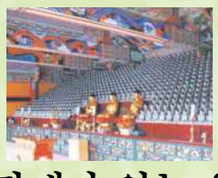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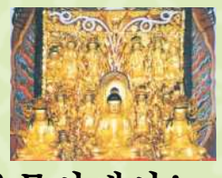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www.yongmoonsa.com

“참회하면 신분회복 가능”

조계종 사면 · 경감 · 복권 정례화 시행 종책 공고

종단 구성원 포기않도록 관리… ‘악용 우려’ 목소리도

조계종이 사면 · 경감 · 복권을 정례화한다.

조계종은 과거 종단의 징계를 받았지만,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수행정진으로 참회하는 스님들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자 사면 · 경감 · 복권 정례화 시행 종책’을 2월 21일 공고했다.

종정 법전 스님의 종단화합 유시에 따라 총무원 집행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징계자에 대한 사면 · 경감 · 복권을 정례화 한다는 것이 공고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정기사면을 도입은 징계는 있지만 징계자에 대한 관리와 사면이 쉽지 않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징계를 받고 복권이 되기 위해서는 징계시효가 경과하거나 비정기적인 특별사면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스스로 참회하고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면 얼마든지 종단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조계종 호법부는 “스님에 대한 징계는 처벌에 목적을 두기보다 더욱 철저히 수행정진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종단의 한 구성원임을 포기하지 않도록 징계 이후에도 징계자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의 사면 · 경감 · 복권은 종정의 고유권한으로, 종헌종법에 따라 총무원장의 심의의결이 나면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종정스님의 품신 · 재가 후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는 1999년 1월 28일 이전 호계원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징계집행 중이거나 복적 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스님, 또는 2005년 1월 31일 이전 호계원으로부터 공권정지 10년 이하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징계집행중인 스님 등 327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사면을 희망하는 스님은 조계종 호법부 3월 10일까지 징계 후 수행이력과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한다.

그러나 올해 부처님오신날 이전 중앙종회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기 사면제도는 내년으로 연기된다.

조계종 법규위원회 현각 스님은 “사형제 폐지 논란에서 보듯이, 세속에서도 벌을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재사회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다만 심사과정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온정적으로 흘러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20안거성만 총림법 지켜져야”

전국선원수좌회, 통도사 방장선출 관련 ‘불가’ 입장 재확인

17~18일, 35명 축서사서 회의 열고 결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추대건과 관련,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혜국 현산)가 기존 ‘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수좌회 소속 스님 35명은 동안거 직후인 2월 17~18일 양일간 축서사에서 회의를 열고 “종헌 · 종법에 어긋나는 방장을 추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수좌회는 “총림 방장은 종문의 법통을 세우는 중요한 책무를 맡은 소임인데도 중앙종회가 정치적 이해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전종도가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총림법 제6조 1항의 20안거 성만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는 뜻을 같이했다. 수좌회는 이미 통도사 산중총회가 결의한 초우 스님의 방장추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004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나 발표한바 있다.

공동대표 혜국 스님은 “지난해 11월 종회에서 종회, 수좌회, 통도사가 공동으로 방장 후보의 안거수를 실사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통도사나 종회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대한 수좌회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젊은 수좌들은 “방장추대는 종단의 종지를 지키는 일로 절대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수 기자

행정직능직에 현법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보궐



조계종 행정직능 종회의원에 시흥 영각사 주지 현법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임시의장 지관)는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를 제14차 회의를 열고 현법 스님의 종회의원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현법 스님은 1978년 법주사에서 이두 스님을 은사로 득도, 84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 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선관위(위원장 도공)도 같은 날 오후에 제153차 회의를 열고 현법 스님의 당선을 확정했다. 조용수 기자



새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김장실씨가 2월21일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사진은 이보경 문화관광부 차관보, 지관 스님, 김장실 종무실장(왼쪽부터). 사진=조용수 기자

김장실 신임종무실장 지관스님예방

이보경 신임차관補도

김장실 문화관광부 종무실장(1급)이 신임 인사차 2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예방은 차관보로 자리를 옮긴 이보경 前 종무실장의 이임 인사를 겸해 마련됐다.

지관 스님은 “그동안 불교계에 많은 도움을 준 전임 이보경 차관보에 이어, 김장실 종무실장도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덕담했다.

이에 김 종무실장도 “몇 해 전 예술국장을 지내면서 불교계와 많은 인연을 쌓은 공덕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다”며 “불교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전임 이보경 종무실장도 “앞으로는 차관보로 관광분야의 업무를 다루게 돼 불교계와 아주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며, 불교계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임기동안 한국인의 정신문명 세계가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김 종무실장은 평소 ‘진언수행’에 정진하는 불자로 알려져있다. 조용수 기자

‘태고종사’ 논란 장기화 조짐

조 · 태 양종단, 대책위구성 등 대응 모색

<태고종사>와 관련한 조 · 태 두 종단의 논란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고종사>문제와 관련, 2월 24일 조계종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종단사 왜곡과 종단정통성수호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대성 도공 원행 학담 자승)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태고종(총무원장 운산)도 22일 회의에서 <태고종사> 내용과 관련, 조계종이 조계종단과 선지식들을 폄하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주면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안에 대한 두 종단의 입장차를 확연히 드러냈다.

조계종은 24일 중앙종회, 효봉 청담 경산 성철 스님 등 당해문중, 교구본사 등 이 주체로 나서는 대책위원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0여명의 스님들은 <태고종사>가 조계종의 정체성을 명백히 훼손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단기적으로 <태고종사>와 관련한 사태해결에 전력하겠지만, 향후 미진했던 조계종의 정체성에 대한 종단의 명확한 입장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태고종은 22일 운산 스님 등 총무원 임원급 스님들과 태고종사 간행위원장 수열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조계종 측에서 요구하는 <태고종사>의 전면 회수는 수용할 수 없으며 공개사과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서면을 통해 요청하면 사료에 근거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계종 청담문도회, 경산문도회가 21, 22일에 “<태고종사>를 즉각 폐기처분하고, 집필자인 김영태 교수의 공개참회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교계신문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태고종 중진모임인 보우승가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조계종은 <태고종사> 발간과 관련해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참회하고 조계종부터 먼저 각성하라”고 주장 하는 등 관련단체들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김주일 · 조용수기자

신촌 봉원사 토지 불법매각 드러나

조계종 前주지 연관, 관련자 고발 등 조치

조계종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 소유의 토지가 불법매매된 사실을 적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고발 · 중징계하기로 했다.

조계종 재무부장 정만 스님 등 총무원 일부 부장 스님들은 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스님이 직 · 간접적으로 연루된 봉원사 토지 불법매매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도들과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재무부장 정만 스님은 “前 주지였던 성국 스님(2005년 10월 15일 임기만료) 등이 주지임명장, 총무원장 직인, 종무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2005년 8월 18일 서대문고 봉원동 42-17(대 969㎡)번지 토지를 16억원에 박 모씨에게 불법으로 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조계종 재무부가 1월 18일 각 사찰의 토지 전산 프로그램 점검하던 중 봉원사 일대의 토지가 무단 매매된 사실을 발견, 관련 정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계종은 이번 불법매매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2월 2일 서대문등기소에 공문을 보내 추가적인 봉원사 토지 소유권 이전을 막기위해 現 주지 법안 스님 명의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냈다. 태고종 총무원도 24일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성국 스님은 “의도하지 않은 사기사건에 휘말렸을 뿐이며, 소송과정에서 명백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수기자

조계종 사회국장협 구성

환경, 남북 · 국제교류, 복지 등 조계종의 대사회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구본사사회국장협의회가 구성됐다.

조계종 사회부는 24개 교구본사 사회국장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2일 열린 교구본사 사회국장 회의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회장에 월정사 사회국장 관행, 부회장에 조계사 사회국장 범성 스님을 선출했다.

박봉영 기자

동대이사 유보 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영배 스님의 동국대 이사 승인 유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주심 민옥현 판사)는 2월 23일 서울행정법원 203호 법정에서 열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인 이사 선임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 승인을 유보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 이사승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등 행정행위를 실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영배 스님의 이사 승인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지난해 10월 18일 영배 스님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사 승인 잠정 유보’ 결정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행 국운융창 경제회복기원 만등불사 및 수륙방생 대법회

귀의 삼보 하옵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국운이 융창하기를 발원하고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이 나라 이 땅 위에 모든 국민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꽃 피우기 위하여 전국의 대한불교삼론종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등불사 및 수륙방생 법회를 봉행코져 합니다.

등(燈:Dopa)이란 부처님 전에 올리는 육법공양(六法供養)중의 하나이며, 부처님의 밝은 지혜가 우리 범부중생에게 그대로 전승되어 무명과 암흑 속에서 갈길몰라 헤메이고 있는 모든 이에게 밝고 희망에 찬 광명과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룩한 불사인 것입니다.

수륙방생은 불성을 가진 고귀한 생명을 존중하고 갖가지 업에 의해 이승을 떠나 바다와 육지에 떠도는 고혼을 천도함으로써 일체 중생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동체 대비심을 사상을 앙양하고자 함입니다.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이 소극적 자비라면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는 방생은 적극적인 자비입니다.

방생은 살려주는 사람이나 방생된 생명이나 함께 이고득락을 성취하는 공덕이 있습니다.
병술년에는 윤해이므로 모든 화재, 풍재, 수재, 관액, 손재, 실물, 구설, 질병, 교통사고 등을 물리치는 해 이므로 부처님 전에 마음의 등불을 밝히어 그 공덕으로 밝은 지혜를 얻어 가정은 화목하고, 국가는 부강하여 이 나라 이 땅이 불국정토가 되도록 1인 1등을 밝히는 만등불사와 수륙방생 대법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시어 자손만대에 부귀영화, 수명장수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항상 기원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 일 시 : 불기 2550년(서기 2006년) 3월 19일 (음, 2월 20일) 일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73-5 월악불교문화원
◈ 주 최 :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
◈ 후 원 : 문화관광부, 불교TV, 불교방송, 청주불교방송국,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삼론법보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증명단

증 명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전석봉 대종사
삼화상	부종정 이혜공 대화상 만월사주지 이신수 대화상 보문정사주지 김혜승 대화상
고 문	향운서실 향운스님 불광사 정봉스님 백련사 청호스님 보림사 인봉스님 관음사 청일스님(강원) 용덕사 법관스님 관음사 희봉스님(경기) 성주사 도경스님 관음사 법작스님(부산) 약천사 승봉스님

대회본부

대회장	총무원장 혜광스님
부대회장	중앙종회의장 대안스님
봉행위원회위원장	사정원장 지운스님
봉행위원회부위원장	충남교구원장 지경스님

대공스님(견성암) 덕송스님(관음사) 명산스님(대림정사) 법성스님(선유암) 보현스님(연화사) 법선스님(자비원) 석운스님(문수암) 성덕스님(원각사) 성도스님(정음사) 성인스님(대신사) 성은스님(관음정사) 성정스님(대원암) 심당스님(토암사) 일광스님(칠성사) 일선스님(광명사) 원각스님(원각사) 제호스님(보림사) 지행스님(천지암) 향담스님(동심사) 해불스님(대원암) 혜명스님(청정사) 혜련스님(향천사) 혜정스님(대불사)

추진위원회위원장	가상사주지 진봉스님
추진위원회부위원장	충북교구원장 성원스님

공덕행님(서원사) 대공스님(송학사) 명재스님(팔등사) 묘진스님(약사암) 무봉스님(보안사) 삼정스님(토암사) 선각스님(신선암) 선유스님(쌍용암) 성희스님(덕진암) 수월스님(성운암) 원화스님(홍암사) 일견스님(명신원) 자문스님(백련사) 자현스님(옥산사) 지성스님(선현사) 지심스님(천보사) 지창스님(영덕사) 취향스님(은덕사) 해동스님(해동사) 해운스님(약천사) 혜안스님(관음사) 혜진스님(칠성암) 행심스님(신화사)

재정위원회위원장	수선원장 오봉스님
재정위원회부위원장	재무부장 지겸스님

관음행님(단양암) 능선스님(천수암) 법운스님(관음사) 법일스님(대흥사) 법진스님(정토사) 법화스님(용주사) 성각스님(구룡사) 성심스님(성불사) 성지스님(다불암) 수일스님(관음암) 오봉스님(오봉사) 역일스님(성조사) 연주행님(천암사) 영산스님(원각사) 원영스님(청용사) 의만스님(성불암) 지공스님(태을정사) 지관스님(보현사) 지형스님(동림정사) 지호스님(옥련사) 지화스님(보현정사) 해월성님(수월암)

운영위원회위원장	포교원장 청봉스님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총무부장 법연스님

도성스님(보현사) 도희스님(법장사) 법륜스님(은성사) 법원스님(원진암) 보은스님(성불암) 보현행님(약천암) 성하스님(보리정사) 성호스님(월명암) 수운스님(유불사) 우재스님(영산정사) 옥원스님(옥원정사) 월화심님(약수암) 자비심님(용현암) 자양스님(불승정사) 지법스님(법천사) 지암스님(월명암) 진여심님(보현사) 청담스님(만불사) 허부스님(삼봉사) 해명스님(능인선원) 혜경스님(천해정사) 혜곡스님(관불사) 혜관스님(부석사)

준비위원회위원장	교육원장 대경스님
준비위원회부위원장	강원교구원장 성월스님

도우스님(보운정사) 무성스님(성운사) 법계화님(영불사) 보명스님(도사암) 보원스님(보원정사) 보현행님(약천암) 선경스님(원불사) 선혜스님(천룡사) 성각스님(서운사) 성인스님(천명사) 용선스님(만덕사) 원각스님(묵계암) 일수행님(우정암) 일운스님(봉정사) 의룡스님(약수암) 자운행님(향산사) 자비행님(월악문화원) 정각스님(천룡사) 진광스님(보연사) 혜선스님(칠곡사) 혜운스님(옥수사) 토인스님(미륵암) 태서스님(미륵암)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 서울 종로구 평창동 293-44 TEL 02)379-4631 / FAX 02)379-4632

"임신은 새로운 부처님 잉태하는 일"

저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 생명포럼 열려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부처가 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고 보며, 이런 점에서 임신은 새로운 부처님을 잉태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 고령화 현상에 대한 해법을 부처님 가르침에서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는 2월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명포럼'을 개최했다.

'자녀는 삶의 축복인가, 부담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김승권 저출산 · 고령정책연구본부장의 '저출산의 심각성과 효율적 극복방안'이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불교, 개신교, 가톨릭 3대 종교별 발제자가 나서 각각의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불교계 발제자로 나선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은 개인의 업식(業識)을 넘어선 공동의 업식에 의해 고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원인을 진단한 후 그에 합당한 처방을 내려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성제(四聖諦)'식 해결책을 모색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오늘날의 저출산 현상은 육아에 대한 정부 · 사회의 무관심,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직장 현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불교에서는 가정을 불성을 지난 새로운 생명체가 깃드는 '불성(佛性)의 탄생처'로 여기고 있다"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임신 중절을 하거나 출산을 감소하려는 것은 새로운 부처님의 탄생을 가로막는 행위이자 또 다른 악업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새로운 부처님을 잉태하고 불성을 양육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고 교수의 지적이다. 생명 존중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와 불임부부에 대한 출산지원, 국내입양 지원책 마련, 미혼 부모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 등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저출산시민연대 포럼에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 3대 종교 발제자들은 저출산에 대한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환경 오계 · 바라밀 제정

불교환경연대 올 실천과제 확정

불자들은 앞으로 오계 외에도 환경오계를 지켜야할 것 같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2월 23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환경오계, 환경육바라밀 제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올해 빈그릇운동과 사찰환경 조사 · 연구활동, 환경교육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지난해 정토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빈그릇운동의 바통을 이어받아 불교계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사찰환경 개선을 위한 리플렛을 시리즈로 제작 · 배포하는 사업도 전개된다. 이와 함께 집중 실천과제를 선정해 사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교환경연대는 산사축제 · 방생법회 등 사찰행사를 모니터링해 결과를 발표하는 등 불교계의 친환경 활동을 적극 권장해나가는 한편, 자연환경 수호를 위한 연대활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불교환경연대는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보선, 신륵사 주지 세영, 도선자 주지 혜자 스님을 새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박봉영 기자


"필리핀 이재민의 우산 되어주세요" 대학생정토회와 한국JTS는 2월 23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필리핀 산사태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 '노란우산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자는 의미를 담은 것. JTS는 현재 사고현장에 답사팀을 파견해 현지 상황을 조사중이다. 박봉영 기자

"새만금 국정조사 실시하라"

시민단체, 환경보고서 은폐 경위 해명 촉구

종교 · 예술 · 시민단체 등의 인사들이 새만금 환경조사보고서를 묵살 · 은폐한 경위를 밝히기 위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성효스님과 문규현 신부, 김지하 시인, 등 13인은 2월 2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새만금 환경조사보고서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변명하고 무마하려고만 한다며 정부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의 환경조사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국무총리실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었다. 박봉영 기자

청소년 사경공모전 개최

파라미타, 4월15일까지 접수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 · 이하 파라미타)는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9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을 개최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국 불교종립학교 재학생과 파라미타 청소년회원 및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신청서 및 사경지 배부는 2월 24일, 접수는 4월 15일까지다. (02)723-6165 이은희 기자

불교시민사회단체 대상 각 분야 프로그램 공모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불교계의 시민 · 사회운동과 불교발전을 위해 사업을 전개하는 비영리 불교단체를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인권, 통일, 환경, 여성, 사회정책 개발, 노동 등이며, 복지 및 신행 분야는 제외된다.

공모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공무사업 계획서와 요약서, 단체소개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hslee@buddhism.or.kr)로 조계종 사회부에 제출해야 한다.

조계종 사회부는 창의성, 타당성, 파급력,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하되, 조계종단 대사회 사업과의 연계성, 사회정책 개발, 지속성 및 미래기여도를 평가해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02)2011-1820 박봉영 기자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100일 큰스님 법문

웰빙의 진정한 의미를 큰스님들의 법문으로 풀어내는 100일 법회가 열린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3월 7일~6월 14일 불교방송 법당 다보원에서 열리는 이번 법회는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불교신문이 공동주최한다.

법사로는 혜정(법주사 회주) 보성(송광사 방장) 고산(쌍계사 조실) 정관(영주암 조실) 각성(부산 화엄사 주지) 월운(봉선사 조실) 무진장(동산불교대학장) 도영(조계종 포교원장) 지하(前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전(BBS '행복한 미소' 진행자) 무심(대전 무상자 주지) 스님 등이 법문에 나선다.

매일 오전 11시 큰스님의 사자후를 만날 수 있으며 법회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한 시간 동안 100일 기도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오륜행실도 목판 첫 공개

원주 치악산 명주사(주지 선학) 고판화박물관이 조선 정조 21년(1797) 왕명에 의해 편찬된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4장을 발견해 최근 일반에 공개했다.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는 왕명에 의해 발행된 국민윤리교과서의 역할을 한 책으로 목판 원판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목판 4장은 선학스님이 지난해 9월에 입수해, 최근 확인했다. 김두식 기자

"1번 줄기세포는 환자맞춤형"

김수 연구원, 범불교국민연대회의서 주장

황우석팀 연구후원을 위한 범불교국민연대(이하 황우석 범불교국민연대)는 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진행상황 보고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황우석 연구팀 김수 연구원(서울대 수의대)은 "서울대조사위가 1번 줄기세포를 처녀생식에 의해 생성됐다고 발표했으나 확정적으로 얘기할만한 근거는 없다"며 "1번 줄기세포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또 "황 박사를 비롯한 우리 연구팀은 체세포 배아줄기세포가 바뀌치기 당했으리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의정 '동네수첩' 대표는 "모든 정황이 황우석 죽이기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황우석 박사의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지켜내는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우석 범불교국민연대는 공동대표 일동 명의로 '대통령께 드리는 결의사항'을 채택하고 △검찰의 공정하고 신중한 조사 △황우석 박사팀에게 연구 재연기회 부여 △새튼 교수와 형평성을 맞추고 조속한 결과 도출 △특허권 방어를 위한 사전조치 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광주서 '특허수호' 촛불행사

황우석과 함께하는 국민연합은 2월 18일 광주 금남로 민주의 종각 앞에서 '줄기세포 특허 수호, 생명공학 연구촉진을 위한 촛불행사'를 개최했다.

이준엽 · 박봉영 기자

국제포교사 과정 모집

조계종 포교원은 제11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연수생을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영어, 일어, 중국어.

양성과정은 3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강의가 열린다. 강의 내용은 불교교리 전반과 한국불교 특징, 국제불교 현황, 간화선 실참, 조직 운영, 포교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양성과정 연수생은 올 11월에 있을 국제포교사 품수고시에 가산점이 부여되고 서류전형이 면제된다. (02)722-2206 이은희 기자

아란야 · 나란타 대안학교

교계 최초로 교육청 인가

불교계 복지시설 두 곳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불교계에서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과 자양사회복지관 두 곳은 3월에 '아란야 대안학교'와 '나란타 대안학교'를 개교한다. 이들 대안학교는 적성에 맞지 않는 교과과정이나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게 된다. 학생이 원래 소속된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동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양사회복지관의 '나란타 대안학교'는 중학교 1~3학년 2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계체계를 통한 명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02)458-1664~5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아란야 대안학교' 역시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음악심리, 심성수련 등의 교과목을 가르친다. (02)421-6077

이들 대안학교를 통해 학업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 위탁교육 신청을 득하고 위탁준비교육을 2주간 이수하면 된다. 이은비 기자

불교사회복지硏 출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불교복지의 방향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불교사회복지연구소가 발족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은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출범식 및 <불교사회복지 실천과제와 전략> 발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또 연구소 출범식에 맞춰 <불교사회복지 실천과제와 전략>서를 발간해 선보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연구위원과 자문위원 20여 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도 열었다. 이은비 기자

2006학년도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수강생 모집

명상(冥想) 기(氣)치유사 수련생 모집

인간 심신의 안정을 통해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고도의 "마음 치유법" 자연치유 능력 활성을 돕는 놀라운 건강법 소개

접수기간 : 2006년 2월 1일부터 ~ 3월 8일 / 개강일시 : 2006년 3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 교육기간 : 2학기 과정 ◆ 강의시간 : 수요일 오후 2시 - 4시 50분 ◆ 담당교수 : 박 세준
◆ 교수약력 :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기학전공) 박사 · 포천중문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 학기당 학습비 : 800,000원

● 교육목표

인간의 육체적 · 정신적 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으나 본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소우주로 보고 이를 우주의 변화현상 속에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즉 인간의 심신의 안정을 통해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선천적 · 후천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고도의 "마음치유법"을 통하여 기치유(氣治癒)(healing)되는 기능성장애, 통증제어, 각종 증상을 치유 개선할 수 있는 자연치유 능력 활성을 돕는 놀라운 건강법에 대해 교육 할 것이다.

● 강의내용

1. 명상(冥想)이란 무엇인가?
2. 명상치유(영적 프로그램)
3. 심리치유(심리적이완, 치유 에너지 증폭)
4. 심리요법(내적 심리 프로그램)사이먼튼암요법+활선법
5. 신체적 운동과 기치유 동공
6. 명상의 실천수행 1 - 사념처관(위빠사나)사선팔정법
7. 명상의 실천수행 2 - 기공수련의 응용(병원실습)
8. 명상의 실천수행 3 - 기공수련의 응용(병원실습)
9. 명상치유 1 - 업력과 유전자의 관조
10. 명상치유 2 - 자기긍정을 통한 무아의 세계
11. 명상치유 3 - 건강상태와 건강의식 내시(오장육부)
12. 명상치유 4 - 자기 자의적 명상 치유법 전개
13. 사선팔정(四禪八定) 석가기공(釋迦氣功)
14. 총괄평가

관련 자격증 임상심리경력자에 한하여(1년-3년)시험자격이 주어지므로 실습위주의 교육. 보건복지부-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산업인력공단-임상심리사... 2급개설, 병무청- 2008년부터 임상심리사배치 신체검사시 인성검사 주요강화.이 외에도 가정폭력전담센타, 경찰수사, 성폭력, 청소년비행, 약물오용, 미혼모 등 상담사로서 역할이 다향해 지고 있다.

현공(玄空) 기(氣)풍수 인테리어 풍수사 과정 모집

공간은 무한한 시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한량없는 기(氣)의 바다이다.
인간이 대 우주안의 지구라는 공간에서 자연과의 호흡은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나 인간은 인공적인 것을 자연적으로 가장 효과있게 응용하는 것이 풍수인테리어 일 것이다. 사람이 가장 많이 머무는 것이 잠자는곳 집일것이며,집은 정(靜)적인 영역이요 직장(사무실 상가 일터)은 동(動)적인 영역이다.이런곳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인공적 환경요 건이다.
인간은 그영역에 있다.그러므로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응용 발전시켜 공간의 배치, 개념의 제시, 이미지선정, 구조선택, 실례의 소개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의 조화, 성취방법등의 환경개운학(環境開運學)이 즉 현공(玄空) 기(氣)풍수 인테리어다.

- 1주 : 공개 강좌 - 풍수와 기(氣)
- 2주 : 풍수 인테리어 구성요소
- 3주 : 기(氣)풍수 가구배치법
- 4주 : 집의 형태와 구조
- 5주 : 용의 지맥과 터잡기
- 6주 : 인테리어 조경풍수법
- 7주 : 대지 지적상 가옥 배치
- 8주 : 도시풍수
- 9주 : 아파트 풍수
- 10주 : 팔괘와 응용 풍수 인테리어
- 11주 : 풍수 인테리어 기본원리
- 12주 : 팔괘와 구성법과 인테리어 응용
- 13주 : 인간과 마음의 조절풍수
- 14주 : 기(氣)의 개발 (발기법)
- 15주 : 인테리어 풍수 운명예측
- 16주 : 풍수인테리어 심리효과 개발 및 치유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 사회교육원 : 홈페이지 http:dgucc.dongguk.edu → 관련기관 → 사회교육원 → 특별교육과정 → 명상기치유사과정,또는 한글로 동국대사회교육원으로 클릭하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 동국대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 : 전화 02)2260-3728~9

각계 전문가 복지현장으로 불러내자

불교복지 전문화하자

불교 복지계에 '전문화' 바람이 불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월 23일 불교사회복지연구소를 공식 창립한데 이어 조계종 포교사단도 3월 2일부터 케어복지사 자격증반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이에 앞서 이미 천태종과 진각종도 2006년 사업의 핵심 키워드중의 하나로 '복지'를 선정하면서 '전문화'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느냐는 것이다. 주요 종단과 단체들의 움직임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복지활동의 전문화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자들도 전문지식을 이용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권윤희씨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자들이 발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각 종단 올해 사업 키워드 '복지 전문화'
봉사자 10만명 추정, 대부분 단순 노력 봉사
전문교육 통해 자원봉사자 역량 끌어올려야

 # '복지포교사' 양성 팔걷었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이 3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케어복지사 양성 과정이다. 케어복지사는 정신적 ·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돕는 사회복지사로 최근 '전문복지'를 상징하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매주 화, 목요일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사회복지개론과 노인복지론, 케어개론, 원예치료 등 20여개의 과목이 개설되며,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각 · 혜도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선다.

포교사단의 케어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비(非) 복지단체인 포교사단이 복지사 양성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포교사단이 기존의 복지단체도 하기 힘든 일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은 "현장에서 포교사들이 불법홍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최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며 "전문지식 없이 하는 자원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기관과 현장의 '손잡기' 활발

복지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온 주요 종단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월 23일 불교사회복지연구소를 창립하면서 불교복지 전문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불교복지시설 현황과 실태조사는 물론 매년 복지관련 아이템을 주제로 하는 학술포럼을 4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또 불교사회복지 연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불교복지 연구자와 종사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교복지 종사자들과 시설을 운영하는 스님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을 병행한다.

진각종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진각종은 우선 각 지역 심인당과 시설을 연계해 신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이끌어내는 '산하시설 지도스승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종립대학인 위덕대 산하 진각사회복지연구소와 산학 협약을 체결해 복지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각종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토론광장을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6월에는 현재 서울경기지역에만 구성돼 있는 진각사회봉사단의 대구지부도 발족할 예정이다.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은 "사회복지 특성화대학인 위덕대를 통해 불교복지 전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실무자들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천태종도 3월 이전에 의료봉사 등 기능 · 직능별로 6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자원봉사단을 발족할 방침이다.

#단계별 영역별 교육 늘려야

그렇다면 과연 종단과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전문화'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전문화' 이전에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인력들의 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한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전문 역량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현재 불교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대략 10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시설 숫자만 600여개에 이른다. 특히 사찰 신도회와 전국의 불교대학 출신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기도 하다. 경기 지역의 천수천안 봉사단과 영남 지역의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봉사단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원봉사 활동이 목욕이나 청소와 같은 단순 '노력 봉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봉사활동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활동가들의 능률도 쉽게 떨어진다. 중도 탈락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종단 복지담당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자체 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요식행위' 수준을 넘지 못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단계별 · 영역별 전문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간병인 양성 전문교육을 하고 있는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의 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은해사는 2005년 2회의 간병인 양성 전문교육을 실행해 55명의 간병사를 배출했다. 4주간 16시간의 이론교육과 3주간 매일 4시간씩 현장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힘든 과정이지만,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3월에는 3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해사 연수원장 혜해 스님은 "올해 안에 정예 간병사 100명을 배출할 계획"이라며 "노력 봉사 위주로 활동을 하던 신도들의 자원봉사 영역이 넓어지면서 지역 복지시설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력관리 · 지원시스템 '부실'

최근 신행단체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의사와 변호사, 상담활동가 등 전문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네트워크 구성도 중요하다.

현재 각 종단과 복지기관에는 병원불자회나 법률전문가 모임 등을 제외하고는 전문 재능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다. 이 · 미용과 법률, 의료는 물론 통 · 번역, 수화, 점자 번역, 상담 등으로 전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영진복지관에서 미술치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권윤희(35)씨는 "해당 시설은 물론이고 종단 차원에서 전문인력 봉사자들의 리스트를 공유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단과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 단체와 전문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절실하다. 40여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는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매년 2차례에 걸쳐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계종의 지원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A병원불자회의 한 관계자는 "종단의 지원은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하며 "봉사 대상 섭외와 경비 충당 등 모든 준비를 알아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전문가단체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지난 1992년 이후 400여명의 상담활동가를 배출한 불교상담개발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 현재 100여명의 상담활동가들이 매월 8시간씩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법화삼부경>을 점자경전으로 발간했던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혜조 스님은 "개인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이웃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비해, 불교계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교육기회 많을수록 현장도 탄탄

자원봉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함께 복지시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조계종 산하 복지시설에는 1500여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2~3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절반 이상이 무교이거나 이교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복지시설 운영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도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1년에 1~2차례에 불과한 교육으로는 종사자들의 역량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불교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양교육과 함께 종립대학인 동국대나 위덕대와 연계된 연수 프로그램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불교복지의 근간이 되는 자원활동가와 시설 종사자, 관련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양성하지 않는 전문화는 구호에 불과하다"며 "불교복지의 토대를 다시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한명우 · 노병철 · 유철주 기자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종찰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고 전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설하여 1360년간 전승해 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계를 지니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갇혔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 떠난 이가 돌아옴과 같나니라.
– 범망경 중 –

계를 받는 공덕은 무량한 복덕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예년과 같이 통도사에서는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세세생생 이어질 선근의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병술년 불기 2550년
· 입재일 2006년 4월 2일(음. 3월 5일) 일요일
· 회향일 2006년 4월 4일(음. 3월 7일) 화요일
장 소 통도사 금강계단
전계대화상 전계대화상 중산 혜남
동 참 금 50,000원
문의 및 접수처 화엄전 접수처 055)381-1288 각 사(암) 종무소

■ 연락처 : 부산포교당 (051)816-2241 마산포교당 정법사 (055)245-6544
창원포교당 구룡사 (055)255-6359 울산포교당 해남사 (052)211-3340
밀양 표충사 (055)352-1150 밀양 무봉사 (055)354-3296
창녕 포교당 (055)533-2295 서울포교당 구룡사 (02)575-7766
서울 보현사 (02)355-9815

교통편
◉ 통도사 버스 – 부 산 : 온천장 지하철역 앞 08:00 ~ 09:00
울 산 : 공업탑 로타리 제일주유소 08:00
무거 로타리 고속도로 진입로 08:10
◉ 대 중 교 통 – 부 산 : 노포동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울 산 : 시외버스터미널
대 구 : 고속터미널「부산행 일반고속」서 울 : 동서울고속터미널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부산불교신협

적자에서 출발… 자산 772억원

창립 14주년, 사상호 고문 · 류석영 이사장 추대



부산불교신협 임직원들. 앞줄 왼쪽이 사상호 고문, 오른쪽이 류석영 신임 이사장.

2월 16일 창립 14주년을 맞은 부산불교신협이 그 동안의 불심경영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불자들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1992년 8월 개점한 부산불교신협은 2월 16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열고 1993년부터 이사장직을 맡아 왔던 사상호(70 · 해담) 이사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류석영(66 · 법운) 부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된 사상호 이사장은 부산불교신협을 부산시 소재 60여개의 신협 중 랭킹 2위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다. 비상근 이사장 12년에 이어 2002년부터 상근직 이사장으로 활동해온 사 이사장은 매일 새벽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며 '수행하는 부산불교신협'의 면모를 다져왔다.

'신심이 우선해야 한다'는 사 이사장의 경영 철학은 전직원이 매일 108배 참회로 일과를 시작하는 전통을 만들었고 그 전통은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매년 직원들이 불교교양대학에서 불교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신심 증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여겨왔을 정도다.

특히 사 이사장은 상근 이사장으로 월급을 받게 되자 그 급여 전액을 불서 법보시로 회향해왔다. 매월 불서 한권씩을 선정해 800부~1000부씩 법보시한데 이어 16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는 <법화경> 1000권을 법보시해 회향의 참다운 의미를 일깨우기도 했다.

이러한 사 이사장의 '불심 경영'은 조합원 수 200명, 7천5백만원의 적자를 안고 시작된 부산불교신협을 14년 만에 자산 772억원, 조합원 수 1만2천명의 탄탄한 신협으로 성장시켰다. 1997년 600여개가 동시에 문을 닫았던 최악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생겼다 사라지길 반복하는 부실 신협과는 완전한 차별화를 이뤄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7년 전국 우수조합 선정 표창, 2003년 공제 우수조합 중앙회장 표창 등 업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신협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사 이사장은 "수행하기 좋고, 봉사하기 좋은 불교신협이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며 "대덕 스님들과 불자님들, 임직원, 조합원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신협이 가능했다"며 한사코 공로를 불자들에게 돌렸다.

금융결재원 가입과 함께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 보다 편리해진 서비스로 한걸음 더 조합원에 다가선 부산불교신협

전직원 108배로 일과 시작
사 고문, 월급 전액 불서 보시
업계 인정 최고 신협 결실도
다양한 서비스로 1위 목표

은 이제 류석영 이사장 시대를 맞아 부산 랭킹 1위를 목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류석영(법무사) 신임 이사장은 부산불교신협 창립 준비부터 참여해 초대이사를 지냈고, 그동안 부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부산불교신협의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돼 왔던 인물이어서 기대가 높다.

3월 취임식을 갖게 되는 류 이사장은 부산불교신협 사옥 마련을 장기적인 과제로 꼽으며 의욕을 내비쳤다.

류석영 이사장은 "매일 108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공동체가 불교신협의 모체인 만큼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신협이 되도록 사상호 고문, 임직원과 함께 수행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겠다"며 스님과 불자들이 '1불자 1통장 갖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051)633-9120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복지활동 공백 Zero

불국토 전국 최초 노인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개소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해왔던 복지사의 결혼이나 출산, 잦은 이직, 질병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노인복지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총)가 15년여 동안의 복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공백 방지를 위해 '부산시 노인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소장 박용하, 이하 인력지원센터)'를 부산시로부터 수탁해 개소하게 됐다. 부산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처음이다.

인력지원센터는 시설 종사자들이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복지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전문성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를 염두에 둔 최초의 시설이다.

인력지원센터에서는 대체 사회복지사 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부산시내 소재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필요 인력 파악에 나선다. 이를 통해 확보된 기간제 파견 사회복지사를 필요 시설에 투입해 업무의 공백을 없애주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자 우수한 여성 인력 및 고학력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되는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

박용하 소장은 "불국토가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유효성이 매우 높고 단기간 내에 곧바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복지현장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력지원센터 개소의 의미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미래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일념장학회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일념장학회(이사장 이대원행)는 2월 20일 장학회 사무실에서 제11회 장학금전달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소림사 주지 혜전 스님을 비롯 일념장학회 이대원행 이사장, 일념장학회 최금순 회장, 임대자행 보살 등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원행 이사장은 "비록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30여년을 이어온 어머니들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았으니 여러 학생들이 더욱 더 분발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몇 십 년 전 일념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았던 인연이 있는 소림사 주지 혜전 스님은 "아주 오래전 장학금을 받았던 인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다"며 "내 삶을 내가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윤영희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학생을 비롯 대학생 4명, 고등학생 6명에게 총 5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법전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 학업을 이어가던 중에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며 "앞으로 장학금을 받은 우리 모두는 어느 분야에서든 몇 배로 오늘의 감사함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개인택시 보현회 쌀 전달

부산 개인택시 보현회(회장 김신한)는 2월 16일 법륜사 대웅전에서 창립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불우이웃 돕기 쌀 전달식을 가졌다.

김신한 보현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고 "올 한 해는 더욱 분발해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보현회는 20kg 쌀 120포대를 동래구 14개동에 등록된 기초생활 수급자 120가구에 전달했다.

7년 전 창립된 부산 개인택시 보현회는 현재 7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껌을 판 수익금으로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영도구노인복지관 22일 개관



사회복지법인 혜원(이사장 원허)이 위탁 운영하게 된 영도구노인복지관(관장 선공)은 2월 22일 복지관내 3층 강당에서 개관식 및 관장 취임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장 혜총 스님, 박대석 영도구청장,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 김광삼 국제신문 사장 등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영도구노인복지관 선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노인 한분 한분을 부모님처럼 공경하며 편안한 내집처럼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고의 시설은 아니지만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어르신들을 반갑게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밀양불교대학 졸업식



밀양불교대학(학장 정무)은 2월 18일 밀양 용궁사에서 제2기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표충사 주지 청운 스님, 통도사 교무국장 보하 스님, 밀양시 이정섭 교육장 등이 참석한 이날 졸업식에서는 2년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 불교교리과정 수강생 44명이 졸업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김재홍, 박재화 씨가 포교원장상을 수상했으며 이원효 씨는 본사주지스님상, 김금희씨는 밀양사암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학장 정무 스님은 "불법을 바르게 공부한 졸업생들이 밀양불교의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보다 깊이 있는 불교공부가 될 수 있도록 수행과 이론을 겸비하는 교과 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월 9일 3기생 입학식을 갖게 되는 밀양불교대학은 2004년 조계종이 선정하는 우수불교대학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앞으로 금강경 경전반을 개설할 예정이다. (055)354-4464 천미희 기자

北 아이들은 어떤 그림 그릴까?

참여불교운동본부 남북학생 교류전 마련

북한 아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까?

2004년부터 북한 어린이에게 신발 보내기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던 (사)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대표 혜총)가 북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만나볼 수 있는 값진 전시회를 마련했다.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부산시청 제3전시실에서 열리는 '통일 만들기 남북학생 교류전'에는 북한 예술의 요람이라 불리며 북한의 예술 영재들이 교육받는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의 학생 작품을 전시한다.

또한 2005년 10월 참여불교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던 제1회 자비의 통일염원 사생대회 및 백일장 수상작과 정여 스님, 김길권 교수, 내원정사, 옥련선원 유치원 등 한국 어린이들의 작품과 미술학원 아이들의 작품까지 총 79점이 선보인다.

한편 참여불교운동본부는 3월부터 지속적으로 월 3천 켤레의 신발을 북한에 지원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금강염주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불경금책 반야심경(3.5×5cm 80.000원)를 무료 증정합니다.

金剛極樂往生염주

極樂往生의 神秘와 靈驗의 金剛念珠



원효대사때부터 전래되는 녹색의 금강극락왕생염주는 강한氣의 북한산 금강석으로 신비와 영험으로 극락정토로 가는 길에 영가를 안정시키고 잡귀와 악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극락왕생하게 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입니다.

金剛(금강)이란 가장 강하다는 뜻으로 金剛의 강한 힘으로 번뇌를 끊고 잡귀와 악귀들도 물리칠수 있습니다. 極樂(극락)이란 (정토삼보경)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십만억 국토를 지나면 그곳에 極樂정토가 있습니다. 그곳은 항상 환희가 있고 근심걱정과 고통이 없으며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往生(왕생)이란 불교에서 사람이 입적 후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念珠(염주)란 부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입니다.

금강극락왕생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93% 원적외선 높은 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함없이 남아있어 더욱 신비를 주고 있는 염주입니다

12단주, 108염주, 손목단주 1set 245.000원

건강에도최고 소원성취척척 北韓産 금강염주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北韓産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북한산 금강석과 천연광물에서 추출한 음이온,등을 이온 결합하여 1300℃이상의 특수 소성된 친환경적이며 최첨단 기능성 금강염주는 불심의 노력으로 수년간 연구끝에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소원도 꼭 이루어지고 건강에도 최고인 금강염주는 스님께 보시로 부모님께 최고의 건강선물입니다.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금강석이 생산되는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어 대중 포교를 일으키신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12단주, 108염주, 손목단주 1set 225.000

건강에도 최고!
◆ 참선, 기도정진 하신는 분
◆ 자고나면 손발이 붓는 분
◆ 당뇨등으로 손발이 차신 분
◆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신 분
◆ 갱년기 주부우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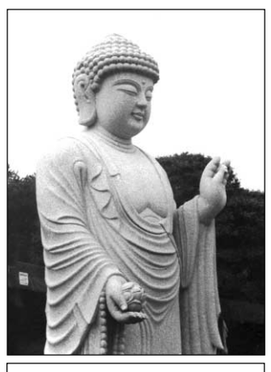
선물로도 최고!
◆ 뒷목이 뻐근한 분
◆ 혈압이 높으신 분
◆ 관절이 약하신 분
◆ 손발이 저리신분
◆ 오십견등

금강염주 상담문의 (02)723-0909

대리점 서울 : 이화불교 (02) 720-1700
대전 : 심 강 원 (042)256-3375

사용하시던 금강염주 염주끈이 끊어진 염주를 무상 수리하여 드립니다. (대리점모집)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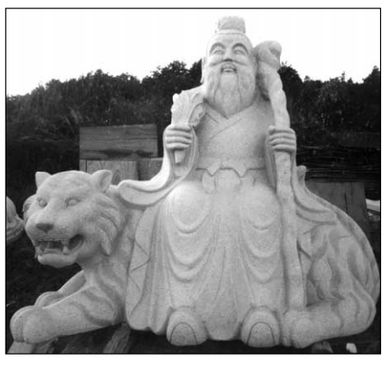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나눔의 情 '빵~빵' 하네

구미 불자 30여명 출자 '아름다운 베이커리' 열어



구미지역 시민들의 출자로 설립된 아름다운 베이커리 개점식을 무지개공부방 아이들이 하모니카 연주로 축하하고 있다.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사회적 기업
고용창출·소외계층 지원사업 계획

갓 구워낸 빵들이 숨쉬듯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테이블을 장식하고, 올망졸망 무지개 공부방 아이들 30여 명이 하모니카 연주를 시작했다. 사랑의 빵 냄새가 퍼져가듯 모두가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길 발원하며.

2월 21일 경북 구미시 신평동에 30여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만든 사랑의 빵 공장이 문을 열었다. '아름다운 베이커리'다. 1997년부터 지역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소외계층가족지원사업과 '국제결혼 가족지원 사업' 등을 전개해온 아름다운 가정만들기(이사장 법등, 대표 장흔성)가 만든 회사다.

후원금만으로 이어온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풍족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해 왔다.

개점식에는 법등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과 30여 명의 시민출자자, 정부관계자, 구미경실련, 시민운동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아름다운 베이커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출자로 이뤄진 전국최초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처음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상했으나 시민들이 너도 나도 동참하면서 1억 2천만 원이 모였다. 또, 노동부, 상공회의소, 경북경영자총협의회가 협력단체로 참여하고,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민관거버넌스' 형태를 띤 사회적 기업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아름다운가정만들기 박신규 사무국장은 경과보고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을 하지 않고 고용하기위해 빵을 만든다'는 미국의 루비콘 베이커리의 전략처럼 새로운 고용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구미시가 연간 300억 불 수출이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음지에는 빛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이 많다"며 "이런 사업을 통해 양지와 음지가 모두 빛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성장과정의 어린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많은 공부방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발원도 덧붙였다.

장흔성 대표는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맛있는 빵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한다"며 "지역의 영세 소매 빵집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일반가정을 상대로 한 소매 유통 대신 기업, 관공서, 학교 등으로부터의 대량주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 대표는 "타 지역에 한해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검증된 단체가 매장을 운영해 그 지역 공익에 환원할 수 있도록 분점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 베이커리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직거래를 통해 재료를 공급받는다. 각 학교에 유기농 빵을 보급하면서 우리농산물살리기운동과 텃밭가꾸기운동 등과 연계하고,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인식전환 캠페인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빵 자문위원인 경북외국어테크노 대학 호텔조리학과 이병구 교수와 구미 제빵제과학원 이재광 원장은 이미 유기농 제빵 개발과 특허등록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70평 남짓한 아름다운 베이커리에는 12년 경력의 베테랑 제빵사와 취업취약계층에서 채용된 9명의 보조 제빵사가 이른 아침부터 10여종의 빵을 정성껏 만들어 낸다.

(054) 461-0565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농업회생 위한 사회적 연대' 씨 뿌렸다

생명평화탁발순례단 취지 공감 전개 결의

3월 초 정식 출범

생명평화탁발순례단(단장 도법)이 지난해 대구 경북지역에 뿌리고 간 씨앗들이 지역 농업회생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발아하기 시작했다.

생명평화결사 수지행 사무국장, 곽상수 대구경북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약 30여명의 지역농민과 시민운동가, 생명평화결사 등불(회원)들이 2월 22일 경북대학교 복지관 교수회의실에서 (가칭)농업회생을 위한 사회적 연대준비모임을 갖고 농업회생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모임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천호준 의장, 대구 한살림 천규석 이사, 경북대 교수협의회의장 류진춘 교수, 김영호 신부 등 7명의 공동대표를 추대하고, 사회적 수요확충과 농민시장개설을 주요활동방향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칭)농업회생을 위한 사회적 연대는 조만간 사무국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3월 초 다양한 종교계 지도자와 시민운동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정식 출범식을 갖는다. (가칭)농업회생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활동에는 대구 MBC가 활동프로그램을 짜고 보도하는 등 1년간 다방면에서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농업회생을 위한 다양한 실무를 맡게 될 곽상수 생명평화결사 대구경북 운영위원장은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이 대구경북지역을 지나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많은 농민들이 생명평화결사에 동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올해도 답사계획 다양해요"

영남불교문화연구원

영남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재원) 문화유적답사회(회장 김태엽, 대구대 국어국문과 교수)는 2월 18일 연구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2006년 답사계획을 확정했다.

3월 19일 하동쌍계사와 칠불암, 평사리 일대 답사로 시작하며, 4월18일에는 영주 흑석사, 부석사, 가흥리 일대, 5월에는 구례 화엄사, 천은사, 운조루, 연곡사, 6월은 강진무위사 백련사, 다산초당, 김영랑 생가로 답사를 떠난다.

지난해 8월 발족한 영남불교문화연구원 문화유적답사회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문화유적을 찾아 지금까지 네번의 문화유적 답사를 다녀왔다. 재야사학자 김재원 박사를 비롯해 언어, 미술, 한문학 등 우리문화와 문학에 조예가 깊은 지역대학 교수와 학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다방면 다각도에서 토론과 의견 개진이 종횡무진으로 이어지며 알차게 꾸려졌다는 평이다. 영남불교문화연구원 문화유적답사회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반기중 전문위원단을 꾸려 답사계획과 내용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053) 761-8950 배지선 기자

생활풍수지리 장례문화 강좌

지역불자와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한 생활풍수지리강좌와 장례문화강좌를 불교대구회관 5층에 개설한다.

3월 9일부터 개강하는 장례문화강좌는 매주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보건대 서분희 강사가 강의하며, 3월 11일 개강하는 생활풍수지리강좌는 매주토요일 오후 5시부터 2시간동안 동대 사회문화교육원 박무흠 강사가 강의한다.

모집인원은 각 30명이며, 소정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국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증도 발급된다. (053) 629-0408

배지선 기자

대구사원주지연합회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는 지난 1월 9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와 맺은 상호협정체결에 따라 오는 봄 학기부터 대구지역불자와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한 생활풍수지리강좌와 장례문화강좌를 불교대구회관 5층에 개설한다.

3월 9일부터 개강하는 장례문화강좌는 매주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보건대 서분희 강사가 강의하며, 3월 11일 개강하는 생활풍수지리강좌는 매주토요일 오후 5시부터 2시간동안 동대 사회문화교육원 박무흠 강사가 강의한다.

모집인원은 각 30명이며, 소정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국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증도 발급된다. (053) 629-0408

배지선 기자

월정사 청소년 명상스키캠프

평창 월정사 문수청소년회는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월정사와 용평스키장에서 '명상과 함께 하는 청소년 스키캠프'를 진행했다. 스키캠프에서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 40명은 '나를 돌아보자'를 주제로 명상과 참선, 레포츠 활동을 즐겼다.

남동우 기자

신년교례회 및 척사대회
서문자비거사림회

서문시장 불자 상인들의 신행단체인 서문자비거사림회(회장 김강식)가 서문시장 화재의 아픔을 딛고 화합과 재기의 뜻을 다지며 2월16일 알리앙스에서 2006년 신년교례회 및 척사대회를 거행했다(사진).

100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김강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문시장 화재로 60여 회원중 5명이 화재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상인 모두를 가족과 같이 부처님과 같이 대하고, 심적 물적으로 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립 14년을 맞아 법당건립의 원이 이뤄지도록 재도약하는 계기를 맞자"고 덧붙였다.



가족을 부처님같이 고객을 부처님같이 대하자는 슬로건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 서문자비거사림회원들은 모처럼 함박웃음을 지으며 화합의 윷가락을 높이 던졌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3-634-3429

각종 통증/난치병
양심명의 3代비법 요/베개
원인모를 오랜통증
난치불치해방
주무시면서편안하게치료完
증상 치료가 아닌 병근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1:1 완전 맞춤 치유
양심적 전문의들이 만듭니다
유비닥터스® 02)782-0022

참좋은 유치원 옥외 관세음보살 점안식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옥불보전 참 좋은 유치원에 8m 높이의 옥외관세음보살을 봉안하고 2월 21일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육법공양, 가릉빈가합창단의 찬불가, 현판제막식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우학 스님은 "중생을 그리워하며 중생과 가까워지기 위해 거리로 나투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영대네 거리가 훤해졌다"고 말했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양쪽에 옥불보전인 참좋은유치원과 무량수전인 노인전문병원을 건립중이다. 참좋은유치원은 1층~3층 유치원, 4·5층은 대법당, 6·7층은 스님 수행관, 옥상은 생태공원이 들어서 있다. 배지선 기자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최고의 기법은 NLP와 최면입니다."
국제공인 최면(치료)사 자격
전생·빙의(치유)사 과정
게임중독·다이어트·알레르기·금연/금주·우울증·대인공포증·불면증·집중력/학습력향상·습관교정·빙의 등 국제공인심리상담(치료)사 과정
본 아카데미 원장이신 (설기문 박사)는 KBS1-TV KBS스페셜 『마음』 6부작에 특별 출연하여 NLP와 최면으로 오이알레르기 치료와 맨발로 숯불걷기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 개인심리상담 : 당사에는 국제공인(전문)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실시합니다.
개 강 3월 7일
● 모집인원 : 주중반 30명, 토요반 30명, 일요반 30명, ※ 전생·빙의반 : 30명
● 교육시간 : 주중반(화·목) 19:00~22:00, 토요반 13:00~21:00, 일요반 10:00~18:00, ※ 전생·빙의반 : (수)10:00~18:00
● 국제 공인 트레이너 설기문 박사 직접지도(한국 NLP·최면아카데미 원장)
※ 자세한 교육내용 : 홈페이지 www.nh114.co.kr 참조 바람
설기문 박사 무료공개강좌
• 미국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교육학박사 - 상담심리학 전공)
•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역임
• 상담심리전문가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 국제공인 NLP·최면치료·시간선치료 트레이너
• 전생-빙의 치료 전문가
• 주요저서(역서) : NLP의 원리, 최면의 세계 등 다수
▶ 무료 공개 강좌 안내 ◀
♣ 일 시 : 2006년 3월 4일 (토) 오후 2시~5시
2006년 3월 5일 (일) 오후 2시~5시
♣ 장 소 : 한국NLP·최면 아카데미 교육장 (서울시청역 조선호텔 정문 앞 소공빌딩 3층)
정원 - 50명(선착순 예약접수 마감)
※ 자세한 내용은 www.nh114.co.kr 참조 요망
국제공인 교육기관
NH KOREA 한국 NLP·최면 아카데미
교육/상담 : 02)757-8008

백제불교 초전성지 확 달라졌네

불갑사, 일주문 세우고 사하촌 4만평 정비

오토캠프장 · 자연학습장 등 휴식공간 조성

백제불교 초전성지 불갑사(주지 만당) 사하촌이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참배객 맞이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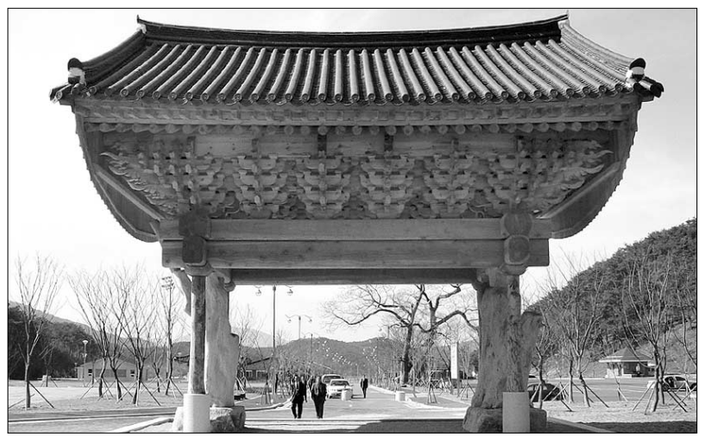
불갑사와 영광군은 지난 2002년부터 불갑사지구 정비사업을 펼쳐 일주문 건립, 상가정비, 주차장 조성사업을 마치고 관리사무소 주변정리만 남겨놓고 있다.

불갑사는 가람에서 1km 아래에 일주문을 건립하고 경내지에 난립했던 상가와 민가를 새로 조성된 단지로 이주시켰다. 일주문에서 가람까지는 연못과 정자를 세우고 자연학습장을 겸한 참배로를 조성했다.

또한 4만평 규모의 불갑사 사하촌은 오토캠프장, 다목적 운동장, 자연학습장을 갖추고 있어 참배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은 "한국전쟁 이후 계속된 사회혼란기에 가람이 쇠퇴하면서 경내지까지 민가가 들어섰다"며 "사하촌 정비로 수행환경 회복과 백제불교 초전성지의 면모를 되찾게됐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도 "백제 불교와 모악산 꽃무릇 축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불갑사 지구는 매년 사찰참배 및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교문화, 환경휴양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시작된 불갑사 지구 정비사업 일환으로 새로 건립된 불갑사 일주문 전경.

한편 불갑사는 지난 1997년부터 8차 중창불사를 전개해 양진당(선원) 비전(염화실) 보장각(장서각) 청풍각 백운당 범종루 금강문 일주문 복원으로 도량을 일신하고 유물전시관(6월 준공예정)을 건립중이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어르신, 어깨 활짝 펴세요"

송광복지관, 주민화합 경로잔치 마련

광주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고)은 지난 2월 22일 복지관 소극장에서 '경로위안잔치 한마당'을 열고 지역노인을 위로했다.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경로잔치에서 복지관장 현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들이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함양하도록 하기위해 새학기 시작에 앞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며 "겨우내 움추렸던 몸과 마음을 털어내고 건강한 한해를 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로잔치는 점심공양에 이어 원각사 후원 공연팀이 출연해 살풀이, 아쟁산조, 판소리, 민요 등의 공연과 지역노인들의 노래장기자랑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한편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개관했으며, 아동 청소년에서 노인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062)941-8248

이준엽 기자



2월22일 열린 '경로위안잔치한마당'에서 송광종합사회복지관장 현고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호남 고속철 계룡산 관통반대 단식 계룡산시민연대는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관련해 공주지역에 역사 설치와 계룡산 관통반대를 위해 공주 지역 종교 및 시민 단체들이 2월 15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상임대표 지성 스님(신원사 주지), 운영위원장 이준원(공주대 행정학과교수)가 2월 23일 현재 단식 9일째를 맞고 있다.

공주=고영배기자

소아암 어린이 생일잔치

생명나눔실천 광주본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는 지난 2월 21일 화순 전남대 병원 소아암 병동 놀이방에서 어린이 생일잔치를 열었다.

병원관계자와 소아암 어린이 50여명이 참석한 생일장치에는 이달의 생일자 15명이 축하선물을 받았다.

이날 생명나눔 광주본부 윤예중 사무국장은 "투병환우 지원사업 일환으로 헌혈증서 · 투병지원기금 모금 등을 펼치고있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062)234-6602

이준엽 기자

"법회 늘리고 봉사 더 한다"

옥천경찰서 경불회

옥천경찰서 경불회(회장 곽세영)는 2월 25일 옥천 용암사에서 경승위원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정기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옥천 경승회(회장 혜쵬)는 경불회 창립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조남희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회원들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정영균

목포불교대학 사무국장, 포교사

"역시 시험은 수험생 뿐 아니라 주위에서 격려하는 이도 함께 보는 것인가 봅니다."

한 달여간 밤늦도록 후배들의 포교사 고시를 독려하며 시험정보를 찾아 제공하던 목포불교대학 정영균 사무국장.

"시험이 끝나자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하다"면서도 요즘 그는 불교대학 신학기 준비로 날밤을 세우곤 한다.

정 법사의 일과는 새벽정진을 시작으로 하루 24시간 포교로 일관한다. 지역 군법당, 교도소, 각종 신행단체 등 한달이면 20여 차례 법회를 주관하고 법문을 한다. 한번의 법회를 위해 3~4시간 법문준비를 한다. 그렇다고 법사비를 받는것도 아니다. 불교대학 일은 물론 법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원봉사다.

8년전 불교와 인연, 군법당 등서 월 20회 법문

교단서 쌓은 풍부한 경험 · 알찬 준비로 늘 인기

"불법(佛法)만큼 좋은 법이 어디있습니까. 알려야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불법을 전해야 합니다."

정 법사가 불교를 만난 것은 오래되지 않는다. 8년전 해남의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시절, 인근 사찰 광보사로 소풍을 가게됐다. 그때까지 종교가 없었던 정 교장은 주지 자황스님과 대화를 하면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후 목포불교대학에 등록하고 기초교리를 시작으로 불교를 체계적으로 접했다.

2001년 58세의 나이로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합격하고, 성지순례와 큰스님 참배를 통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던중 법사가 없어 법회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군법당 호국 사자사와 인연이 맺어졌다. 이후 동료 포교사들과 함께 6년간 매주 법회를 이끌고 있다. 사자사 법회에 자신감을 얻은 정법사는 목포 해역사 군법당인 해광사에서도 매월 한차례 법문을 하고 있다.

정 법사의 법문은 교단에서의 경험과 충분한 법문 준비로 인기가 높다. 교도소, 운불련, 직장법회 등 정 법사를 찾는 곳이 많아지면서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주말을 잊은지 오래다.

"정년후 골프치고 산에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젊어지는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나를 찾는곳이 있고, 그들을 위해 힘쓰다보니 건강도 함께 따라오나 봅니다."

정 법사의 집은 광주다. 포교사로 활동하면서 잠시도 목포를 떠날 수 없어 2년전 정년퇴직을 하면서 목포에 개인공간을 마련했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 적적하기는 하지만 토굴마냥 정진하고 법문준비하기에는 그만이다.

지난해 전남도 청사가 무안으로 옮겨오면서 정 법사는 새로운 기운을 감지하고있다. 목포불교가 도약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틈만나면 도청 불자회와 포교사단이 힘을 모아 지역불교를 일으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 법사는 "숨 쉴수 있는 힘만 있어도 수행하고 포교하겠다"고 말한다.

이준엽 기자

4월30일 연합봉축행사

청주청원불교련 월례회의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각의)는 2월 21일 법인정사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기획국장에 연복흠, 포교국장에 유병관, 섭외국장에 남윤모 씨를 임명했다.

또 부처님 오신 날 행사와 관련, 4월 13일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연합봉축행사는 4월 30일 봉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 개강일: 2006. 3. 3
14:00 - 18:00 (10회 과정)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빙의 · 해리 치유법
자비손 치유법	전생 치유법
음성 내공법	내생 치유법
도인 양생 비법	칠차원 생명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자격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조동종 올해 사업계획

찾아가는 포교·인재양성 주력



조동종은 올해를 제2 창종 원년으로 정하고 종조(宗祖)의 창종 정신을 되새겨 '대중적인 종단'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시대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능동적 포교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동종 총무원장 심월 스님(사진)은 이 같은 신년 계획을 설명하면서 "금년을 종단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동종은 5월말 대규모 성지순례단을 구성해 동산양개 선사(조동종 종조)가 주석했던 중국 강서성 보리선사를 종도들과 함께 찾아간다. 여기서 비석 제막식을 하며 종풍 진작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한다.

올 한해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사업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신도와 스님들의 연수교육을 5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사찰에 개설돼 있는 시민 묵조선원을 적극 활용해 심신 수행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묵조선원은 종교와 종단을 초월해 대중들이 언제든지 선원을 찾아와 쉼터와 수행처로서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조동종은 지난해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대성전 간행보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보살행을 실천하는 근로봉사 운동도 종단 차원에서 전개한다. 일손이 모자라는 일터에 전 종도들이 1회이상 무보수 근로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김주일 기자

본원종 올해 사업계획

총무원 내 행자교육기관 설립



"종단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은 교육사업이다."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사진)은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본원종이 올해 추진할 사업중 가장 큰 역점을 둘 것은 행자교육기관과 의식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대화 스님은 "총무원이 견지동에서 평창동 청사로 이전하면서 진 부채의 상환을 1월초에 완료 시켰다"며 "올해부터는 행자교육기관 등 교육기관을 총무원안에 만드는데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4월 30일 충주 중앙탑공원에서 열리는 '수륙 고혼 천도대법회'는 본원종의 상반기 가장 큰 사업이다. 세계평화와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법회는 충주시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다.

종도화합을 위해 창종 기념일인 10월 1일에는 평창동 연화정사에서 종지교육과 대법회를 열기로 했다. 또 스님은 "의식교육 기반확립을 위해 교재도 편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원융종 올해 사업계획

봉사활동 등 복지사업 강화



"보살행을 통해 종단의 위상을 강화하겠다."

원융종 총무원장 법륜 스님(사진)은 올해 봉사 활동을 통해 복지 종단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3월 26일 창종 기념대법회를 겸한 경로잔치를 총무원에서 연다. 이 행사에는 지역독거노인 3백명을 초청해 점심 공양과 다과회를 마련한다.

법륜 스님은 "올해에는 주로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행사를 많이 기획할 것"이라며 "이런 행사들을 통해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종도들이 한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행을 펼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포교에도 힘쓸것"이라고 덧붙였다.

8월에는 종단 수륙대재를 방생법회와 함께 대규모로 치를 예정이다. 또한 9월과 10월 두 달간에 걸쳐 종도교육을 위한 연수회를 2~3회 개최해 교육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원융종은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 계율을 재정비할 것이며, 2~3회 종도들을 위한 국내외 성지순례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미륵종, 총무원 사무총장 등 직제 신설

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의장 지은)는 2006년 제1차 정기 종회를 2월 17일 경남 양산 대인사에서 개최했다.

미륵종 중앙종회는 이날 종회에서 총무원의 사무총장직을 부활하고 복지법인 허가를 취득한데 따른 복지원장직 신설 등을 결의했다. 또 총무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방안과 제5차 해외성지순례(3월 7일)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미륵종 종정 연화 스님은 종회에 앞서 지난 1월 9일 중앙종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지은 스님과 감찰원장 월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영민 경남서부 지사장



종정 연화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는 지은 종회의장 (가운데)과 월산 감찰원장 (맨 오른쪽).



"불자 장병들에게 희망을"

한경선 보살 '훈련소에서 온 편지' 3천권 기증

"급작스럽게 아버지를 여읜 뒤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아들이 군에 입대했다. 가장 큰 언덕이었던 남편이 떠나간 자리를 채워주던 아들과 함께 엄마도 군생활을 함께 시작했다. 진정한 인격체, 바른 지혜를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엄마가 보낸 26개월 동안의 편지들.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과 가족애가 풋풋하게 녹아 있는 편지들은, 어딘지 휑하니 빈 듯한 우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준다."

<훈련소에서 온 편지>(저자 한경선 · 박병준, 조계종출판사 刊)서문에 나와있는 편집자 주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훈련소에서 온 편지>의 저자 한경선 보살은 최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 자신이 쓴 이 책 3천권을 군불자들을 위해 기증했다. 지난 2월 22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는 한경선 보살과 군종특별교구 종무소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전달식이 열렸다.

<훈련소에서 온 편지>는 한경선 보살이 99년 1월 외동아들 박병준군을 군에 보낸 이후 26개월간 아들과 주고받은 50여통의 편지를 모아 서간문 형태로 발간한 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군생활을 하는 아들과 엄마의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다.

한 보살은 전달식에서 아들이 전역한 2001년 편지글을 모아 당시 국방부장관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조계종 출판사에서 내용이 좋고 군포교에 귀감이 된다며 책으로 펴내자는 권유를 받아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발간 동기를 밝혔다.

이번에 한경선 보살이 책을 기증하게 된 것은 아들이 올해 4월 8일 결혼을 하기 때문. 아들의 결혼을 부처님께 고하고 아들과 같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군장병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다시 인쇄해 기증하게 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훈련소에서 온 편지>를 논산훈련소 및 각 부대 신병교육대대, 군법당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한경선 보살이 2월22일 호국원광사에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손양호 상임자문위원에게 <훈련소에서 온 편지> 3천권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손양호 상임자문위원은 "훈련소에서 1년에 수계받는 불자 장병들이 9만명이 넘는다"면서 "이 책을 통해 군에 들어와 적응 하고 있는 훈련병들에게 가족애와 불심을 동시에 느끼고 무사히 군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경선 보살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경선 보살도 "인도 기원정사 천축선원에서 수년째 수행하다 아들의 결혼으로 귀국해 우연히 현대불교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보고 마음을 냈다"며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군포교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건국 어느곳에서도 일등할 수 있는 교육장소
범음 · 범패 (梵音 · 梵唄) 평염불 상주권공, 각배, 영산, 짓소리까지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6년 제8기 신입생 모집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종 소, 낭독하는 법
– 겉채비 : 바라춤, 도량게작법, 다게작법(나비춤), 사물 다루는법, 화청(회심곡)
◆ 과 정 : 2년(4학기), 1년과정(상주권공, 간단한 불공)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학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원서마감 : 2006년 3월 6일 월요일 오후3시 ◆ 입학식 : 2006년 3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수업시간 : 첫째주 토요일 – 2학년 (오후 3시부터 – 5시 30분까지)
둘째주 토요일 – 1학년 (오후 3시부터 – 6시까지), 통신생 포함
특수 상좌들 각배, 영상반 목요일 (오후 3시 부터 – 5시 30분까지)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까지
◆ 전화번호 : 062)362-8604 / 011-624-8604 / Fax 062)372-8604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 (우 502-242)
◆ 학 장 : 혜공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이수평가자)
◆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 (예금주 : 노연숙)

한국불교의식대학 신입생모집 교육기간
◇ 교육기간 : 2006년 2월 22일 - 2월 25일 (3박 4일)
● 내용 : 2월 23일 오후 2시 : 입회식 및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욕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아계 교육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징, 목탁, 요령
2월 23일 9시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 녹음), 화청(회심곡), (전편)교육
2월 24일 9시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청(회심곡), 상축하는 법
2월 25일 9시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교육,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욕
● 준비물 : 가사장삼(스님일 경우), 필기도구, 녹음기, 일반 불자 평상복
▷ 숙식제공 포함 교육비 25만원 ▷ 모든 교육교재는 본 대학에 있음 (교재비 별도) ▷ 이번 교육을 받으실 분은 미리 전화주시고 송금요
한국불교 광주 · 전남 종무원 의전국장으로서 이번 교육을 태고종 스님들에 한해서 특별 무료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욕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욕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게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30.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9제의식1 38.상주권공49제의식2 39.상주권공49제의식3 40.상주권공49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2권 100,000원

◆ 비디오 반이상 구입시, 5일간 교육테이프 14개 증정합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연숙)
◆ 제품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승광불교전통미술원

• 불 상
• 탱 화
• 개 금
• 원 형 조 각
• 불 사 상 담
• 천불삼천불
• 불 교 용 품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 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라옵니다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7, 031-595-6558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우 손 동 술 합장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부처님, 제 짝은 어디 있나요?

옥천 대성사 '따뜻한 만남' 법회 현장

중매카페 회원들 셋째주 일요일 사찰서 '맞선'
남성들 과일 직접 깎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
130명 참가 9쌍 '눈맞춤' 성공…온라인 '중매' 계속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요. 누구에게나 인연은 있습니다. 잠시 스치는 인연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옥천 대성사는 '그 곳에 가면 결혼할 수 있다'는 소문 덕택에 일약 미혼남녀들의 성지가 됐다. 이렇게 입소문이 난 것은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이 지난해 2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따뜻한 만남'이라는 중매카페를 개설한 뒤부터다. 혜철 스님은 카페 등록회원들을 커플로 맺어주기 위해 매주 일요일 20~30여 명의 회원을 사찰로 불러 '선남선녀 따뜻한 만남법회'라는 이름의 오프라인 맞선을 주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명, 20명 모이던 참석자들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많아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던 것을 올해부터는 셋째 주 일요일에 여는 것으로 바뀌었다.

2월 19일에도 어김없이 미혼남녀를 위한 '선남선녀 따뜻한 만남법회'가 열렸다. 법회 횟수를 월1회로 줄인 뒤 처음으로 여는 법회라서 그런지, 이날따라 유난히 많은 참석자들이 몰렸다.

법회에 참가한 130여 미혼남녀들은 경내에 들어서 불공으로 마음을 경건하게 가라앉힌 뒤 혜철 스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무슨 법문이 시작될까 싶은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이다.

하지만 혜철 스님은 모여 앉은 사람들에게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서로 눈을 돌려 여기 있는 선남선녀 얼굴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라고 주문했다.

"선남선녀들은 모두 귀중하고 덕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 선근을 심으려는 마음을 가진 1등 배우자감이지요"라며 독려하던 스님은 한 발 더 나아가, 부끄러워서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참가자들에게 "여기서 배필을 찾아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조언까지 한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모습.

참가자들도 용기가 난 듯,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경기도에서 왔다고 소개한 한 남성은 "요리가 취미라서 일을 하는 틈틈이 요리사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은 제가 날마다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해 법당 안에 웃음꽃이 피기도 했다.

서울 이태원에서 왔다는 김모씨(39)는 2남 중 장남이고 부모님은 칠순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분들에 비해 단점만 많고 내세울 장점은 없는 것 같아 부끄럽지만 그래도 믿어주는 여성이 있다면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 놓아 여성들의 호감을 샀다.

젊은 총각들의 자기 어필은 소개할 때뿐만이 아니라 만남 법회 내내 이어졌다. 공양간에서 공양주보살이 나눠주는 과일을 먹으라고 과일들을 넣어주자, 주변에 있던 남성회원들이 여성회원에게서 과도를 뺏어들고 "이런 건 우리가 해야죠"라며 능숙한 솜씨로 과일을 깎기 시작한다. 방 한 쪽에 앉아있던 여성회원들이 소근 소근 속삭이며 웃는 것이, 그리 싫지 않은 눈치다. "어머나, 우리보다 더 잘 하네."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나온다. 길모씨(여 · 32)는 자신이 참석한 이유를 "조건만 맞추는 만남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나눌 만한 확신이 드는 사람을 찾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부란 평생을 함께 공부해나갈 수 있는 '도반'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 전생담을 보면 부처님도 전생에 연꽃 일곱 송이를 공양한 처녀와 부부의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법회에 함께 참석하고 부처님 뜻을 따르며 함께 긴 세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수많은 결혼정보회사를 놔두고 이 작은 사찰에 사람들이 몰리는지 짐작이 가는 말이다.

만남법회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법회에서도 '법당에서만 만날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만나는 방생법회를 열자'거나 '한 달에 한 번 법회에 참석할 때 각 지역별로 차량카풀을 하도록 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법회에 참석한 남녀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고, 이를 스님께 전달하면 스님이 의견을 수렴해 다음 법회에 반영한다.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름을 넌지시 자신의 이름과 함께 적어내면, 스님은 개별적으로 이들 회원에게 연락을 해준다. 쪽지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쓴 뒤 사찰을 나서는 이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이날 맺어진 아홉 커플의 얼굴에는 설레임과 기쁨이 가득했다. 대성사 (043)732-5560

옥천 / 글=이은비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부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다' 생각하고 탁 잡으세요!" 한달에 한번 만남법회를 주선하는 혜철 스님이 참가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부처님이 굽어보고 있는 대성사 뜰 앞을 거닐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참가자들.

■ 대성사 '따뜻한 만남' '붓다카페'

cafe.daum.net/dasungsa
cafe.buddhapia.com/community/dasungsa

옥천 대성사 회원들은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 먼저 자신의 신상명세와 소개를 올린 뒤, 한달에 한번 셋째주 일요일에 열리는 만남법회에 참석한다. 지난해 2월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해 회원 수 2천여 명을 돌파한 '따뜻한 만남' 카페(cafe.daum.net/dasungsa) 외에도, 혜철 스님은 올해 1월 16일에 새로운 카페인 대성사 붓다카페(cafe.buddhapia.com/community/dasungsa)를 불교포탈 부다피아에 개설해 더 많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만남카페 회원수 2천여 명 넘어서
새로 연 '붓다카페' 남녀 정보 가득
온 · 오프라인 연계 7쌍 결혼에 성공

새로 열린 대성사 붓다카페는 미혼 · 재혼남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끔 따로 게시판을 분류해 놓았다. 게시판마다 회원들의 직업과 연봉, 가족사항 등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자기소개서로 빼곡하다. 현재 약 600여 개에 이르는 회원정보가 올라와 있으며, 결혼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누리꾼들로 인해 날마다 사연과 사진이 끊이지 않고 업데이트 되고 있다.

카페에는 '대성사 및 불교 뉴스 모음'을 비롯해 '지대방 방문손님 글쓰기' '대성사 법회 · 행사 안내' '선남선녀신청현황' '재혼만남신청현황' '법회참석후기'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혜의 글 남기기' '43문항으로 자신설명' '선남선녀 사진 올리기' 등 불자남녀의 인연을 맺어줄 다양한 카테고리가 구성돼 있다.

이러한 온 · 오프라인 연계 만남법회를 통해 지난해 결혼에 골인한 커플은 총 7쌍에 달하고 8번째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 50여 쌍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이다.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이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중매쟁이'를 자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법당을 신축하는 것만이 불사가 아니라, 불제자가 인연을 맺고 서로를 믿을 수 있게 이끄는 것이야말로 큰 불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향(香)의 문화창조 선도하기 30년 만복향당

이제는 향을 피우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 만복향당과 진품의 향기를 만나는 소중한 경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주)만복향당 임직원 일동

세계적 수준의 조향기술을 자랑하는 일본향당(Nippon Kodo)과 합작하여 만든 (주)만복향당이 엄선된 원료들로 만든 고급향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한층 더 편안하게 해 드릴 것을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본 제품들은 자연과 생활속에 향기를 자연소재 그대로 충실하게 표현한 아로마테라피(향기치료)적인 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향을 접하시는 동안 자연에 대한 감사와 자신만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株)萬福香堂 www.mbhd.co.kr
◆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양재 2동 374-3 봉우시티 3층
대표전화 02)577-4155 / FAX 02)577-0746
◆ 공장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47-2 전화 055)864-2432

대리점 및 판매점
부산 대리점 051)256-3353
광주(삼화불교사) 062)367-0652
대구(연꽃세상) 053)426-7300
전주(이화불교사) 063)251-7675
광주(불교서원) 062)226-3056
양산통도사(불연산방) 055)381-1060
익산(화엄불교사) 063)843-3220

전통향 시리즈 1 (견성향 · 자단향 · 천연목향)


견성향
참숯과 천연 허브 에센스를 사용하여 라벤더의 상쾌함과 부드러움을 재현한 고급 무연향


자단향
오랜 동안 향을 사랑하는 이들의 귀한 벗이 되어 온 만복당이 권하는 대표적인 고급 선향
기를 고르게하여 정신을 맑게하며, 피로를 풀어 신체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향


천연목향
자단과 함께 사랑받아 온 천연 목향과 백단의 풍부한 맛이 어우러진 깊고 부드러운 향취
자연향으로 냉기를 치유하고, 강한 진정효과가 있다.
혈압을 낮춘다.


신제품
진품 향기인 靑雲 아모레
천연백단과 천연식물정유를 사용하여 강한 항균작용과 개미, 빈대등 방충효과가 탁월하며 비타민E가 첨가되어 노화방지에 좋은 고급향입니다. 420년 전통의 일본향당(NK)이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신제품입니다. 아모레는 이탈리아어로 "사랑" 세이운아모레 – 사랑의 선향입니다.

화풍 시리즈


라벤더 백매 히노끼 대나무 아쿠아

● 제품의 특징
상쾌한 잔향이 긴 시간 남아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적 긴장을 완화 시켜줍니다. 또한 각종 악취(담배연기, 지하실의 습한 냄새등)를 원천적으로 분해 제거하여 공기를 맑게 하여 줍니다.
특히 연기가 적어 연소 후 맑은 공기를 유지하여, 향을 자주 사용하는 고객에게 권하고 싶은 고급향입니다.



부처님 생애를 벤치마킹하라

김경남(한국종합전시장-COEX 상무이사)

(기획연재) **불교와 경제**

① 생활경제 속에서 불교를 찾다
② 인생을 경영하라
③ 불자CEO에게 듣는 자기 경영법

불교와 경영, 두 개념은 서로 동 떨어져 보이지만 사실 경영철학이야말로 불교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

경제활동이 '모든 사람을 이익 되게 하라'는 부처님 말씀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종교에서 경영 패러다임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11월 23일 '불교와 사회 포럼'이 개최했던 창립세미나에서 서강대학교 노부호 교수는 "불교사상의 핵심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기업경영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불교경영은 이익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방경영'이며 '공동체 경영'적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를 기업과 기업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김경남 한국종합전시장(COEX) 상무이사는 코엑스의 터줏대감이자 성실의 전설로 통한다. 78년 대한무역진흥공사에 공채 입사한 후 과장 2년 만에 차장으로, 1년 만에 다시 부장으로 가파른 승진을 했으며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김 상무이사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올바른 생각과 철학으로 행동하는 불교인은 언제나 이웃과 가족에게 환영을 받는 법"이라며 '불교를 중심에 놓은 생활'이 비결이라고 웃었다.

매일 아침 8시. 김 상무이사는 남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 5개의 일간지를 훑어본 뒤 사무실 한쪽에 걸어둔 달마상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바쁜 일정 때문에 좀처럼 사찰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에나마 명상을 하고 있다.

안심입명(安心立命, 마음을 편히 하여 흔들림이 없음)이야말로 과중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고위관리자나 CEO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 그 때문에 김 상무이사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신행활동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곤 한다.

하지만 김 상무이사가 불교에서 찾은 건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다. 흔히 경제나 종교라 하면 막연히 생활과 동떨어진 세계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김 상무이사에게는 세상만사가 경제 아닌 것이 없고 불교 아닌 것이 없다. 부처님이야말로 김 상무이사의 '경영철학의 역할모델'이기 때문이다.

인생 · 자신 · 중생 경영한 부처님 '경제인의 CEO'
'대기설법'은 고객불편 최소화, 고객만족 가르침
질 높은 서비스는 곧 좋은 결과, 연기법과 상통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평생 동안 '대기설법'을 펼쳤던 부처님의 인생은 '고객불편 최소화'를 지향하는 기업에게 지금도 큰 가르침을 준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대중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대화에 귀 기울이는 부처님의 태도 역시 귀감이 된다. 김 상무이사는 가정이든 사회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의 시간에는 30대 직원이 30분 이상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항상 부하직원이 먼저 발언의 기회를 갖는다. "불교의 자자와 포살 제도를 도입해 서로가 먼저 아집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대화하는 회의방식을 염두에 두고 진행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업철학은 연기법이다. 김 상무이사는 모든 업무를 진행할 때 연기법에 적용이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본 뒤 결정을 내린다. 그가 생각하는 연기법이란 '질 높은 서비스와 고객지향적인 마인드'를 통해 기업을 경영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는 믿음이다. 리콜이 잘돼야 발전한다는 논리가 연기법을 통해서 풀리는 셈이다. 한 명의 최고 경영자가 연기법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심어준다면, 그 기업은 높은 고객지향정신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

품질과 서비스, 혁신 등 경영근본 원칙을 강조하는 미국경영학에 비해 동양의 경영학은 '모든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조직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특히 내부 고용인의 만족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동양경영학은 고용인의 만족이 소비자의 만족보다 크거나 같을 때, 윈-윈(Win-Win) 경영이 가능해진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남을 이롭게 하면 그 이로움이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불교의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으로 볼 수 있지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제행무상 또한 언제나 변화하는 시장을 상대해야 하는 기업인이 마음에 새겨야 할 법칙이다. 훌륭한 경영인의 조건은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행을 겸비하는 것으로, 실천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김 상무이사는 불교경영의 실천원리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팔정도를 경영철학과 결합해 지침으로 삼을 것을 권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해인사 종(鐘)

'해인사 종(鐘)'은 한국의 종 시리즈로 출시된 작품 가운데 두 번째 청동 제품입니다. 조선시대 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종으로 평가받는 해인사 대적광전 종(보물 제1253호)을 그대로 축소(폭230mm×높이265mm) 제작한 제품으로 소리가 맑고 청아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조선종 특유의 둥근 종형과 섬세한 문양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가격 200,000원

분다의 경제학 (3)

행복해지기 위해 일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만큼 보답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회사에서 이만큼 일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이것 밖에 되지 않는다느니, 혹은 내가 친구에게 이만큼이나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느니, 하는 등등의 수많은 불평 불만을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들으면서 지낸다. 저녁에 한잔 술을 걸치게 되면 빠지지 않는 안주가 바로 이러한 불평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이란 바로 교환을 전제로 한 행위라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교환을 전제로 한 경제 행위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주고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거래 상대방은 서로 만족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공평하다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어서 실제 거래, 또는 교환 행위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똑같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엇을 바라고 일하는 교환의 개념으로 경제 행위를 하는 한 우리는 함께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고 받는 행위가 공평할 때 서로 만족
보시행위라 깨닫고 물질에 집착 말아야
돈 추구보다 좋아하는 일 찾도록

<금강경>에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라는 말씀이 있다. 보시할 때는 내가 보시한다는 생각조차 내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리라. 보다 적극적인 현대적 의미로는 진정으로 남을 위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그 대가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회 또는 벗과 친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들이 대가로 주는 칭찬과 물질적인 보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을 한다는 것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시행위이며 보살행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의 본질이 보살행의 실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대가에 연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소유의 정신이란 문자 그대로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정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소유의 정신을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하자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결국 무주상보시와 무소유의 가르침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소유에 집착하는 한 반대급부로 보다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탐욕은 그 속성상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한 대가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는 한 만족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다.

단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일이 즐겁지 않으랴.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보답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일에 대한 대가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가만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은 필히 그 일로부터 소외되기 마련이다. 일의 결과로 얻게 되는 반대급부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은 그것 자체로서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일로부터 소외된 삶은 공허하고 의미 없는 것이 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돈으로 행복을 사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경제활동의 결과 얻게 되는 이익은 고객 및 소비자들에게 겸허하게 봉사한 결과로 얻게 되는 보너스라는 경영학 이론이 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그 누군가를 위해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대가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황우석팀 연구재개를 위하여 후원에 동참합시다

후원 출범 선언문



지금 우리는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산업전반에 선진국형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시점에서 배아줄기세포 진위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한 줄기세포 선두자리를 놓고 국가간의 경쟁이 가속되면서 세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황우석과 줄기세포는 우리의 꿈이며 ! 우리민족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세계속에 대한민국이 굳게 떠오르는 시대의 개막이었으나, 그러나 지난해 말 MBC-PD 수첩의 보도와 미즈메드 노원장의 폭로로 우리 국민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국민적 실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모한 보도와 과격한 폭로만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사이언스 논문조작이니 뭐니해서 사회전체가 혼란한 생활속에 빠져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황우석팀에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형성을 해 주자고 국민 대다수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황우석박사 역시 황박사연구팀이 원천기술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6개월정도의 입증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황우석박사는 스너피복제에서 입증했듯이 동물복제, 영장물복제는 세계최고의 과학자입니다. 또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배반포기 까지는 황우석박사팀의 확실한 기술임을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는 대한민국의 독보적 기술이며, 황우석박사팀이 완성 시킬 것입니다. 줄기세포연구소는 최소한 기반설비 비용이 100억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국민이 만드는 연구소가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황우석박사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1인 일만원씩 10개월동안 10만원에 동참합시다. 그렇게 10만명만 참여하면 100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황우석박사팀을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지원사업을 기쁘게 완성할 것입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낼 것이며, 그것은 이 민족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러나 현재 황우석박사팀은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황우석박사의 연구재개를 위한 뜻을 같이한 여러단체들과 생각을 같이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황우석박사를 후원하는 후원회를 출범하오니 우리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합시다.

3월 1일(수) 오후 6시
광화문 촛불집회에 불자들이 앞장섭시다

후원동참 방법 및 다짐

1. 1인 1만원씩 10개월만 동참합시다.
2. 10만원씩 10만명이 참여하면 100억됩니다.
3. 100억을 모으면 줄기세포 연구재개를 위한 기반시설을 세울수 있읍니다.
4. 우리 불자들이 황우석팀 후원에 앞장섭시다.

- 후원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 023501-04-070467
농 협 : 053-01-266768
우 체 국 : 010579-01-003775
예 금 주 : 황우석후원범불교연대
※입금후 꼭 사무국에 전화주십시오.

황우석팀 연구 후원을 위한 범 불교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법타스님(대한불교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 철안스님(대한불교조계종 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 김재일(동산반야회 이사장)

사무국 02)732-9595 팩스 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마음을 읽는 비법사주전문반모집
포교와 회원관리의 첩경은 사람마음의 파악에서부터...
철학원개업에 필요한 통합강의
(사주학,상담요령, 대체의학, 처방법, 작명,궁합,택일..)
문의:010-2207-1638

복지시설에 동참하실분
청정수월도량입니다
몸과마음이 외로운 불들을 위하여 따뜻한 온정이 깃든 황토방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안락한 노후를 함께 하지고 후원해주실분 삼담 주세요
018-406-3073

사랑골 절 **금용사**
된장 간장 판매
5년, 10년, 15년, 20년
1킬로당 1만 3천원
보살님 백일기도, 49일 기도, 21일 기도 원하시는 분 받습니다.
011-261-4405

지금은 사람수명 팔만사천세의 시대!!!
우리곁에 오신 **미륵**
전국 유명서점에 있음
보급총판 운주사
02)3672-7181~5
010-3699-9120

특효!! 위장약 특별보시
오래된 위장병, 위염, 급체 복통, 변비, 구역질, 신트림 위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릴때
복용후 효과없을시 전액 환불
1개월분 3만5천원
대도한의원
농협계좌 187-02-274348 예금주 이영희
010-3121-4984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신문 566호(2월 22일) 1면 하단광고로 게재된 **봉은사 '선원장 초청 일요법회'** 내용에서 **대원스님(학림사 오등선원장)**을 **대원스님(학림사 조실)**로 **지환스님(동화사 기본선원장)**을 **지환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봉은사 포교교육팀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산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자연환경 · 수련지도법이 탁월한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홈페이지 : www.zenfast.com
◆안내 : 055)834-1115
016-849-3858

방편비법전수

침술 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빡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중,대,부채,병풍
▶각종 보시용 선물용 봉안식용
▶전화주문(작업후 등기속달)
안동하회마을입구
연꽃화가 018-588-5698

사찰의 모든행사
지극정성으로 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 49재 천도재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산신재 용왕재 각종의식
010-8758-0606
월광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역학 관상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직접 강의
◐ 적중률 높은 학설 쉽게 단기간 완성
◐ 공부를 하였으나 자신이 없는 분 비법전수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 2,4,5호 동대문운동장 해송빌딩3층

점안식, 천도재, 49재, 천수바라, 작법, 태평소, 사찰 재 · 의식
행사해 드립니다
010-9444-1608
무아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전지역
042)528-0108

비구니 부전스님 및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북 영주
011-9342-9850

사찰(女)사무원 모십니다
(45세 이하)
041)673-2333
대한불교조계종사찰

개인사찰이나 보살님이 운영하는 사찰 책임지고 맡아 운영하고 싶습니다 비구승입니다
017-571-5599

산세수려한 청정도량에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은 전화 주십시오
054)433-6315

와불조성불사에 능력있는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스님이없는 절이나 보살님이 운영하는 사찰의 주지를 원합니다 (사주 신수 통달한 비구스님으로 무보시로 절을 발전시켜드립니다)
010-4812-707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011-483-563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많이 드립니다.
010-9620-67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458-1108
010-5541-6568

부전스님 및 기도하실스님 모십니다
▷영주
010-7210-500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 김포 위치
011-688-6625

부전스님 모십니다
(운전면허 소지,태고종스님환영)
▷파주 가막산 범륜사
031)959-4566

기도스님 모십니다
행자 모집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백련사
031)485-941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성남
011-9854-9810

프로폴리스(유익한 점)
프로폴리스는 모든 인체에 유익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
소승이 직접 벌에서 체취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가장 뛰어난 항균 산화를 작용하는 프로폴리스입니다.
건강기능 양봉원 선구 합장 010-2779-2237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단체교육 50만원)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단체교육 30만원)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 / 02)720-5682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서구 비산7동 1840-5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053)359-2225, 359-3644

법화의식 무료로 배우실분
● 대 상 : 스님 (예비스님)
● 기 간 : 3월6일 - 4월30일까지 5명 선착순, 숙식제공
● 지참물 : 가사, 장삼(일용품등)
● 장 소 : 창원시 중앙동 70-9번지
대한불교 묘법연화종 총무원 묘법정사(연화불교대학)
055)263-4984, 010-8009-1020
묘법연화경강의중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16일(목), 17일(금), 21일(화)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경전중심 체계적인 교육
● 3월16일(목), 3월17일(금) - 주간반, 3월21일(화)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행자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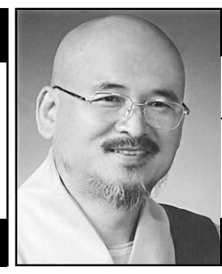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봉은불교미술원 - 탱화·벽화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지장탱 관음탱(천수천안) 감로탱 지옥탱 오백나한탱
산신탱 독성탱 종합탱 홍탱화 먹탱화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번지
041)541-3545, 3547 / 016-751-3545
홈페이지 www.bongen.pe.kr 불모 오 재 택
(300여개의 작품사진이 전시되 있습니다)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 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지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서화당인생풀이 V2.2(동양철학) 네오헬스 V2.0 (사상체질의학) 인장성명학 V2.0 (작명)
▶특별 할인 후 : 총3장 220,000원(무료?)

동양철학	사주팔자, 궁합, 당사주, 토정비결, 점성술, 성명학, 관상, 수상, 꿈해몽 만세력제공, 사주사전기능, 방명록 상담기록, 출력기능, 상호등록
사상의학	나의 체질진단(문답형), 알기쉬운 약선요법(식품류,약재류) 사상의학강의실, 나의건강정보, 생활속의 약선요법, 사상체질식단 등
인장성명학	개요(성명학,인장학,개운법) 성명풀이(한글,한자) 음양오행 사주풀이 작명(음양,음오행,수리<원격,형격,이격,정격>,감명결과) 상호등록

■ 그동안 3,000여장의 판매실적과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입증된 사주풀이의 진수! 국내최초 동양철학 사주자판기 "사주천하 특허 획득" 및 "LG산전 500여대 납품실적"
■ 주문 선착순 100명께는 왕초보도 척척푸는 "사주세상 ₩47,000원" 또는 사상체질 의학의 진수 "사상약물방제대전 ₩88,000원"을 드립니다. ★ 특별선물증정 ★

특가행사 서화당 V2.2 ₩220,000 / 네오헬스 V2.0 ₩110,000
인장성명학 ₩110,000원 총 ₩440,000원에서 -50% 할인 후
▶총3장 ₩220,000원에 본사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구입방법 1안 : 금번행사 특별가격 ₩220,000원을 입금하고 구입하는 방법
2안 : 사용중인 인터넷 회선가입을 변경하고 ₩110,000원에 구입
3안 : 사무실과 집의 인터넷을 변경 후 **"무료"**로 구입하는 방법

위 특가행사의 구입방법중 고객님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성심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정보통신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 이명수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구요! 지금보다 최대 25배 빠르고 저렴한 LG파워콤(방송광고중) 또는 현재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쓰세요.
전화 한 통화로 전국에 가입 설치합니다.

입금처 : 국민은행 740901-01-310096 우체국 313049-01-003391
농 협 453050-55-002174 (예금주 :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 감수 : 한국동양철학인협회 중앙회장 최국봉 대 전 대 학 교 철 학 과 교수 송인창
전국대표번호 ☎ 1600-4684(사주팔자) / H·P 010-3366-3366

(주) 천성건설

공사개요

◆각종 설비공사 일체
◆석재, 부품 일체
◆석, 조각, 석물 일체
◆석, 불상, 좌상, 미륵
◆석, 탑, 마애불상조각
◆건설부문
◆석굴, 납골당 공사
◆석굴, 법당 조성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석 공사 일체
◆석굴, 저장실, 보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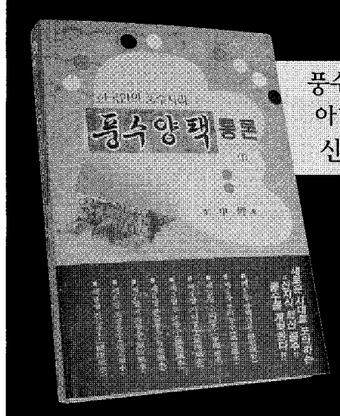
공사완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 공주 석굴 법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법당 50평
◑ 우리동 축대공사 응덕사
◑ 가평 석굴법당 100평 조성
◑ 청평 자연돌탑공사 28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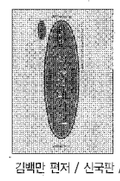
◆본 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 빌딩 301호 (기계 및 자재창고)
◆공 장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공사문의 : 전 화 041)334-2567~9
H · P 010-8662-4841, 011-423-2040
전무 이 재 갑

(株)天星建設

화제의 신간 한국인의 풍수지리
"풍수양택통론"



풍수를 바로 알자. 풍수는 미신이 아니고 신비의 과학이다.
신지식 혁신 풍수를 개혁한다.
● 전통풍수를 현대학으로 접근코자 하였다. 바람과 물, 그리고 땅이 빚어내는 풍수를 지구과학과 더불어 풀어낸다. 풍수도형을 개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도형법칙을 세웠다.
● 조경풍수에서 소재를 음양과 오행으로 분류시켜 응용토록 하였으며 분금도형 적용과 조경의 법칙을 제시했다.
● 건강풍수에서 인상풍수를 개발하고 건강수행법을 창안하였으며 개운방법도 일러준다.
● 양택의 구조론에서 적정공간을 수치화하고 공간과 벽 문을 다양하게 논하였으며, 분금비를 적용하였다.
● 풍수분금도형을 개발하여 풍수의 근본 이치를 쉽게 일깨우도록 했으며 또한 분금비가 갖는 이치를 지구와 더불어 설명한다. 분금도형 법칙을 양택의 구조론과 조경에 적용하고 인사의 응용에까지 폭을 넓혀간다.
전국 서점 판매중.
青烏 申坪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80쪽 / 정가 26,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 사록배판/이선종 지음/25,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경계
● 법당 : 19평
● 요사 : 50평
● 부지 : 약20,000평
● 가액 : 15억
● 전통사찰 가능 대상 지역으로 (즉시법회가능)
● 위치 : 경남 울산
● 법당및요사 : 160평
● 부지 : 97평
● 가액 : 9억 (융자2억5천포함)
● 위치 : 경북 김천
● 법당 : 30평
● 요사 : 80평
● 부지 : 176평
● 가액 : 2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강원평창사찰3만평-6억
2.충청도사찰 3천평-8억
3.삼각산국유지사찰-7억
● 기도스님,노전,부전스님
● 공양주,법당,화주보살님
● 종무직,경리,사무장,처사
● 49재,천도재,점안식
※ 사찰일자리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 창녕읍에서 7분거리
● 평수 : 148평
● 삼존불, 탱화, 약사여래불
차진입가능, 요사채 3칸
● 답사후 가격 결정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앞에 비구니스님이 살다간 공입
주거지역임, 비구니스님 환영
● 시내버스 100M 앞까지 옴
011-9502-3235

사찰안내
● 위치 : 마산시에서
15~20분거리
● 대웅전 25평 요사채 약 40평
● 대지 600평 신축건물,
고건축 경관수려함
경내까지 차량진입가
● 가액: 4억(절충가능)
011-530-1808
011-768-8744

사찰안내
● 위치 : 포천 송우리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 하천부지: 180평
● 건물 1층 50평
● 방 5개 공양실 화장실2개
후계실大, 건물 2층 35평
대웅전(삼존불) 지장소불 108불
● 건물별채: 영단 및
위패단 1천기(80평)
● 가액: 13억5천만원(절충가능)
010-9757-7245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대지 : 97평
● 법당: 30평
● 요사: 46평
● 가액: 1억9천
● 위치 : 경남
● 부지: 63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양북면 권이리
● 대지 572평 건평 94평
● 황토요사채포함 건물 3동
심야전기 설치
● 요양원 기도원으로 사용가능(방10개)
● 저수지 부근, 계곡 좋음
● 가액: 3억5천5백만원
011-561-3591
011-9518-9713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320평
건물3동 있음
● 가액: 6천5백만원
※ 참선 기도처로 매우적합
016-9301-3575
042)585-3573

토굴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주생면
● 대지: 200평
● 건물 3동있음
● 4천만원
● 참선 기도처로 적합
010-5631-8439
017-401-493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 위치 : 부산
● 대지 : 50평
● 법당 : 45평
● 요사 : 100평
● 가액 : 1억8천
(융자 1억5천 별도)
● 위치 : 경인지역
● 건평 : 110평
(8층 중 4층)
● 시설 : 완비(A급)
● 가액 : 3억
(1억5천융자별도)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급)밀양사찰 얼음골 부근
● 대지: 512평, 건평 100평 법당 뒤 대밭있고
● 대구 부산 고속도로 10분거리 언양 20분거리
● 대지전체 둘레 돌담 황토방처럼 전체 수리되었음
● 2층 법당 1층 요사채 산신각 실내 목욕탕
실외화장실2개 황토집 2채, 옛날 독 100점 포함
● 마을 앞뒤가 트여서 전망좋음
※ 비구니, 보살님, 노스님 아주 적합
● 가액 : 3억 8천만원
010-5572-1501 / 011-9512-5118

암자안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5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1-584-4418

암자안내
● 위치: 옥천
(대전 20분거리)
● 평수: 250평중
100평 등기필
● 법당,산신각
요사채2동 주차장
● 가액: 1억5천만원
011-9405-8186

역세권안내
● 위치 : 강원 평창 진부
진부역에서 200m. 중심 상업지역 유망
● 답필지 소액투자(전)
● 평수: 175평, 220평, 150평
임야 관리지역 210평,350평,450평
●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시
선수촌과 근접
● 청량리-진부 복선전철완공시
1시간30분
016-205-415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요지
● 대지 : 54평
● 1층 요사, 2층 법당
● 가액 : 3억 2천만원
※ 사찰양도, 운영하실분
연락 바랍니다
011-9557-4922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국립공원내 사찰 터 안내
● 위치: 충북 월악산 국립공원내 소재
● 부지 : 52,000평
● 가액 : 5억
● 내용 : 제1월광폭포, 제2월광폭포가
52,000평 안에 소재함
연락처 010-7559-2550

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
양덕원
● 법당 요사 텃밭있음
● 보일러 시설완비
조용하고 깨끗함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010-6388-0159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37평 건물중 3층
(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 답사후절충 (집기일체)
019-656-27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
● 대지 125평, 법당, 산신각,
독성각, 요사채 3동
● 가액 : 1억 3천 8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급히 땅값 이하
계산합니다.
011-380-5611

포교원안내
● 위치: 용인 수지 아파트 촌
● 건평 : 65평(5층 건물중 5층)
옥상사용
● 시설 : 법당, 주방, 방3개, 욕실,
컴퓨터, 주차시설, 소각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에
월8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803-136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오시장앞
● 건물: 평수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월 45만원.시설비 1500만원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
011-599-8476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2,100만원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입구
● 평수 32평 2층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2)433-1106
010-7440-3347

토굴 안내
● 위치 : 영천IC 5분거리
● 평수 : 104평 중
등기 74평
● 법당 20평, 요사채15평
● 가액 : 4천3백만원
(융자 650만원)
010-9522-2451

포교당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부근
● 2층, 건물 40평 중
법당 20평
● 시설비 : 300만원
● 가액 : 500만원 35만원
010-6433-487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사찰)
● 대지: 150평
● 건물: 30평(건물2동)
● 법당,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 가액: 6500만원
(융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9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1.2층)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6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사찰 터 안내
● 위치: 남안동IC 5분
● 임야: 13만평
● 평당: 4000원
● 관리지역 8400평,
농림지역
● 평지다수 산중도로양호
골재석 매장 다수
011-351-3264(주.야)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불광2동
연신내우체국옆
3, 6호선 연신내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4층건물중 2층 약 40평
● 시설: 법당 삼존불, 탱화4점
방2칸 부엌1칸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016-542-105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 32평,
요사채 3채
방4개, 창고 50평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주차시설 완비
● 가액: 2억2천만원
011-827-8191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범어사 입구 3층
● 평수: 50평
● 삼존불 산신 용궁후불
신중후불,큰방2, 작은방1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1-9556-8413

사찰별장용도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북면
상천리 소라마을
● 평수: 555평(대지 303평)
● 방4, 거실만 20평,
창고 4평, 욕조, 화장실
● 가액: 3억2천만원(절충가능)
※ 별장, 사찰로 사용가능
055)299-3550

토굴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대가면
● 평수: 412평
● 시설일체완비
즉시법회가능
주차시설있음
● 가액: 9천만원
055)673-5234

사찰안내
● 위치: 동해안 명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
● 사찰부지: 총교부지등 2300평 사용중
● 대중전, 약사전, 산신각 목조 주삼포건물
● 1층건물: 현대식 스라브건물 요사체 방4
● 2층건물: 1층 황토방3 공양간, 2층회관
● 사찰도로 포장된 진입로 2 주차장 완비
● 공익법인 부임관계로 장기전세 가능함
010-3660-2867

포교원안내
● 위치: 의정부시청
잔디광장 앞 공영주차장근처
의정부 전철역에서 10분거리
● 일요법회에는 주차비 무료
● 5층 건물중 4층 42평 인등 480등
영가 300위 108불 불사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 16년째 포교당 운영중
011-258-6432
031)873-8171~2

사찰 터 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용덕면 소재
● 대지: 600평(300평 종교부지)
● 시설: 기초공사 완공 전기,
정화조
● 특징: 사찰까지 차진입가능
12대째 임금이 나오는 명당터
● 가액: 3천2백만원
010-3189-352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수유동
● 평수: 45평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시설완비 8년 운영
010-5458-6730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
수비 4거리
● 최고 적지 지하철 1분
6층건물 중 6층
107평 옥상에 60여평의 법당
● 가액: 전세 5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1-500-1777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 일산
● 2층건물의 2층
독채 약40평, 방2개,
시설일체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30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 철학원, 보살님도 환영
016-9396-8425

포교당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정림동
대단위 아파트, 대로변위치
● 4층 건물 중3층
● 평수 : 104평
● 가액 : 전세3천만원
010-7770-019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4동 목동사거리 근처 2층
● 시설 : 30평,법당,주지실, 욕실,
공양실,각종 법회 시설 완비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1,500만원 / 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2)2648-4401
011-880-3873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찰안내
● 위치: 성북구 장위동
● 삼존불 108부처,영단 인등
방2개 거실 주방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3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1-888-0130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 김포시
● 평수: 50평. 3층중 2층
● 시설: 법당 주방 방2개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011-212-0118

사찰안내
● 위치: 성남시 모란시장 상가지역
● 평수: 약 40평 4층
(옥상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상담후결정
031)756-2032~3
011-9637-4536

토굴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 대지: 141평
재무소유 150평
합 291평
● 30평 가정집 1채,
10평 컨테이너
● 가액: 1억2천만원
011-9763-0150

토굴 안내
● 위치 : 전주시 공원지역내
● 건평 35평 임법당
● 대중방, 주지실, 주방,
세면장, 거실
● 삼존불외 탱화 불기일체
● 가액: 2300만원
010-9282-073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상가시장밀집지역
● 건평 : 60평, 시설일체 완비
● 내부시설 : 전통 황토, 쑥뜸 좌욕기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40만원(시설비 답사후 절충)
※ 환자치료하시는 스님,철학하시는 스님 최적합 요지
꼭 필요하신 분 전화요망
011-790-4809
033)631-4831

포교당안내
● 위치: 의정부시청
잔디광장 앞 공영주차장근처
의정부 전철역에서 10분거리
● 일요법회에는 주차비 무료
● 5층 건물중 4층 42평 인등 480등
영가 300위 108불 불사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 16년째 포교당 운영중
011-258-6432
031)873-8171~2

사찰 (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근교
● 거리: 서울에서 1시간
원주터미널 원주역에서
10분거리
● 종교용지 800평외 320평
● 보궁20평 법당 30평 신축
요사채 50평(심야전기보일러)
● 산신각 미륵대불 3층불보탑
삼십년이상된 사찰임
● 건강상 사유로 급안내
● 가액: 4억9천만원(절충가능)
011-361-051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면적 : 45평(1층)
● 법당 : 22평
(삼존불,단청,각단탱화)
● 특징 : 서구청대로변,
냉난방, 친견실, 방
● 가액 : 보증금1천만원
월60만원
053)535-4963
010-3153-941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관음동
● 건물 : 상가 150평
(2층 주택20평)
● 인구밀접지역으로
포교당 최적지임
● 가액 : 보증금 7천만원
월100만원
매매도 가능 4억(융자2억포함)
053)981-8889
011-507-7712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대창면
● 부지 : 3,402평
● 임법당 22평, 요사채 30평
● 가액 : 2억5천만원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서동
● 4층건물 중 4층
● 법당 70평, 옥상 사용가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에
월50만원(시설비 답사 후 결정)
054)336-5909
011-9382-4782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부산은행앞
● 평수: 40평
● 시설 일체완비
각단탱화 삼존불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010-4846-5194

사찰(급)안내
49재 등 각종 행사 해 드립니다.
(의식전문,부전스님,공양주,사찰사찰터,토지,포교당 안내)
● 위치: 인천계양. 상가2층 38평
● 법당: 18평, 요사: 2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전국 어디든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삼보전에 공양 올리겠습니다.
삼 보 불 사
011-9769-8868
02)736-4589

문화재 보호대에 웬 십자형 문양?

보호대 설치 규정없어 정체불명 문양 난립
문화재 성격 맞는 현대적 디자인 개발 시급

부여에 사는 불자 정민호씨는 최근 인근 사찰을 참배하고 경내의 탑 앞에서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그러나 사진을 인화하고 나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언뜻 보기에도 선명하게 십자가 문양이 탑의 기단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복지연대 폐사지 지킴이 연구위원 우규현씨는 답사를 다닐 때마다 문화재 보호대가 눈에 거슬린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이지만 오히려 문화재 관람이나 보존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서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문화재 보호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에 복원되는 문화재의 경우 대다수가 문화재 보호대의 문양이 전통문양도 아닌 출처불명의 십자형 문양으로 바뀌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보수 전담 업체서 임의로 설치

문화재 보호대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역할과 문화재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일종의 장신구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에서조차 아직까지 문화재 보호대 설치 규정이 없다. 그렇다보니 문화재 복원시 새로 설치되는 문화재 보호대는 관련 업체에서 제작하기 쉬운 형태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방해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은 문화재 보호대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난간을 설치하면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는 역효과가 나고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도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재에 대한 국민 인식이 성숙되지 못해 보호대가 없으면 아이들이 뛰어 놀거나 가까이 가서 만지는 등 문화재 훼손이 심각하기에 보호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폐사지같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부득이 문화재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설치 규정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게 학계의 의견이다.

문화재 보호대 설치시 문화재로부터 얼마 정도는 떨어져야 하며 높이는 어느 정도되고 그 안의 문양은 문화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상징으로 한다는 등 최소한의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설치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오히려 획일화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기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卍자 문양 거꾸로 설치하기도

고궁박물관 소재구 관장은 "문화재 보호대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굳이 설치한다면 최소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며 "사찰에 있는 성보문화재의 경우 스님이 상주하고 신앙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대를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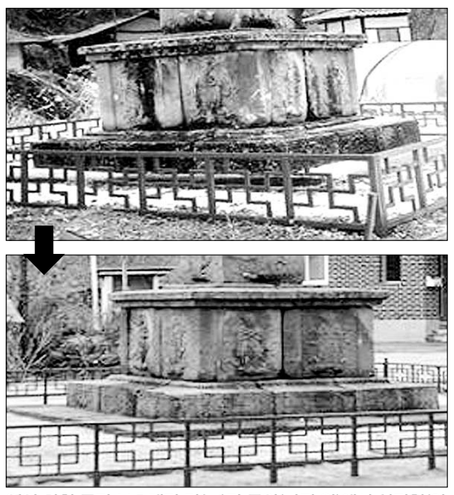
문화재 보호대 안의 문양에 대해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십자형 문양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너무 획일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십자형 문양은 문화재 보수 업체에서 전통문양인 완자살문을 문양으로 활용하다가 현재의 출처 불명의 문양으로 고착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탑을 중심으로 본다면 전남 지방의 경우 시도 문화재급 이상 지정문화재 총 51기 가운데 27기가 보호대가 없으며 만자형 8기, 십자형 10기, 기타형 6기 등이다.

그러나 만자형의 경우 문양이 비틀어지거나 거꾸로 설치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최근 복원된 탑의 경우 만자형 문양이 출처불명의 십자형 문양으로 바뀐 곳도 많다. 실제로 전남 강진의 월남사지 석탑의 보호대는 만(卍)자가 뒤집힌 형태이며 구례 화엄사 원통전 앞 사자탑과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의 경우는 복원 후 십자형으로 교체되었다.

조계종 문화부 이분희 행정관은 "성보문화재의 경우 불교를 잘 알릴 수 있는 현대적 감각의 문양 개발 등을 통해 개별 성보에 맞는 문화재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영양 화천 동탑 보호대가 만(卍)자 문양(사진 위)에서 십자형(아래)으로 바뀌었다.



경남 창녕 퇴천리 삼층석탑 보호대 문양이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다. 사진제공=우규현



"정림사지 5층석탑 자리에 목탑 있었다"

이병호 학예연구사 주장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알려진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국보 제 9호) 자리에 원래 목탑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국립부여박물관 이병호 학예연구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근 발간된 <미술자료> 72 · 73호에서 '부여 정림사지 출토 소조상의 제작기법과 봉안 장소'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사례로 볼때 정림사지 출토 소조상들이 현존하는 5층석탑 이전에 존재했던 목탑의 내부 장식인 탑내서상(塔內塑像)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학예연구사는 또 "1979년 발굴 조사 당시 소조상과 함께 출토된 '단판연화문(單瓣蓮花文) 수막새'를 통해 7세기 초중반에 정림사지에서 건물의 중건이나 중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화재 등의 이유로 목탑이 없어진 이후 지금의 오층 석탑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1>

무위와 열역학

<금강경> 끝부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유위법은 환포영과 같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여기서 유위법이란 'samskrtam'라는 산스크리트어의 번역어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모아진'이라는 의미다. 그 반대어인 '무위'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되어 노장의 사상과 접합되어서 노장의 '무위'에 의해서 수용된 느낌이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이 '무위'의 개념이 자연, 즉 스스로 되어지는 것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칭송으로 이어진다.

상선이 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이 거스름이 없어야 한다는 말로 압축되는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싫어한다. 이러한 사상과의 융합이 독특한 동양 불교의 산사 문화를 만들었지 모른다.

열에너지, 기계에너지로 100% 전환 불가능
의도적 행위가 행복 가져온다는 것도 허상

무위라는 말은 지난 300년 서양을 달구었던 물리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열역학을 떠올리게 한다. 열역학은 1800년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가장 잘 정립된 학문분야이면서, 동시에 20세기 인간 및 자연관에 영향을 끼친 학문 분야다.

열역학은, '우주 만물에서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며, 항상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당연한 원리로 들리는 이 열역학이야 말로 생물계와 우주계가 변화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법칙으로 생각된다.

약 300년 전 서양 사람들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을 시작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은 바로 열에너지와 기계에너지의 상호 변환이다. 증기기관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관인데, 기계적인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100% 변환 가능하나, 열에너지는 기계적인 에너지로 100% 변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시의 고민이었다. 열에너지를 100% 기계에너지로 바꾸어 줄 수만 있다면 기차나 농기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열역학은 시작됐다.

열에너지의 원천이 밝혀진 것은 19세기 말 볼츠만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다. 볼츠만은 열에너지를 '기체입자의 혼란스러운 움직임'으로 규정했다. 기체입자가 압력솥 벽을 두들겨 주면 압력이 높아지고, 우리 피부를 두들겨 주면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기체의 움직임이 이처럼 무질서한 것이다 보니 우리가 임의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일단 열에너지로 변환되고 나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에너지로의 100%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의도적인' 기계에너지는 열에너지로 전환되지만, '혼란스러운' 열에너지는 기계에너지로 고스란히 전환되지 못하는 것이 우주의 실상이다.

이러한 우주의 활동의 원리가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위 아닐까.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 나타나는 것만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현대인들에게 열역학의 원리는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이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이혼의 원인은 작은 견해차부터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지만, 평등한 부부관계를 긍정적 언어표현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부부간에 인격체로서의 상호존중을 통해 부부정체성을 확인하여 '이혼'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예방 하고, 또한 가족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에'이혼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원'교육을 통해 한 개인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더불어 가정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문상담원이 되어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상담원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일 시 : 2006년 4월 10일(수) ~ 6월 17일 (100시간)
◆장 소 : 역사문화기념관,연꽃 교육장 ◆인 원 : 30명(선착순)
◆수강료 : 23만원(당일25만원) 우리은행 : 098-088769-01-501/한국여성불교연합회)
◆문 의 : 02)738-5586,5568 / 팩스 02)738-7576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홈페이지 www.kwba.or.kr

1.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4월 10일	1. 성 • 가정폭력법 해설	5월 29일	3. 가족구도와 가치변화
	2. 남녀평등과 여성의 미래		4. 한국 가족의 현주소
2. 아내 학대 발생과 원인 분석			
4월 11일	5. 가정폭력 배경과 원인	5월 29일	8. 부정적 감정 다루기
	6. 가정폭력	5월 30일	9. 부부의 갈등 및 외도, 이혼가정상담
4월 14일	7. 가정폭력 상담의 전반적 이해		10. 여성의식 변화로 이뤄진 가정
3.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정 위기			
4월 15일	11. 여성인권과 여성운동	6월 2일	14. 이혼의 실태와 제반문제
	12.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정문제		15.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4월 16일	13. 왜! 이혼가정이 늘어나는가!	6월 3일	16. 이혼가정의 자녀생활과 실태
4. 건강한 가족제도 및 치교상담			
4월 17일	19. 건강한 가족제도	6월 9일	17. 정신적 수양을 위한 음악치료
5월 12일	20. 성폭력 상담의 이론과실제		18. 전화상담의 기법과 운영사례
	21. 가족문제 상담, 성폭력 상담사례	6월 10일	22. 부부대화법 및 가족치료
5. 가족문제 상담 및 역할연습			
5월 19일	23. 경전에 나타난 상담	6월 16일	26. 가정폭력에 대한 핵심적 기법
5월 26일	24. 상담자의 자질과 역할		27. 가족치료의 통합적 접근
	25. 상담사례를 통한 역할연습	6월 17일	28. 가정폭력 비디오 및 수료식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 • 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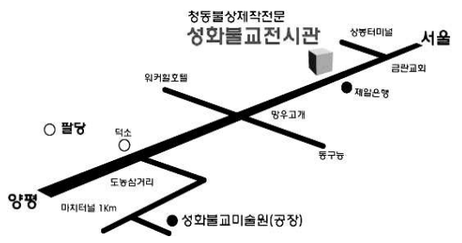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일 주 문



금산사 교구종회 개최

김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2월 17일 금산사 설법전에서 금산사 복지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심의 등을 상정하고 제2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조계사 '금강경' 강의 개설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3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개월 과정으로 〈금강경〉 강의를 개설한다. (02)732-2183



'깨달음에‥' 주제 특강

담양 정토사 회주 한탑 스님은 3월 8일 광주불교교육원에서 '달마 스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062)228-9098



공생선원 2006년 교육강좌

서울 공생선원 주지 무각 스님은 임기영 · 백도수 법사를 초청해 3월 7일 경전과 참선을 공부하는 2006년도 교육강좌를 개강한다.



삼론종 올해 주요사업 확정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혜광 스님은 2월 22일 하림각에서 주요임원 좌담법회를 열고 월악불교문화관 개관 등 2006년 주요행사를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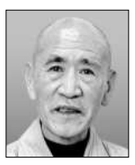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초청법회

광주 덕림사 주지 무이 스님은 3월 6일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을 초청, 제5회 명사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062)362-2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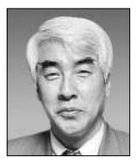
사찰체험학습팀 결성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2월 21일 매월 2차례 진행되는 토요휴업일 체험학습을 대비하기 위한 '사찰체험학습팀'을 결성했다.



3기 작법 의식반 모집

혜룡 불교 범패작법 전수원장 혜우 스님은 제3기 작법, 의식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연수과정은 1년으로 3월 8일 개강한다. (062)515-7749



'불교란 무엇인가'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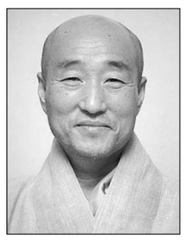
한국불교연구원 정병조 원장은 3월 2일부터 4일까지 오후 2시 연구원 법당에서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새봄맞이 특강을 한다.



불교TV 본부장에

불교TV 신임본부장에 이훈 前 MBC 프로덕션 국장이 임명됐다. 이훈 신임 본부장은 프랑스 파리 최고위영상연출학교 등을 졸업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취임식



"내 자신이 죽음 직전에서 장기 이식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수혜자이기에 이 자리가 더욱 감회 깊게 느껴집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사진)이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돼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도영,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재무부장 정만, 호법부장 도진, 문화부장 탁연 스님 외에 윤원호 이타회 회장, 보건복지부 노연홍 본부장, 서울특별시 정태근 부시장, 국제신문 김광삼 사장,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대표, 생명나눔실천본부 김흥국 홍보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일면 스님은 "앞으로 각 광역시와 도별로 지부를 조직해 생명나눔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과 연계해 모든 불자와 일반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수행공동체 구성해 지역불교 활기 모색"

울산불교신도회장 취임 황경환씨



"불교신도회를 구심점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펴고 바르게 실천하는 수행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2월 27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취임식을 가진 황경환(56 · 진양유조선 회장 · 사진) 울산불교신도회장은 지역 신도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하고 "진실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2600여년전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환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불교방송 개국
신도회 시스템 강화
참여의식 확대 등
당면과제 해결 앞장

이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불교를 공부하라'는 부친의 당부에 따라 불교에 입문한 황 회장이 그동안 초기불전연구원 상임연구위원으로, 한국불교교육원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해오며 꾸준히 지향해온 바이기도 하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선 과제로 꼽은 황 회장은 울산불교의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로 네 가지를 꼽았다.

울산불교방송 개국, 시스템을 갖춘 신도회 조직 구성, 불자들의 참여의식 고취,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펴는 전법이 그것이다.

황 회장은 "특정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분명한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실질적으로 신도회의 주인이 되는 생동하는 조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로만 하는 불교는 이제 지양돼야 한다"며 실천과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한 황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의 가치를 스스로 자각하고 그것을 더 많은 이들에게 바르게 전하기 위한 일에 아낌없이 보시하고 직접 참여하는 불자가 많아지도록 신도회를 중심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그동안 원전 역해와 출판 등에 직간접으로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현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 동국대 총동창회 상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국내 최초 대학기업 만들겠습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신임 황윤식 총장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경험을 살려 대학의 새로운 전형을 선보이겠습니다."

2월 16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새 총장으로 취임한 황윤식(54 • 사진) 박사. 황 총장은 국내 최초의 '대학기업'을 꿈꾸고 있다. 대학기업이란 산학협동체제가 고도화된 것으로 대학에서 실습할 공간 등을 기업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황 총장은 기존 상담심리학전공, 자아초월상담학전공, 요가치료학전공 외 미술 · 음악치료 등 예술치료, 대체의학 등을 포함한 '웰빙문화대학원' 승격을 계획하고 있다.

황 총장이 '웰빙'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단순한 시장논리보다 가치중심의 체제로 이동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에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선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 황 총장은 영성이나 환경을 중요시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으며 주가도 높게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예술치료 · 대체의학 포함 '웰빙문화대학원' 계획

황 총장은 지혜와 자비,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불교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설립이념도 강조했다.

"불교대학원은 소수 정예화해 세계적인 대학원으로 육성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영문 저널 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 총장은 과감한 투자와 엘리트 중심의 교육을 통해 불교학 관련 질 높은 학자들을 배출시킨다는 복안이다.

동국대 재직시절 지역특성화 및 활성화를 위해 '경주 문화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경주시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이끌어낸 황 총장. 뛰어난 경영마인드를 가진 황 총장이지만 나눌 줄 아는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

취임식 때 축하난을 사절하는 대신 쌀10㎏ 120포대 받아 50포대는 안양시 노인복지센터에 기증했고, 나머지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인근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에서 나눠줄 생각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대한불교진흥원 감사에 김규칠씨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2월 23일 제117차 이사회를 열고 김규칠(64 · 사진) 국민대 객원교수를 감사로 선출했다.

김규칠 감사는 서울대 법대와 同 신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과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수학했다.

KBS 이사, 산업기술정보원(KINITI) 원장, 불교방송 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불교와사회'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강지연 기자**

북한산터널 반대운동했던 보성 스님 입적



북한산 터널공사를 반대하며 철마선원에서 농성했던 보성 스님(사진)이 2월 7일 입적했다. 세수 48 · 법랍 25세. 스님의 49재는 3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삼원사에서 봉행된다. **이은비 기자**

선암정사 장애인시설과 등반대회



서울 종로구 정신지체장애인 자활시설 '비둘기재활센터' 원생 32명과 '종로구자원봉사 단체협의회' 소속 봉사자 32명은 2월 23일 인왕산 등반대회를 했다. 서울 인왕산 선암정사 주지 대련스님은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생활기본용품 70여개를 '비둘기재활센터'에 기증했다.

청주불교금강회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청주불교금강회(회장 민병국)는 2월 22일 청주 일산프라자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 20주년 법회를 봉행했다.

1986년 청주지역 남자불자들로 구성된 청주불교금강회는 60여명이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법당을 마련하고 매주 수요일 법회를 열고 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사바예토 최승미묘 정토원행의 거룩한 인연이셔라!
'아미타정토 청정법음' 무상보리 대승의 서원 무량수광명 서방정토 무생법인 이름이셔라!
– 무량수여래불 나무아미타불

『아미타정토 불교대학』강좌안내

정토강좌	교수진 소개	시 간
•정토경론「무량수경종요」 •장엄정토 '불화로 보는 정토세계' •정토원행「의심끊고 염불하세」 •정토신행「왕생록」·「왕생불퇴」 •정토행원 '정토행자의 길	박종린 연구원(동국역경원) 강소연 교수(홍익대 미대) 김지수 교수(전남대 법대) 스님, 박병규 변호사 전병룡 한의사(위강한의원)	매주 금요일 19:00 – 20:30 ※ 매월 게재순 강의진행 계획

제1기 6개월과정 – 원서접수 : 2. 27(월) – 3. 8(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사진1매, 입학금(10만)
– 강좌개시 : 불기2550(' 06). 3. 10(금) 19:00
※원서접수순 수강생(60명) 마감

※ 아미타사 요일별 저녁 주요신행 소개 (24시간 개방 정토행자 정토염불수행도량)
월 · 토 중국어회화 수 고성염불 목 불화그리기 강습 금 아미타정토불교대학 일 일요법회

오시는 길 – 전철 : 1, 3, 5호선 종로 3가역 ⑦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버스 : (창덕궁 하차) 109,151,162,171,172,272,1012,7025 비원길 창덕궁(비원)방향 우측노변 '대각사' 표지판 지나서 비원슈퍼 옆 **아미타사**(☎ 02)745-3351, 3352)

나무아미타불 아미타사
南無阿彌陀佛 阿彌陀寺
"Namo Amita Buddha" Amita Monastery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69번지 (우)110-360 ☎ 02)745-3351, 3352 / 본사 : 강원도 망경산사 033)374-8007, 9007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3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3개월과정)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봄반)
2.교육장소	동산 법당 (동산불교회관)
3.개강일시	2006년3월 8일(수요일)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불교의특징,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7.입 학 금	90,000원(3개월)
8.지원자격	제한없음

3년과정
불교한문학과 신입생 모집

1.개설취지
한문은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고전과 한문 불교경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한문의 적용과 한문의 독해력 배양이 필수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되는 중국어의 기본인 한문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2. 교과목
⊙불교한문학과(3년과정) ※정규반.통신반

교과목	· 한학연구입문 · 한자학원론 · 어순으로 푸는 한문해석 · 설문해자 · 중국고전① · 중국고전② · 한국고전① · 불교경전① · 불교경전② · 대장경과 역경사
지 도	· 심경호교수(고려대) · 황안웅교수(원광대) · 김형중(동대부고 교법사) · 심재동교수(동국대) · 무진장스님

3. 개강일시
2006년 3월 9일(목) 오후7시
※특전:3년과정 수료후 연합포교사 응시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불자 세상보기

권 경 희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그도 사람일진대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다. 이웃에 살고 있는 단골가게 아저씨였다. 친절하기 그지없어 '말만 잘하면 신발도 공짜로 주겠다'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열한 살짜리 어린 소녀를 성추행했다. 그런 다음 살해해서 불에 태웠다.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전해 들으면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싶었다.

어찌 이런 일이 또…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분노에 지쳐 아예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무력감까지 들었다.

10년 쯤 전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자원봉사할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절규. 피해자는 과년한 처녀들뿐만이 아니었다. 열 살도 안 된 여자아이들,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들까지 성폭력을 당하고 있었다.

당한 것만도 서러운데 이를 문제시하고 가해자 처벌을 원하면 사회가 피해자를 냉대했다. 별것 아닌 일 갖고 떠들어댄다며 핀잔을 주고, 꾸며댄 일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당한 사람 잘못 아니냐고 덮어씌워 이중의 고통을 주기도 했다.

귀가 의심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믿기지 않는 일이 바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도 상담 전화통이 쉴 사이가 없을 정도로.

성폭력 상담 자원봉사를 그만둔 뒤 한동안 잊고 살았었다.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애써 외면하고 살았다.

그런데 다시 어린 소녀의 죽음을 전해 들으면서 그때의 혼란스러움, 분노, 막막함이 되살아났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한다. 잡혀갈 때 주범인 그 아버지가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은 잘 모른다, 내가 저지른 짓이다.

아, 그도 사람이었다. 그도 자식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더욱 혼란스럽고 더욱 화가 났다. 사람이면서, 사람이면서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사실, 그도 피해자일 수 있다. 심리적 문제가 깊어 어린 소녀에 대한 성적 욕망을 주체 못하는 병리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푸는 도구로만 보는 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 상대방인 어린 소녀가 자신을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하거나, 상대방을 너무도 위하고 아끼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무 반항을 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인지적 왜곡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심리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복잡한 심리 과정과 기제를 배우고 나니 가해자를 미워만 할 수도 없다. 그의 생리적, 심리적 인생에서는 또한 그럴 만한 내력과 사유가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였던 50대 남성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젊고 건강한 청년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이번 사건을 가슴 아프게 겪으면서 한편으로 조금이라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일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전 같으면 남의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했던 일을 이제 우리 일, 바로 내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함께 풀어갈 방도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선악(善惡)의 행위를 하고 공동으로 고락(苦樂)의 과보를 받는다는 불교의 공업(共業) 개념을 절절히 깨닫고 실천했으면 한다.

이게 바로 열한 살짜리 소녀가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지금 국회에는 사형제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고, 법무부에서도 사형제도 존폐문제를 심층연구하고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사회적 양심 세력이 주장해 온 사형제 폐지가 올해 안에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사형제는 오래전부터 법이란 이름의 또 다른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범죄는 사회적 부조리가 만드는 것이지 저지른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가는 범죄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 주목해야하며, 범죄인의 처벌만이 능사라 여겨서는 안 된다. 사형제는 범죄의 원인이 되는 빈곤이나 정신장애 등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복잡한 문제와 책임을 단순하게 처리해 버리려는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다.

'인간교화는 형벌이 아닌 자비와 사랑'이라는 종교적 측면에서 타 종교와 함께 사형제 폐지 주장에 참여해 왔던 불교는 교리적으로도 사형이 용납되지 않는다.

사형제 폐지 빠를수록 좋다

부처님은 100명의 사람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 99명의 사람을 죽인 앙굴마라를 조복시켜 선지식을 만든 분이다. 죄에 대한 인식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물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알려 참회케 하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교화법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지금 사형제폐지는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다.

유럽정부간 협력기구인 유럽의회는 2003년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형제 전면금지의정서를 발표, 평시는 물론 전시나 전쟁위협상황에서도 사형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물론 유럽연합(EU)도 사형제 철폐를 가입 조건으로 삼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제 폐지국이 시행국보다 훨씬 많다.

아직 국민적 정서가 극악범에 대한 일벌백계식의 사형제 존치론에 기울어져 있다고는 하나, 지금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범죄인에 대한 진정한 교화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할 때다. 사형제 폐지는 빠를수록 좋다.

■ 김징자(칼럼니스트)

이렇게 들었다 선물

"중생을 위한 길이라면 무엇인들 아까우리. 그래도 모자라면 이 몸도 바치리라." 〈보살본원경〉

최근 씁쓸한 통계자료가 나왔다.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이른바 '셀프 기프팅(Self Gifting)'이 확산되고 있다는 설문결과다. 한 인터넷 쇼핑몰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넘게 '셀프 기프팅의 경험이 있다'고 답해 이 같은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에게 보내는 선물비용도 후했다. '10만 원 이상 선물하겠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이란 응답도 무려 11%나 됐다. 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구입하는 선물의 평균 비용은 1~3만 원대라는 대답이 43%로 제일 높았고, 비용은 3~5만 원대에 불과했다. 자신에게는 푸짐하게 쓰되, 타인을 위한 씀씀이는 상당히 인색하다는 셈이다.

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까? 원인은 '나눔 문화'의 부재에 있다. 셀프기프팅의 목적에 대해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여유 돈이 생겼기 때문', '기분 전환이나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란 대답이 응답자 가운데 절대적인 것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물론 '내 돈 내 식으로 쓴다'고 항변한다면, 할 말은 없다. 벌어 쓰든, 공돈이 생기든 쓰는 그 사람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풂'의 미덕을 생각한다면, 아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여다보자. "베풂(보시)이 보살의 정토다. 보살이 성불할 때 온갖 것을 베푼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작은 나'를 벗고, '큰 우리'를 생각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에게 주문해볼 일이다.

■ 김철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이름모를 행자의 친절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사찰의 분위기는 한가한고 조용하며 친절하다는 것이다. 마땅히 정하고 다니는 사찰은 없지만 주말마다 떠나는 가족 여행코스에는 반드시 산사를 들른다.

2월 중순에 찾아간 오대산 월정사. 그곳에서 만난 행자님에게서 받은 친절함은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다.

안타깝게도 고맙다는 인사조차 못하고 시간에 쫓겨 월정사를 빠져나왔지만 이렇게 글이라도 남겨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우리 가족이 오대산을 찾은 날은 날씨는 맑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땅이 얼어 조심스러웠다. 추위와 배고픔이 밀려오는 때라 눈에 띄는 행자님에게 말을 붙였다.

마침 이날은 수도권사찰 두 군데서 1000명이 넘는 신도가 찾아와 사중이 번잡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싫은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맛있게 드시라"며 친절로 우리를 대중공양간으로 인도했다. 더구나 해맑은 미소로 배웅까지 해줬다.

산채나물과 미역국이 일품이었다. 늦게나마 공양간에서 고생하는 보살님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아이들 역시 오래기억에 남을 것 같다. 법명도 알 수 없는 행자님들이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부처님의 큰 제자가 되기를 기원하고 싶다. 보리심(붓다뉴스)

불교문화 체험기회 늘려야

바쁜 생활 중에도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틈만나면 구경 다닐 정도로 문화생활을 중시하는 전업주부다.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어 주로 신문의 문화면을 통해 정보도 얻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있다.

지난주 문화면에 나온 서각가 혜안 스님의 인터뷰기사를 유심히 읽었던 터라 시간을 내 전시회를 다녀왔다.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을 둘러보며 어린이 판화교실과 같은 교육과정이 진행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팔만대장경을 판각하던 수행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팔만대장경을 보유한 나라에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 이런 전시회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다.

전시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즐기는 감상의 차원을 넘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듯 싶다.

문화적 정체성을 날로 잃어가고 있는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해 '직접 그려보는 단청교실'이나 같은 불교문화와 전통문화강좌가 다양하게 펼쳐지기를 바란다. 김가희(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계올림픽 빛낸 불자선수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승전보가 속속 날아들었다. 정말 신명나는 한 주였다.

더욱이 불자로서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쇼트트랙의 안현수, 변천사, 이호석 등이 불자라는 사실이다.

이억만리 이태리 토리노에선 선수들이 몸과 마음을 집중해 얼음 트랙을 돌았고, 가족들은 염주를 굴리며 아들딸들을 일심(一心)으로 응원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 통해 위대한 승리를 일궈낸 것이다. 더욱이 불자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대목은 이호석 선수의 아름다운 양보였다.

1500m 결승전에서 이호석 선수는 마지막 한바퀴를 남기고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아웃코스에서 치고 들어오는 안현수 선수에게 순순히 선두를 내준 것이다.

이호석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다른나라 선수였다면 결코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다"란 말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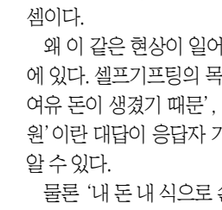
부처님의 큰 가르침인 이타행을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침착하고 여유있게 펼친 장한 이호석 선수와 불자선수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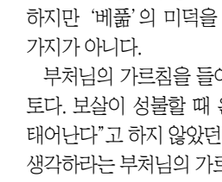
장한숙(서울 강남구 개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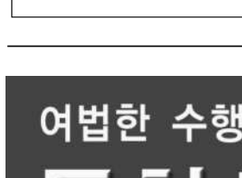
'현대'만평 심 민 섭



여법한 수행강당 | 공부하는 청정강원
동화사 전통강원
불기 2550년 신입/편입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논강식 강론


태극권 수련


저녁 좌선 정진

1.모집대상 : 치문반 00명 사집반 00명
사교반 00명 대교반 00명
2.모집기간 : 신입방부 3월 1일 ~ 3월 25일(치문반)
편입방부 3월 1일 ~ 3월 31일
(입방 1차: 3월 20일, 2차: 3월 25/31일)
3.구비서류 : 1.입방원서1,2(방문 작성)
2.은사스님 추천서
3.건강진단서, 주민등록초본 각1부
4.승려증 (수계증명서/행자교육필증)
: 사본 각 1부
5.사진 (3×4) 3장 /법명도장
(편입자는 수료증 또는 전학증 지참)
4.준 비 물 : 가사(만의), 장삼, 발우
5.전 형 : 서류심사 및 면접
6.문 의 처 : 동화사 강원
053)985-1984
053)983-2500

현대해상책임보험 3억가입 복용100일후 발병시 300% 배상
중 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3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는 분들께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두통),(마비),(저림),(심한 현기증),(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판매행위를 않습니다.
※ 1box에 3회분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一人 3회복용)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금단화 (100일간 발효시킨 콩)
바르는 콜라겐 (소비자가 ₩ 65,000)
※ 5주년 행사기념으로 금단화 또는
폴시노 구입 하시는 분들에게 바르는 콜라겐을 드립니다.
■ 취급점 모집 및 상담문의 : 02)3437-8282

장례 지도자 시험준비를 위한
장례 문화 학과 학인 모집
한국 전통문화 선양을 위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본원은 서기 2005년 서울특별시 장묘문화센터 주최 제1회 장사문화제에 참석하는 등 그동안 한국 장례 문화 발전을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번 서기 2006년 7월경 실시 예정인 제4회 장례, 지도사 시험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1. 개 강 일 : 2006년 3월 25일
2. 강의일시 : 매우 토요일 오후 3시~6시 (3시간 강의)
3. 교 과 목

	1학기	2학기
1학년	장례지도사자격시험준비반 장례학 개론 상장례학 공중보건학 장사관련법규 I 실습	장사관련법규 II 의학용어 제의례학 해부학 병원미생물학 실습
2학년	장례기획 사체화학 종교별 장례의식 Embalming 시신 Makc-up 실습	호스피스 실버매니지먼트 장제용품 및 유통 집단장 연구 장례식장 경영론 실습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3매
5. 문 의 : 02)741-0495~6
해동 장례문화 연구소 해동 불교 대학원

한국불교, 平 네트워크 구축 '시동'

실천불교승가회, 캄보디아에 교육 · 복지시설 BWC 준공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캄보디아 사업팀에 BWC를 준공함에 따라 체계적인 해외 NGO활동을 기대할수 있게 됐다. 사진은 2월18일 준공한 BWC 전경.

복지 · 구호활동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아시아네트워크의 서막이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올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 · 효림)는 2월 18일 캄보디아 제2도시 시엠립 인근에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과 초등학교가 들어선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 준공식을 열었다.

2002년 12월 캄보디아 지원사업을 시작한지 3년 3개월만의 성과다. 이로써 한국불교는 일회성에 머물렀던 그간의 구호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3월 5일 첫 삽을 뜨는 조계종 스리랑카복지타운과 연결되는 한국불교 아시아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BWC 준공은 의미가 깊다.

준공식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성관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 내소사 주지 진원 스님 등 한국에서 15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캄보디아 시엠립을 찾았다. 현지에 파견돼 불사를 지휘하는 부경 스님이 검게 탄 얼굴로 대표단을 맞았다.

대표단이 BWC를 찾던 날,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건기였지만 장대같은 비가 쏟아졌다. 캄보디아 현지인들은 좋은 징조라고 입을 모았지만 대표단은 준공식 행사를 잘 치를수 있을지 걱정했다. 하지만 준공식이 시작되기 직전 비는 그쳤다. 하늘은 캄보디아인들과 대표단을 감동시켰다.

캄보디아 정부가 30년 동안 무상제공한 1만 2천여평의 부지에 지어진 BWC에는 총12동의 건물이 들어섰다. 교사(校舍)와 도서관, 아동숙소, 워크숍룸, 스텝룸, 식당, 게스트하우스가 운동장을 중심으로 빙 둘러 지어졌다. 인근에서 이보다 좋은 건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성관 스님은 "보육원과 교육시설을 캄보디아 전역에 확대 건립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양국의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축사로 성관 스님을 거들었다. BWC사업이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6월께 개원되는 보육원에는 캄보디아 정부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엄선한 1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한다. 한명이라도 숟가락을 줄여야할 처지인 캄보디아인들은 보육원에 아이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9월이면 원내에 6학급의 초등학교가 문을 여니 BWC는 충분한 매력을 지녔다. 게다가 향후 유치원과 중학교, 직업훈련원이 들어서면 캄보디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여건을 갖춘 종합복지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 시엠립=박봉영 기자

이/모/저/모

지관스님, 캄보디아 국왕 면담

○…제32대 총무원장 취임 이후 첫 해외 출장에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준공식은 하루 전인 2월 17일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과 템퐁 종정을 만났다(사진).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캄보디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계종단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기부금 1만달러 더 내겠다" 박수

○…18일 준공식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실천불교전국승가회에 종단을 대표해 2만달러를 쾌척했다. 구자선(71 · 덕암) 조계사 신도회 고문도 3만달러를 기증하겠다고 약정서를 전달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그러면 나도 개인적으로 1만달러를 더 기부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지구촌공생회 초등학교 개원

○…BWC 준공에 이어 2월 20일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가 캄보디아 남부 캄폿주 폼크나이마을에 공생초등학교를 개원했다. 공생초등학교는 1만달러를 들여 3동의 교사(校舍)로 지어졌다. 공생초등학교에서는 150명의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interview BWC 건립 이끈 성관 스님



"30년 후에는 라오스, 미얀마 등 인근 동남아국가에도 한국불교의 자비원력이 전해지리라 생각합니다. BWC를 이를 위한 모델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2월 18일 열린 보육 · 교육시설 BWC 준공식에서 포부를 밝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성관 스님(사진). 킬링필드의 아픔을 간직한 캄보디아에 80만달러(약8억원)를 투자해 체계적인 해외NGO활동의 첫 길을 열었다.

이날 준공이 있기까지 성관 스님이 쏟은 땀과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 열다섯 차례 이상 캄보디아와 한국을 오가면서도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고, 캄보디아 부총리, 외교부, 교육부, 사회복지부 장관 등 정부대표자들을 설득하고 약속을 받아내야 했다. BWC공동위원회는 끊임없는 설득의 결과물이다.

"건립을 시작한 뒤에도 농업을 기반으로 한 캄보디아와 지식정보사회에 접어든 한국간 문화의 차이로 인해 모험에 가까웠지만, 결국 해냈어요. 이젠 캄보디아 제일의 시설로 키우는 일이 남았습니다."

성관 스님이 처음 캄보디아를 찾은 것은 1996년이었다. 앙코르와트를 대한 순간 숨이 멎는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이렇게 웅장하고 훌륭한 문화를 같은 동양인인 이들이 일궈냈다는 자긍심이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원달러(One Dollar), 원달러"를 외치는 아이들과 빼빼마른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원력을 세운 것이 BWC의 출발이었다.

"해방 이후 한국은 외국의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전통문화와 사상을 잃어버린 문화제국주의의 피해자였어요. 캄보디아인들에게 우리가 당한 아픔을 똑같이 안겨선 안됩니다. 크메르문명을 일구었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성관 스님은 BWC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뒀다. 보육원과 초등학교 외에도 유치원과 중학교, 직업훈련원을 갖춘 종합복지타운으로 키우고 나아가 캄보디아 전역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유치원 · 직원훈련원 확충 계획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달라이 라마의 보이지 않는 힘

세계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가장 자주 만나는 인물이 달라이 라마이고, 전체 뉴스 중 그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최근에 전해진 달라이 라마 관련 뉴스 세 가지는 성격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로이터 통신의 2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리는 달라이 라마 주관의 칼라챠크라(Kalachakra) 법회에 "티베트에서 온 순례자 만여 명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도 순수 중국인 200여명이 동참해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이번 법회가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들과 중국인들의 다람살라 방문을 공식으로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의 정확한 이유와 배경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3년 이래 티베트인들에 대한 인도 여행 제한이 점차 완화되어 온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관변 연구기관인 '중국티베트 연구센터(中國西藏研究中心)' 소속의 한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그런 자리에 동참하라고 권하지도 않지만 참석을 금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의 중국 정부가 아니라 인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에게 충성을 바치는 대다수 티베트인들에게는 여전히 여권 발급이 되지 않는다.

어쨌든, 중국인 순례자를 포함하여 이번 칼라챠크라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11일 동안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전 과정에 진지하게 참여하며 달라이 라마의 축복을 받았다.

1억 명이 넘는 불교도, 그 중에서 760만 명 정도가 티베트 불교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에서 정부가 취한 인도 여행 완화 조치는, 중국 내 무슬림들의 메카 성지 순례 허용과 더불어 그리 간단하지 않은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다.

위 기사를 송고한 린드세이 벡 기자의 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 대표단이 중국 정부와 비밀회담을 하러 베이징에 도착했다. 물론, 티베트 망명정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논평을 거부하고 있지만 비밀 회담이 열리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한편 2월 20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세계적인 분쟁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믿음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한 이스라엘 정부의 정치적 목적은 "완전 독립이 아니라 티베트의 자치를 요구한다"는 달라이 라마의 정책이 그들의

갈등과 분쟁 쉼없이 이어지는 지구촌 압제자마저 감동케 한 '자비와 관용'

대 팔레스타인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였을 것이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도 달라이 라마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였다.

"어떻게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와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라는 이스라엘 기자의 질문을 받은 달라이 라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겠지요. 하지만 폭력적인 수단을 쓴다면 그보다 훨씬 더 참혹한 결과가 분명하지요."라고 대답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하고, 세계 초강대국 문턱에 들어서는 중국 정부가 비밀 회담을 열게 하며 압제자 중국인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독선적이라는 평을 듣는 유대인들을 감복시키는 달라이 라마의 힘은 바로 '자비'와 '관용'이다. 이는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가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 자유기고가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3월 1일 수요일 (주간) 제 567 호





댓살 엮듯 순리대로 …

입춘과 우수가 지나 봄기운 완연한 날. 담양 봉산마을에서 만난 박성춘(朴成春 · 69) 씨가 '대나무 발(竹簾)'을 하나 펼쳐 보이며 "거북이가 쓴 글씨가 보이냐"고 묻는다.

가느다란 댓살을 촘촘히 엮은 대발에는 거북이 등처럼 6각형을 한 문양(龜甲紋) 수만개가 모여 '萬壽無疆(만수무강)'이란 글씨를 형성하고 있었다.

1984년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입상한 작품이다. 이를 계기로 그는 지난 1990년 전라남도 지방 무형문화재 23호 죽렴장(竹簾匠)으로 지정됐다.

세계유일의 죽렴장이 만든 최고의 수작이기에 세계명품이다. 그러나 이 대발에는 보이지 않는 그만의 우직함이 담겨있다.

공예대전 때 심사관들이 대발을 뒤집어놓고 심사를 했다. 그래서 대발에 새겨진 글씨를 단순한 문양으로만 본 것이다. 그 후 그의 작품은 심사장에서 만날 수 없게 됐다.

'대나무 발'로 불리는 죽렴은 가늘게 쪼갠 대나무 살을 명주실로 엮은 가리개다. 더위를 피해 문을 열고 겉옷을 벗을 때 치던 것이 대발이다. 나이어린 왕을 대신해 국정을 처리하던 수렴청정도 대발을 사이에 두고 했다.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는 다용도 차단막이다.

"이것이 모양은 간단해 보여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대살이 끊어지지 않고 가늘고 길게 뽑을려면 10년은 해야 되거든."

저쪽이 '보이는 듯 보이지 않도록' 하는 '핵심기술'은 대살을 얼마나 가늘고 모나지 않게 뽑느냐에 달려있다. 그가 뽑는 대살의 크기는 0.7mm이다. 일본의 어느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이 0.9mm라고 하니 그의 대발이 일본에 가면 문화재가 되어 영구 보존될 것이다.

대발에 이용되는 대나무는 왕죽과 분죽이다. 그는 부드럽고 수명이 긴 분죽을 쓴다. 2-3년생 대나무를 겨울에 채취해서 두께 1mm, 길이 140cm 크기로 쪼갬질을 한다. 다시 구멍 뚫린 철판에 대살을 넣어 뽑는 조름작업을 한다. 이 작업이 만만치 않다. 조금만 속도가 빠르거나 늦으면 모양이 균일하게 빠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0.7mm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너 번 조름질을 해야 한다.

> "간단해 보여도 굉장히 어려워
> 잘 뽑으려면 10년은 돼야해
> 스님들 수행과 별반 다름없지
> 화두 대신 나는 머리를 비워
> 욕심 생기면 끊어지고 말거든
> 세상살이처럼 순리대로 해야해"



"이 일은 스님들 수행하는 것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단지 스님들은 화두를 챙기는데 나는 머리를 비우지. 스님은 화두 잡고 '행주좌와 어묵동정' 줄창 늘어져야 하지만 이것은 머릿속에 뭔가 나타나면 여지없이 대살이 끊어지고 말거든."

그렇다고 그는 손재주가 남 다른 것도, 일을 잘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쉬지 않고 할 뿐이다. 남이 나뭇짐을 열 짐 하면 그는 하루에 세 짐 했다. 3일쯤이면 남들과 같이 열 짐이 되어 결국 나뭇짐은 같아진다. 애들에게도 비가 온다고 뛰지 말라고 가르친다. 옷에 흙탕물만 튈 뿐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잣대로 보면 그의 생활은 늘상 손해보는 삶이다. 그래서 스스로 '바보'라고 한다.

사실, 그는 1960년대 초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수재다. 당시 대나무골 담양에서 대학에 다니는 이는 손으로 꼽았다.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생활도 했다. 고시공부를 위해 백양사 서영암에서 살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회생활은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날,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 죽렴작업을 하다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스트레스에 짓눌린 머리도 맑아지고, 세상에 이보다 편한 것이 없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일이니 죽렴작업은 이미 내면 깊숙이 천직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조금질이 끝난 대살 1800개를 103개의 고들개 명주실로 엮어야 대발이 하나 완성된다. 대살을 엮을 때도 줄을 똑같은 힘으로 조여야 한다. 오고가는 줄의 힘이 다르면 매끈하게 묶이지 않는다.

대나무는 특성상 동쪽과 서쪽마디의 길이가 0.3mm 차이가 난다. 이 차이를 제대로 살려 마디를 이어가야 한다. 그랬을 때 마디가 왔다갔다하며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 그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 제일의 기법이다.

그러기에 어느 때보다도 머리를 비워야할 때가 엮음질이다. 부인과 둘이서 꼬박 2주일은 엮어야 작품하나가 나온다. 이때는 서로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이심전심으로 불법이 전해지듯,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가 짝을 이뤄 손을 움직인다. 치솟는 생각을 억지로 억누르겠다는 생각마저도 없다. 그대로가 '무념무상'이다.

작년 여름이었다. 엮음질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 글씨에 물을 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다 되어간다'는 마음이 일었다. 글씨에 사용하는 매직에 기름을 많이 넣었다.

잠깐 쉬었다가 했어야 했는데 '설마'하며 일을 서둘렀다. 엮음질을 끝내고 보니 기름이 흘러 색이 번지고 말았다.

일년 전에 다듬어놓은 대살, 두 사람이 2주간 혼신을 다한 엮음질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다. 50년이 넘도록 했건만 여전히 욕심이 문제였던 것이다.

"대살을 엮는 것은 인연을 엮는 것과 같아. 억지로 당기거나 밀면 틀어질 뿐이야. 세상살이도 인연의 연속이잖아. 인연따라 순리대로 살아야해. 괜한 욕심부리지 않으며 살다 가야지."

글=이준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National Literary and Art Festival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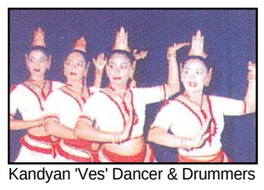
스리랑카(정부지원) 국립 전통무용단 초청공연

귀의 삼보하옵고,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1주년을 맞이하여 스리랑카(정부지원) 국립 전통무용단을 초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전통적인 불교무용을 통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연을 주최하고 싶은 사암(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행사의 일환으로 공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산사에서 모든 불자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 행사

- 일시 : 2006년 3월 25일 - 5월 31일 (65일간) ● 초청 : 국제불교교류협회, 불교상조(국민상조)
- 공연시간
  A time : 30분 / B time : 1시간 / C time : 1시간 30분 (총인원 - 남,여 무용단 15명)
- 후원 : 스리랑카 주한 대사관 / 스리랑카 문화관광청 / 동국대학교 총동림회 포교분과 위원회
- 공연상담 : 011)581-8851 / 011)1714-8851 www.kookminsangjo.co.kr


Tradilional 'Vannam' Dancers


Kandyan 'Ves' Dancer & Drummers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과 국제불교 교류협의 초청하는 국립무용단의 대표적인 춤
캔디안 댄스 –
캔디안 댄스는 스리랑카 캔디왕국(1597년-1815년)의 통치자의 후원 아래에서 번여을 이룬 고전적인 춤이다. 스리랑카의 독특한 세가지 전통춤 중 하나이며 매우 정교한 의상과 드럼, 작은 심벌로 연주하는 고도로 발달된 리듬으로 관중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57> 네가 관음을 알어?

중국 보타낙가산의 최초 관음성지는 '불긍거(不肯去)관음원'이다. 지금은 이 지역전체가 사찰로 가득한 절골을 이루고 있다. 〈불조통기(佛祖統紀)〉에 의하면 일본승려 혜악이 오대산에서 관음상을 가지고 귀국하려 하였으나 암초 및 풍랑을 만나 출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이 절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조통기〉보다도 140년 이전인 1124년 저술인 서긍(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전체스토리는 비슷하나 주인공은 신라상인으로 되어있다. 다만 앞바다에서 뱃길을 막았다는 암초이름인 신라초(新羅礁)는 두 책 모두 같다. 불긍거는 '가기싫다'는 말이다. 고려 진각혜심의〈선문염송〉1106칙 '장경무찰(長慶無刹)'이라는 공안 속에 "관음이 고려에는 가지않으려고 한다(不肯去高麗)"는 말이 나온다.

어쨌거나 관음이 일본이건 해동 땅이건 모두 가기 싫다고 했다는 중국적 발상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



장경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다.

"고려의 승려가 관음상(像)을 조성하여 명주(明州)에서 배에 실으려고 했습니다. 여럿이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도 꿈쩍을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개원사(開元寺)에 모시고서 헌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관음이) 몸을 나타내지 않는 국토가 없거늘 어째서 고려에는 가시지 않으려고 하는지요?"

그렇거나 말거나 한국 낙산사 홍련암이 중국의 불긍거관음원과 분위기가 너무 닮아 놀랐다.

관음성지는 바닷가가 주 무대지만 바다에 버금가는 호수도 무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호남이라는 말은 동정호 남쪽지방으로 당시 선종의 주 활동무대였다. 당연히 관음과 동정호가 함께 묶이게 된다.

운문선사가 새로 방부를 들인 납자에게 물었다.

"관음이 왜 동정호(洞庭湖) 속으로 들어갔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멍청한 놈, 꺼져버려!) 큰방으로 가서 정진이나 해!"

그리고는 자문자답한다. 선어록에서는 이를 대어(代語)라고 한다.

"(아이구, 속 터져) 내가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선사스님께서 관음을 물으신다면 저는 미륵으로 대꾸하겠습니다."

마조선사가 84명의 선지식을 배출한 까닭에 세상사람들은 그를 관음보살의 응화라고 불렀다. 그 곳에서 20년동안 원주를 한 승려가 있었는데 절 살림을 하면서 문서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관리가 감사를 하는 바람에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다. 당시 절들은 거의 반쯤은 관공서 규칙에 준해 운영된 까닭이다. 감옥에서 원주는 이렇게 생각했다.

마조선사 모시던 원주, 회계문제로 옥살이
스승 도움으로 20년간 금전 거래내역 기억

"우리 마조 스님은 성인인지 범부인지 모르겠다. 20년동안 시봉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고통스런 과보를 받게 되다니."

마조선사는 그런 원망을 알게 됐고, 이어 시자에게 향을 사르게 한 다음 단정하게 선정에 들었다. 그러자 원주는 옥중에서 홀연히 마음이 열려 20년동안 사용한 돈과 물건을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입으로 말하는 것을 서기에게 받아 적게하니 계산이 틀림없었다. 역시 선정력과 함께 관음화신의 가피력은 가이 없다.

이제 마무리 짓자. '관음의 불긍거고려'에 대하여 장경선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비록 몸(법신)을 나타내는 것은 두루하지만, 모습만 보는 이는 치우침이 있느니라."

뒷날 법안선사는 이에 대해 따로 자기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걸 별어(別語)라고 한다.

"너희들이 관음을 알어(識得觀音未)?"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무려진 감각 되살리니 '가뿐'

집중수행에는 에누리가 없었다. '좌선과 행선'이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홀·짝수 시간을 번갈아 가며 60분씩 빈틈없이 돌아갔다. 휴식시간이란 말도 차담시간도 아예 일정표에 없었다. 말 그대로 '한데 몰아치는' 집중수행이었다.

미얀마 원어로 하는 새벽예불이 끝나자, 수행자 7명이 가부좌를 했다. 좌선시간. 침묵이 법당 안을 꽉 채웠다. 어떻게 1시간을 앉아 있어야 할까? 일단 '티끌도 없는 순간적인 알아차림이 위빠사나 수행의 핵심'이란 선원장 혜조 스님의 말만 믿고 똬리를 틀었다.

10분쯤 있었을까? 알아차림은 엉뚱한 데에서 툭 올라왔다. '배고픔'이었다. 전날 11시 점심 공양이후부터 지켜온 오후불식(午後不食)으로, 씹는 음식물을 입에 대지도 못했다. 배고픔이 느껴지자 배는 더 요동 쳤다. '꼬르륵! 꼬르륵!' 민망한 뱃소리가 연신 흘러나왔다. 오직 '꼬르륵' 소리에 '배고픔'이란 느낌이 일어남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사라짐은 자각하지 못했다.

하루 18시간 좌선·행선 이어져
찰나 찰나 알아차림에 몰입

그렇게 '배고픔'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좇을 즈음, 배고픔은 배고픔 그대로 흘러갔다. 있는 그대로 배고픔을 알아차리니, 배고프되 배고프지 않았다. 잠깐의 졸음도 알아차림의 단서가 됐다. 졸다 깨니 다리의 통증이 순식간에 다가왔다. 눈 귀 코 등 육근(六根)의 문을 닫고 졸았더니, '알아차림'이 저만치 도망가 있었다. 다시 알아차림을 해야겠다는 것도 없이 깨고 나니 저린 다리가 알아차림이었다. 심지어 두 다리를 고쳐 앉는 사이에 들리는 바짓가랑이 스치는 소리조차도 알아차림 그대로였다.

오후 2시가 되자, 혜조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어김없이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러분들, 지금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알아차림은 마음챙김이자 주시입니다. 생동하는 '날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대상을 늘 처음으로 경험하세요."

스님은 지금 이 순간, 무상(無常)하게 흘러가는 찰나를 알아차리라고 법문했다. 육근을 철두철미하게 단속할 문지기로 '알아차림'을 중시했다. 일어남과 사라짐을 명확하게 자각하는 데에서 위빠사나 수행이 시작된다는 의미였다.

'육근의 문'을 잘 단속하라는 스님의 말처럼, 감각기관을 세밀히 살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의 좌선은 곧장 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뻐근함을 호소하다 법당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밤벌레들이 미친 듯이 법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깨어 있는' 마음을 잘 챙기지 못하고, 통증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며 알아차림을 회피하려 했던 그 마음자리가 단번에 보였다.

행선시간도 알아차림의 연속이었다. 양말부터 벗었다. 발바닥과 땅과 부딪치는 감각을 온전히 알아차릴 욕심에서였다. 팔짱을 키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순간의 감각을 챙겨보니 천 리 만 리 길 행군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배고픔 그대로 흘러가니
배고프되 배고프지 않아"

밤 9시, 마지막 좌선을 끝내고 묵언을 깼다. 수행자들의 체험담을 듣기 위해서였다.

199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가불자 위빠사나 수행동아리 '선우회' 창립 멤버였던 이영희 교수(63·경성대 무용학과)는 "어느 날 갑자기 일상에서 무심코 접한 물건들이 매일 봤던 그 모습이 아님을 위빠사나 수행에서 경험하게 됐다"며 "감각기관에서 인식하는 대상들이 보다 더 섬세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짐을 느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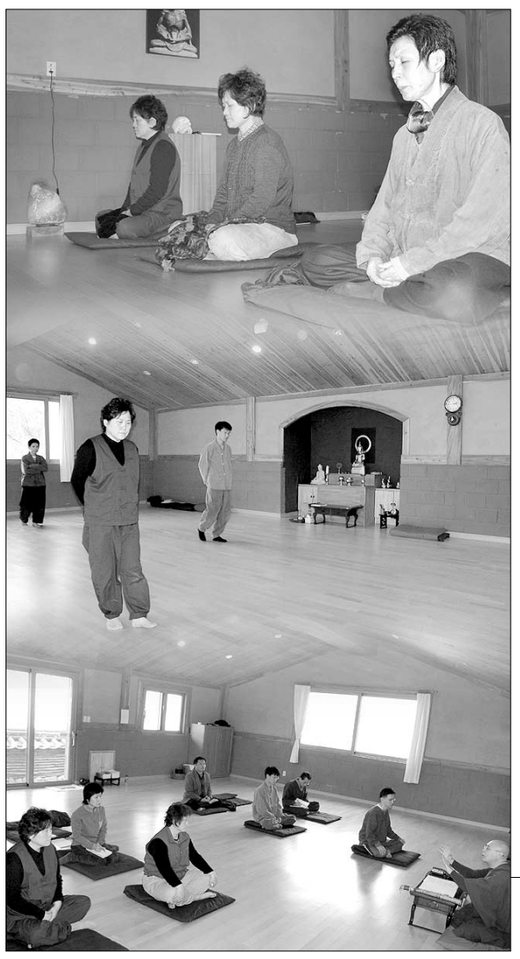
이틀간의 위빠사나 집중수행 체험. 일상에서 자각하지 않고 또 못했던 감각을 '깨어있는 참여'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늘 처음처럼. 이것이 위빠사나가 '깨어있는'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였다. 이렇게 될 때 오온을 꿰뚫어 삶의 현상을 순간순간 포착하여 그 변화를 보고 이것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 현상 이전의 본성을 파악함으로써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열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글·사진/경주=김철우 기자

마하보디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체험기

'알아차림', 자각의 또 다른 이름이다. 끊임없이 감각의 더듬이를 바짝 세워놔야,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앉든 걷든 깨어 있어야 찰나의 변화 무쌍함을 포착해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위빠사나 수행체험은 현미경으로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다. 전광석화 같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찰나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었다.

왜 위빠사나는 '깨어있는 참여'를 중시할까? 1993년 미얀마 우 빤디따 스님에게 출가한 혜조 스님이 5년 전부터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경주 마하보디선원에서 그 답을 찾았다. (054)746-9750



집중수행은 '좌선-행선'을 홀·짝수 시간으로 나눠 1시간씩 이어진다. 법문도 수행지도 점검과 함께 하루에 한번 진행된다.

인천 법명사, '금강경' 백가해 간경 법회

인천 법명사(주지 선일)는 2월 26일부터 100일간 오후 7시 인천 가좌동 법당에서 '<금강경> 백가해 간경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스님 및 중진 대덕을 초청해 열리는 이번 간경법회에서는 <금강경> 사경, 독경, 아비라 기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32)577-5108

동국대 사회교육원, '명상 기치유사 강좌'

동국대 사회교육원(원장 유광진)은 3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50분에 진행되는 '명상 기치유사 강좌'에 수련생을 모집한다.

포천 중문의과대학 보건대학원 박세준 외래교수가 강의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명상개론, 명상치유, 심리치유, 심리요법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 8만원. (02)2260-3728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퇴행성 관절염 <신물질 충격 요법>
약사 나경환 지음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절, 허리 근육이 굳어있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뻣뻣하신 분, 고혈압, 심근경색, 뇌혈전, 동맥경화, 고지혈증, 불면증, 만성두통, 정맥류, 손 발저림, 혈액순환장애로 고생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전화 02)3436-3206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기문 명리학
(특강 : 수지침, 관상, 풍수, 작명, 택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시접수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대학과 방송국에서 강의 중)
초단기 전문가 양성 시스템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정복
(취업 보장)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접수 연락처 02)454-3369
011-775-8709 (지선 법사)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살아있는 동충하초 추출액 100%
1. 동충하초 자실체만을 선별·추출하였으므로 동충하초 본래의 맛과 향이 살아있습니다.
2. 동충하초 성장주기 중 유용성분 함량이 가장 높은 시기의 개체만을 선별하여 추출하였습니다.
3. 살아있는 동충하초를 추출하여 함유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4. 살아있는 동충하초 100%추출액입니다.
5. 본 제품은 생물자원개발연구소가 품질을 보증합니다.

◆ 용 량 : 100㎖×60 포
◆ 특별판매가 : 125,000원
● 연구개발자 : 생물자원개발 연구소 이학박사 김홍남 교수
● 식품 안전성 검사 : 시험번호 제 GO2128 호
● 성분검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 3895 호
● 상표등록번호 : 40 - 2001- 0031242
※ 본 제품 판매의 수입금은 법당 조성 기금으로 사용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자손만대에 걸쳐 무한한 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구입문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산 60번지
정 토 사 063)255-0733
법연 스님 010-9282-0733



누구보다 바쁘지만 일과 신행을 따로 생각하지 않는 성북경찰서 불자회 김두식(사진 오른쪽) · 권원하 형사.

범인도 피해자도 부처님 대하듯

많은 직장불자들은 "일에만 쫓겨 산다"고 말한다. 불자로서의 삶을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일과 믿음'은 분리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생각을 바꾸면 직장생활도 흐트러짐 없는 신행이 될 수 있다. 성북경찰서 불자회 前 회장 김두식(50 · 고덕) 형사와 現 회장 권원하(41 · 정도) 형사의 하루는 어떤지 따라가 봤다.

불자의 하루- 성북경찰서 불자회 김두식 · 권원하 형사

2월 21일 새벽 6시. 강력범죄수사팀 반장 김두식 형사는 서울 길음동 자택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틀 전, 절도범을 잡고 나서 취조하고 조서를 꾸미느라 밤을 꼬박 새워 몸이 불편하다. 그래도 김 형사는 10분 동안 명상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야만 하루 일과가 차분하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 지능범죄수사팀 권원하 형사도 몸을 일으켰다. 권 형사는 아침에 늘 피로함을 느낀다. 전날은 특히 힘들었다. 오후에는 전남 목포에서, 새벽에는 전북 무안과 광주에서 범인을 쫓았다. 그렇지만 자리에 누운 채로 약 5분간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다 보면 이내 잠도 깨고 새로운 기운이 솟아난다. 권 형사의 마음속에는 "오늘 하루도 경찰로, 가장으로 충실하게 일하겠다"는 발원이 가득하다.

명상 · 관음정근으로 하루 시작

이들은 7시 20분이면 성북경찰서에 도착해 '으랏차차' 체력관리에 들어간다. 늘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범죄 현장.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단련된' 자신뿐이다.

이어지는 각 팀의 조회. 관내에서 일어난 범죄, 신고 · 접수된 사항을 확인하고 팀원들과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후 특별한 사건이 없을 때는 오전 10시 경, 약 20분 동안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두 형사는 이 '틈새 시간'을 놓치지 않고 법당을 찾는다.

요즘 김 형사는 법당을 찾는 횟수가 늘었다. 관내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하나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다. 7개월 전 발생한 '명문대졸 여성 이모(31)씨 피살 사건'의 증거가 잡히지 않아 마음이 조급하다. 부처님 가피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했으면 해서 평소 주 2~3회 정도 법당을 찾았지만 요즘은 더 매달리고 싶다.

"피해자 가족, 특히 어머니가 통사정하며 전화를 할 땐 참 미안합니다. 범인을 잡아야 그 분들이 좀 편해지시겠죠."

법당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김 형사의 머릿속에는 지난 사건의 피해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대부분의 사건이 우발적이라 '앗' 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가끔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눈을 감지도 못한 채 현장에서 발견됐을 때, 김 형사는 살며시 다가가 눈을 감겨주고 '극락왕생'을 빈다. 처음에는 피해자만 눈에 밟혔는데 이제는 남겨진 가족들이 더



"곧 출동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신고 전화를 받고 있는 권원하 형사.

걱정이다. 그래서 김 형사는 이제 가족을 위한 기도에 더 열심이다.

김 형사가 법당에서 기도하는 동안 권 형사가 들어온다. 권 형사도 수사계에 있다 보니 별반 고민이 다르지 않다. 경찰관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만 현실은 늘 그를 달리게 만든다. 권 형사가 맡고 있는 카드 및 보험사기가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화 치솟아도 세번 생각하고 행동

이렇게 법당에서 시작되는 하루, 두 형사의 업무태도가 달라진다. 부하직원의 실수 등으로 인해 단번에 성낼 것은 세 번 생각하게 되고, 범인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게 되는 것이다.

김 형사는 이날 성북구 사찰들도 둘러보기로 하고 모 사찰을 찾았다. '오는 날이 장날'이라 했던가. 대웅전에서 10대 청소년 한 명이 불전함 투입구에다 꼬챙이를 집어넣고 있다. 사찰 불전함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났다는 사찰 신도들의 귀띔이 있었지만 현행범이 눈앞에 있을 줄이야. 바로 체포도 가능하다. 하지만 김 형사는 '어린 도둑'의 어깨만 툭툭 친다. 초범인지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굳어버리는 표정을 보니 김 형사는 슬쩍 웃음이 나온다. 무조건 붙잡아 구치소에 보내는 것 보다는 교화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철없는 청소년까지 경미한 범죄 때문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들어있는 곳이거든. 네가 꺼낸 그 돈을 넣은 사람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야."

그 시간, 경찰서 내에 있던 권 형사는 전화를 한 통 받는다. 이미 100여대 피해사례가 신고 된 "'오토바이 사기꾼'을 잡았다"는 전화다. 부리나케 출동이다. 검거된 범인은 28세 한모(28)씨. 편모슬하에서 자라 모친의 고생을 덜어주겠다며 카드 사기는 물론 오토바이 절도 및 매물까지 손을 댔다.

"자네가 훔친 오토바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인 것은 알고 있나?"

순간, 오토바이를 잃어버려 배달을 할 수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던 동네 중국집 주인의 얼굴이 떠올라 한씨가 미워진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권 형사는 한씨가 되려 딱하다.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훔친 물건을 팔아서는 살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난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만드는 원인이 될 뿐. 그것을 알기에 권 형사는 피해자도 범인도 모두 측은해지는 것이다.



바쁜 업무 속에서 틈이 날때마다 법당을 찾아 마음을 다스리는 김두식 형사.

일 잘하는 형사보다 불심깊은 사람되고자

검거하는 범인의 숫자가 늘어갈 수록 경력이 쌓여 승진하는데도 보탬이 되고, 또 보람도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착잡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두 형사 모두 주변에서 공인된 '일 잘하는 형사', '부지런한 형사'지만 항상 스스로 '불자'로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고민하기 때문.

가끔 '악랄하다'고 생각되는 범인도 있지만 부처님 법 안에서 보면 언제나 '측은지심'의 대상이다. 도박을 끊지 못해 범죄를 일으킨 가장,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칼을 든 소년, 빚쟁이가 가족을 괴롭혀 홧김에 일을 저지른 청년 등 범인들도 저마다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김 형사와 권 형사. 다음 날, 다시 또 다른 범인을 잡아야 하고 미해결 사건과 씨름해야겠지만 발걸음이 무겁지 만은 않다. 범인이든 피해자든 모두 부처님처럼 대하려는 불심이 있으니까.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사람 위해 법이 있습니다"

이홍주 변호사

법조인 사무실이 빼곡하게 들어찬 서울 서초동 법원 앞. 사법고시만 통과하면 의례히 돈과 명예가 따라왔던 예전과 달리 이제 이곳은 치열한 삶의 경쟁터가 됐다. 변호사도 변신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에 '사람과 법'이라는 범상치 않은 간판. 2001년부터 자리를 지켜 이곳 '터줏대감'이 된 변호사 이홍주(41 · 사진)씨의 사무실이다.

"개업할 때 생각했지요, 지금 법의 기본 취지가 많이 왜곡된 것은 아닌가…. 원래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법'이 사람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이 '법' 앞에 '사람'있다는 '사람과 법'이다.

이씨는 자신이 '진짜 불자'가 된 것은 서른한 살이 되어서라고 말한다.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소망했던 변호사가 되기 위해 사법 시험을 준비하던 때였다. 어린 시절부터 절에는 다녔지만 '진정한 불자가 될 것을 부처님 앞에 서원합니다'라고 마음 깊은 곳부터 발원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5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짬짬이 위빠사나, 참선 등의 수행으로 마음을 다스렸다는 이씨.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변호사가 됐고, 신문과 잡지에서도 심심찮게 성공적인 '소형 로펌'으로 소개되는 '사람과 법' 대표변호사지만 이씨에게도 스트레스는 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실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요. 아무 고민 없는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지 않지요. 수심이 가득한 누군가를 위해 법정에서 대신 싸워야 하는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의 생활 스트레스 대부분은 '사람'이 '법'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기본 신념이 흔들릴 때 생긴다. 개업 초기의 마음, 부처님 앞에서 좀 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불자가 되겠다는 서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그렇다.

삶의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싸움'에 매진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좋은 결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이씨의 마음 한 가운데는 '세간법과 부처님 법을 어떻게 조절해야 슬기로울까' 항상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내가 직접 적어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갑 한 구석에 꽂아두고 힘들 때 마다 펼쳐본다. 또 '모든 모습이, 모습이 아님을 보는 것이 진짜 여래를 보는 것이다(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는 <금강경>사구게를 직접 써보기도 한다.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을 사는 이씨의 다짐이다.

사무실에서의 신행은 매주 둘째주 일요일, 이씨가 찾는 서울 조계사에서도 이어진다. 불자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사법연수원생 불자모임 '다르마 법우회' 총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시원한 '경상도 사나이' 이씨는 탁월한 리더십과 '사람'을 늘 먼저 생각하는 불제자로서의 자세 때문인지 어디서나 인기다.

"'불자'라는 생각을 늘 가슴 속에 지니고 살지만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조금 더 부처님 안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행도 본격적으로 해야겠지요."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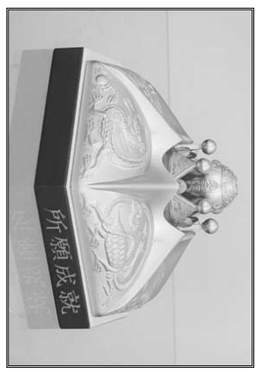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 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겹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북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북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0> 한마음과 참 성품을 보는 법

<선가귀감>에서는 처음부터 선(禪)이 근본이 되고 교(敎)가 방편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선은 근본이어서 상근기가 취할 만하고, 교는 방편이어서 중하근기들이 취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선은 근본이고 교는 곁가지라는 뜻일까? 그래서 교는 무시하고 선만 떠받들어야 한다는 것일까?

아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을 뜻하고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한다고 했으니, 선과 교를 완전히 분리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으므로 그것을 길잡이 삼아 부처님의 마음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마음은 '허공에 떠있는 달'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함은 그런 뜻을 비유하는 말이다. <선가귀감> 8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말한다.

敎門惟傳一心法 禪門惟傳見性法

교(敎) 쪽에서 공부하는 길은 오직 한마음에 관한 법을 전할 뿐이고

선(禪) 쪽에서 공부하는 길은 오직 참 성품을 보는 법을 전할 뿐이다.

여기서는 먼저 '한마음'과 '참 성품'의 개념을 알아야겠다. 한마음이란 무엇인가?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하여 "모든 현상은 오로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 이 말처럼 '한마음'이란 '모든 현상의 근원에 있는 마음'을 뜻한다.

눈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는 많은 차별이 있을지라도 그 근원에 있는 바탕인 한마음은 조금도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참 성품'이란 한마음의 바탕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빛'을 말한다. 서산 스님은 이것을 거울에 비유해 설명하기를 "마음은 거울의 바탕과 같고 성품은 거울의 빛과 같다. 참 성품은 본디 맑고 깨끗한 것이므로 이 성품만 툭 트인다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본디 마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의 요지는 '근본 뜻을 아는 한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重重山與水 淸白舊家風
겹겹으로 둘러싸인 산과 물이여
깨끗하고 맑고 맑은 옛집의 풍류.

모든 현상 마음이 만들어낸 것
한마음 알면 참 성품도 알게 돼

서산 스님은 다시 "마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본바탕의 근원에 있는 마음(本源心)'과 '나타난 형상에 끄달리는 무명의 마음(無明取相心)'이 있다. 성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본디 법으로서 있는 성품(本法性)'과 '성(性)과 상(相)으로써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품(性相相對性)'이 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바탕의 근원에 있는 마음'과 '본디 법으로서 있는 성품'은 곧 부처님의 자리이다. 이 내용을 합쳐 다른 말로 바꾼다면 '공적영지(空寂靈知)'이다. '공적(空寂)'이란 모든 시비와 분별이 끊어진 '고요한 마음자리'이고, '영지(靈知)'란 그러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태양처럼 빛나는 지혜'이다. 고요한 마음자리가 있어야 빛나는 지혜가 드러나고, 빛나는 지혜가 드러날 때 고요한 마음자리가 있게 된다. 고요한 마음자리가 빛나는 지혜요, 빛나는 지혜가 고요한 마음자리이다.

이것을 서산 스님께서는 "마음은 거울의 바탕과 같고, 성품은 거울의 빛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본바탕의 근원에 있는 마음'을 알게 되면 '본디 법으로서 있게 되는 성품'을 저절로 알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한마음'을 제대로 알면 바로 그 자리에서 '참 성품'도 알 수 있다. 교(敎)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선(禪)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나타난 형상에 끄달리는 무명의 마음'과 '성(性)과 상(相)의 상대적 개념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성품'은 곧 중생의 자리이다. 부처님의 자리에서 근본마음만 알면 공적영지(空寂靈知)로서 교(敎)도 선(禪)과 다를 바가 없게 되지만, 중생의 자리에서는 근본 성품을 알지 못하면 선(禪)도 교(敎)의 자취가 되고 만다.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선과 교가 서로 옳다고 다투기만 한다면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다.

눈앞에 보이는 이름이나 형상에 집착하고 알음알이만 내어 혹 얕은 것도 깊다 주장하고 혹 깊은 것도 얕다고 우기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공부하는데 큰 병통이 됨으로 여기에서 그 시비를 가려낸다. <선가귀감> 4장에서는 말한다.

온갖 이름을 억지로 갖다 붙여서 혹 마음이라 하고

혹 부처님이라 하며 혹 중생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름에 얽매여 알음알이를 내서는 안 된다.

그 밑바탕에서는 모든 것이 옳지만

한 생각 움직이면 근본 뜻에 어긋나느니라.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108번뇌는 무엇?

'108번뇌'란 말은 참으로 익숙합니다. 그 흔한 대중가요의 가사에도 쓰일 정도니, 일상의 언어로 자리 잡은 셈이지요. 이쯤 되면, 108번뇌란 단어는 이미 불자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108배, 108삼매, 108계단 등 108이란 숫자를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불자들조차 잘 모릅니다.

그럼, 산수공부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인식의 6가지 뿌리인 '육근(六根)'과 그 대상인 '육경(六境)'이 서로 작용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의식 등의 육근, 색깔 소리 향기 맛 접촉 물질 등의 육경이 '좋다(好)' '나쁘다(惡)'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無記)'를 끊임없이 가늠 질을 하지요. 그러므로 108번뇌는 육근이 육경과 상호작용해 3가지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6×3=18번뇌가 됩니다. 또 6경에 대해 '괴롭다(苦受)' '즐겁다(樂受)' '괴롭지도 즐겁지 않다(捨受)'란 3가지 감정이 일으키기에 다시 6×3=18를 더해 36번뇌가 됩니다. 그리고 이 36번뇌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에 36×3=108번뇌가 되는 겁니다. 번뇌는 집착입니다. 자신과 타인, 소유물 등에 집착하기에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85)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31강 무아로 여는 평화

사상, 고통 낳는 무명의 핵심

<금강경> 제 3장은 말한다. "보살은 우주 안의 모든 생명을, 사람을 포함하여 미물과 천상의 존재들에 이르기까지, 다들 무여(無餘)열반에 들도록 인도(滅度)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인도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무도 인도된 바 없다. 왜냐? 보살은 사상(四相), 즉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 핵심어인 사상(四相)을 살펴본다. 이들은 '자아의 네 가지 양상, 혹은 위상'에 해당한다.

하나 미리 짚어두자면 이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인상(人相)은 아상(我相)과 대립되어 보이는 듯하지만, 실은 같은 자아의식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이른바 인아상(人我相)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인아상은 '남(人)과 나(我)를 갈라보는 의도적 구분'으로 번역되지만 인상(人相)은 '남'이 아니라 '사람' 혹은 '인격'의 구조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 인(人)자는 이렇게 여러 뜻을 가지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1) 콘즈의 해석

이 넷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한문만 보아서는 선명치 않다. 한역의 근본은 산스크리트어일 것이니, 거기서 직접 영역한 콘즈의 도움을 받아볼까 싶었다. 콘즈는 이 넷을 이렇게 영역하고 있다.

"And why? He is not to be called a Bodhi-being, in whom the notion of a self or of a being should take place, or the notion of a living soul or of a person." 번역하면 이렇다.

"왜냐? 그런 사람은 보살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보살에게는 '자기'라는 관념, '존재'라는 관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관념, 그리고 '인간'이라는 관념도 없다."

반복하자면 콘즈는 아상(我相)을 '자기'라는 관념(the notion of a self), 인상(人相)을 '존재'라는 관념(the notion of a being)으로, 그리고 중생상(衆生相)을 '살아있는 것'이라는 관념(the notion of a living soul), 수자상(壽者相)을 '인간'이라는 관념(the notion of a person)으로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이나 해설은 없다.

그는 이 책 서문에서, "설명하지 않고 남겨 놓은 것은, 내게는 애매하거나, 혹은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부연한 바 있는데, 이 대목에서는 자신이 없었을까.

구마라습의 한역과 콘즈의 영역을 대조하면 공통점도 분명하다. 아(我)가 '자기'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인(人)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중생(衆生)이 '살아있는 목숨들'을 가리키는 것이야 상식이고, 또 수자(壽者)는 '시간의 지속성'과 연관된 중심적 인격을 가리키고 있다.

요컨대 이런 관념이 보살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을 종합하면 한 마디, 결국 무아(無我)가 된다!

2) 내 억측의 해석

이 넷의 불교적 맥락과 논란을 따지기 시작하면 머리가 지끈거릴 수도 있다. 거두절미하고 이 넷을 다른 방식으로 읽어보면 어떨까. 가령, 이 넷을 '자아'의 외연이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읽으면…. 이를테면 이기주의는 개인적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민족적 배타주의, 나아가 인간 중심주의가 있다. 외연은 확장되어도 이기적이라는 점, 그리고 그 동아리 바깥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배타적, 공격적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금강경>뿐만 아니라, 불교는 바로 이 같은 분별(分別), 즉 '구분 의식'이 인간의 불행과 비참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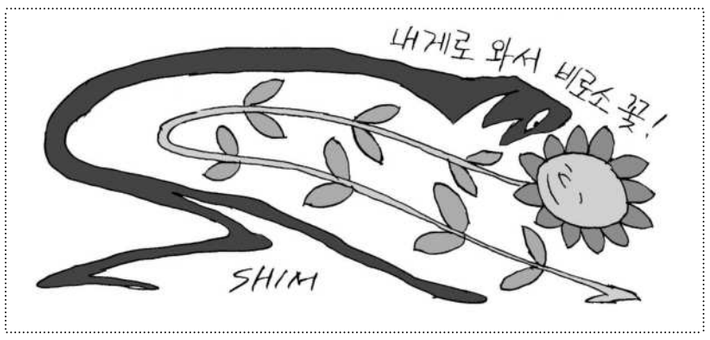
"분별(vikalpa)은 이 세계 전체의 고통을 산출하는 무지(無明)의 핵심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그리고 그 경험 세계에 수반되는 모든 악은 잘못된 구분에서 비롯된 생각이 구축한 것이다." (E. Conze, <Buddhist Thought in India> p. 262).

사상(四相)은 자아가 동일시하는 정체성의 범위를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 요컨대, 아상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자아의식이고, 인상은 이름 그대로 집단적, 종족적 수준에서의 자아의식이며, 중생상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이며, 수자상은 '지속'에 대한 인간의 무의식적 조바심을 가리킨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제멋대로의 엉뚱한 해석이라고 핀잔을 줄지 모르겠다.

3) 자아의 토대(住)

아무려나 각자 이런 다양한 수준에서의 자아의식을 '토대(住)'로 세상을 본다. 그러니 모든 것이 주관적 이미지(相)가 아닐 수 없다. 예외 없이 누구나 이 토대에 바탕 하여 사태를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만든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 물론, 모든 대상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대상'은 나의 관심과 주의, 그리고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름표를 얻은', 즉 '지각되고 정립된' 것만이다. 김춘수의 유명한 시를 예로 들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만, 그는 내게로 와서 비로소 '꽃'이 될 수 있다.

이 활동, 자연을 포획하여 재갈을 물리고, 그것을 나의 목적에 맞게 노예로 부리는 모든 활동의 기저, 그것을 우리는 '나'라고 부른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 혹은 인간관계는 기실, 이런 도구화의 위태롭고 불안정한, 주로 엇갈리고 때로 충돌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고쳐야 세상 안팎에 평화가 온다. 이것이 '마음'의 비밀이다. 환상의 거짓 마음을 비우고, 진정 나였던 마음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불도(佛道)이다.



문득 '나 아닌' 마음을 비울 때, 도구화의 네트워크였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전혀 다른 천지가 펼쳐진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란 사상(四相)으로 인한 의식 무의식적 오염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 자각(智慧, 般若)로 하여 갈등과 혼란은 일시에, 촛불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 문득, 기적처럼 사라진다. 거기가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이다.

4) 환상을 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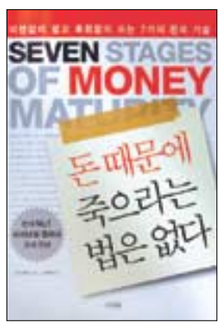
누구나 환상을 갖고 있다. 우리는 자아, 혹은 사상(四相)이 추동시킨 환상, 신기루,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 아시겠는가.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는 것은 기본이다. 모두 예외 없이 왕자병과 공주병 증후군을 앓고 있다. 남자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힘과 권세를 과시하고자 한다.

여인네들은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 은근한 칭찬에, 그만 도취되고 만다. 모두들 칭찬하면 좋아하고, 비난하면 싫어한다. 모두들 자신은 착한데, 세상에는 싸가지 없고 파렴치한 사람이 너무 많으며, 자신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고 매도한다. 자신은 아름다운 로맨스를 가꾸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불륜에 빠져있다고 탄식한다. 같은 일이라도 내게 적용되는 기준과 남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내 편의 잘못은 작아 보이고, 저편 그룹의 잘못은 아주 커 보인다.

우리의 판단과 견해, 그리고 정서와 충동은 이런 과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오염되어 있다. 그 오염은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말과 한 순간도 쉬지 않는 생각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 때문에 불교는 말을 불신하고 위태롭게 여긴다. 아울러 생각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기보다, 그 흐름을 제어하고 제압하고, 나아가 제거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기억할 것인데, <금강경>은 말한다. 야생의 소를 길들이듯, 우리는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돈 후회없이 벌고 미련없이 쓰는 7가지 기술



돈때문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
노주한 옮김
수희재 | 1만2000원

'어른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돈에 고뇌하고 있다는 표시인지도 모른다. 삶이 고해(苦海)로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은 대개가 돈 때문이기 쉽기 때문이다.

돈은 인간의 더할 나위없이 신성한 발명품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돈으로부터 괴로움을 겪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돈에 대한 어긋난 심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어떤 심리를 키워가게 되고, 그것이 성인기에 이르러 고통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됐다.

돈을 인생 파트너로 만들기위한 제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디에 살고 싶은가'
3가지 근본 물음에서 출발하라

이 책 <돈 때문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에는 '연 12%를 저축하고 12년 안에 은퇴하는 방법'을 제창하여 미국 전역에 화제를 모았던 조지 킨더(파이낸셜 플래너)가 말하는 인간이 돈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들어 있다. 미련없이 후회없이 쓰고, 돈을 인생의 파트너로 만드는 7가지 기술이 그것이다.

불교를 중심으로 한 정신적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며 연간 수억달러를 관리하는 미국 제일의 파이낸셜 플래너인 저자는 먼저 인생의 목표를 3가지로 정리해 볼 것을 제안한다. 즉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디에 살고 싶은가'. 이러한 3가지 근본 물음에서 출발하여 '무지' '고통' '지식' '이해' '활력' '비전' '알로하'등 7가지 단계의 가르침을 꼼꼼히 성찰하라고 주문한다.

7가지 단계는 첫째 우리가 돈에 휘둘리는 것은 돈에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둘째 돈이 주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돈은 나를 일깨우는 종과 같기 때문이다.

셋째 돈을 버는 '지식'은 따로 있다. 실무적인 지식을 갖추되, 지식이란 지혜와 달리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한다.

넷째 사람이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기 쉽다. 인간관계를 풍부히 발전 시킨다.

다섯째 '활력'이 없으면 행동이 따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끝까지 이뤄내는 힘을 어려서부터 길러야 한다.

여섯째 인생의 목표는 길게 그리고 '비전'은 되도록 크게 잡는다.

일곱째 돈에 대한 최고의 경지는 하와이 말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와 더불어 관용과 친절한 마음등 넉넉하고 즐거운 상태를 말하는 '알로하'에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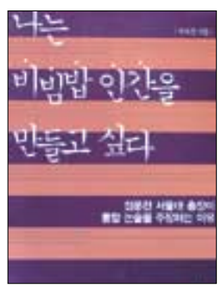
각 장을 순서대로 읽다보면 이야기를 풀어가는 예로서 3명의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돈이란 필요하면 오게 되어 있다는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하류층 여성, 돈이야말로 세상을 바꾼다는 신조에 인생전부를 건 중류층 남성, 태어날 때부터 필요한 것이 주어져 있지만 정작 돈에 관한 문제에서는 소외당해왔던 상류층 여성이 그들이다. 이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저마다 돈에 얽힌 사연들을 털어놓는다. 저자는 이들 이야기를 관통하는 공통점으로, 어릴 때 받았던 돈의 메시지가 성인의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빚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덕이거나, 돈을 벌면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결국 돈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책을 읽다보면, 내가 어느 단계의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각 단계는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꼭 거쳐야 할 통과의례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마스터함으로써 돈을 버는 방법과 쓰는 법, 돈과 인생을 잘 조화시키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 책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생활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까지 알려준다는 것이다. 삶의 활력을 얻고, 나아가 돈을 공기처럼 자유롭게 호흡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책을 권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미래사회 리더 통합사고형 인간

나는 비빔밥 인간을 만들고 싶다 박태식 지음 | 뷰스 | 9000원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통합형 논술을 주장하는 이유는? 통합적 사고를 갖춘 창의적 인간만들기.

통합적 사고를 갖춘 창의적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예술과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자연과학도,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문사회학도의 탄생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

통합적 사고를 갖춘 창의적 인간의 특징은? 흑백논리 대신 역지사지, 인문과 자연과학을 모두 이해, 사익과 공익을 중시하는 공동체적, 남을 너그럽게 자신에게 엄격, 엘리트주의를 거부하는 엘리트, 건강한 예비시민을 일컬음.

'비빔밥 인간'은? 단편적 정보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독창적 문제의식 아래 숱한 정보의 바다에서 씨줄과 날줄을 엮는 '창의적 경쟁력' 있는 젊은이. 또 세계 어느 곳에서나 현지인들과 잘 적응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식과 교양이 있는 글로벌 인재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21세기 유목민을 말한다.

현재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의 초대관심사인 통합형 논술. <나는 비빔밥 인간을 만들고 싶다>는 정 총장이 왜 통합형 논술을 주장하는지와 어떻게 하면 통합형 논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인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정운찬 코드의 실체, '머리좋은 또라이' 시대 오다, 논문의 핵심 화두 '윤리', 논술의 목표 '상식 경쟁력' 키우기 등으로 돼 있다.

김원우 기자

네티즌 강추

허 찌르는 결말…우리사회 부조리 고발



악어떼가 나왔다 문학동네, 안보윤 지음

경찰청장의 외동아들이 마트에서 실종,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 마트의 보안실장,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생선장수 부부가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마트에서 산 가방속에서 발견된 경찰청장의 외동아들, 마트의 보안실장과 연예인을 지망하는 생선장수 딸의 온라인 관계 등등.

이 소설의 구조는 읽고 나면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읽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설의 틀로 결과를 예측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지은이는 독자의 허를 찌르듯 소설을 끝내고 있다. 우리가 쉽게 대하는 소설의 줄거리를 대입한다면 결론은 비극이다. 그러나 이 각박한 오늘의 삶에 대입한다면 차라리 희망적인 메시지일 지도 모르겠다.

읽으면서는 '뭐 이런 소설이 다 있어'하는 생각을 했다. 읽고 나서는 다른 어떠한 생각보다는 가슴이 후련하기 보다는 무엇인가 큰 것에 얼어맞은 느낌이었다.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모습은 이 소설의 설정과 유사하다. 글을 읽고 나서도 가슴이 후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후련하지 못하는 것이리라. 그래서 작가에게 앞으로 나올 작품에 기대를 건다. (sciencepak, yes24.com/Goods)

"되는 대로 시집가서 애 낳고 살 거라고?"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랜덤하우스중앙, 남인숙 지음

원래 헤어지지 않았으면 만나던 애인에게 줄 계획으로 샀던 책. 제목과 미리말 글이 너무 좋아서 선물해 줄려고 구입했는데. 웬걸 헤어져버렸으니 내가 읽는 수 밖에.

암튼 제목부터 심상치않은 이 책은 정말 나은 여자가 되기위하여, 조건 좋은 남자 멋진 여자가 되기 위해 쓴 것 같다. 여자입장에서 최대한 읽어서 남자인 내가 내 삶에 반영하려고도 한 이 책은 정말 20대 여성이라면, 큰 야망과 꿈을 가진 여성이라면, 아직 갈피를 못잡고 '에유~ 강~ 되는 대로 시집가고 애낳고 살래~'라는 천박한 생각을 하는 여자라면 여러번 다독해야할 책일듯 싶다.

남자인 나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았으니 내 삶에 적용시킬것이요, 나중에 만나게될 내 사람에게도 비슷한 면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휘청이는 주위 여자동생들에게도 감히 진심어린 충고도 몇 마디할수 있으리라. 암튼 읽어보면 참 좋은책. 남자들이여 긴장하라. 이런 여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말고.

이런 남자가 되어야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섭섭해 하지 말자. (hpc0306, book.naver.com)

책속의 밑줄긋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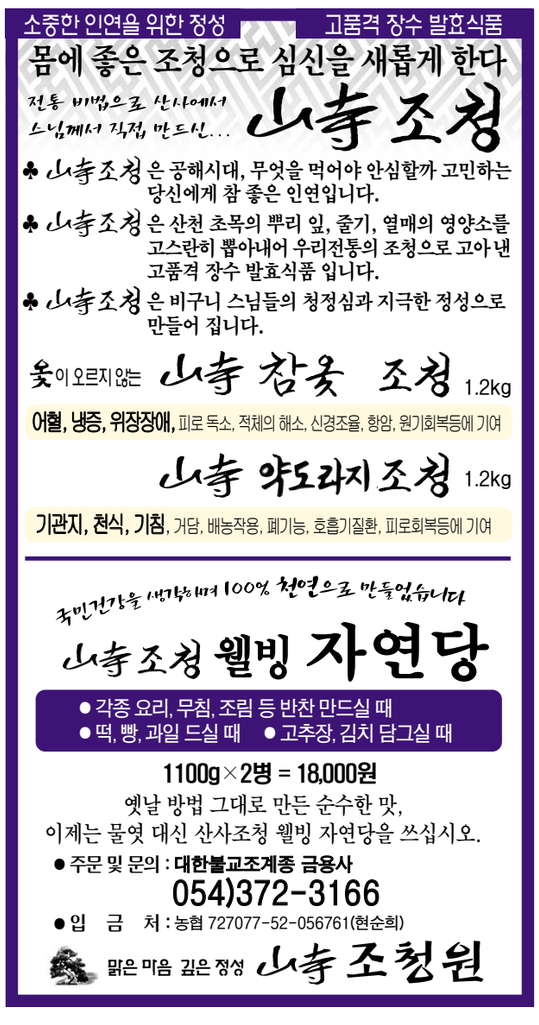
○… 만약 당신이 어떤 업무를 끝내야 한다면, 실제 그 일을 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업무 시간의 100퍼센트는 아닐 것이다. 브레인스토밍과 방법적 탐색,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된 독서, 체력 단련 그리고 약간의 게으름을 피우는 데에도 업무 시간을 할애한다.

우리가 관리자였을 때를 돌이켜 보면서 이전에 우리 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주어진 일을 해치우는 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정말 핵심적인 질문인 '이 일이 대체 할 필요가 있긴 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지 못했다.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햄버거 마인드를 가지고 주어진 업무의 의미에 대해 고민을 해본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생산 관리식 사고는 모든 노동력을 100퍼센트 작업 모드로 밀어붙이는 데 전력을 다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부족해서 업무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은 마치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고 우기는 것과 다름없다. -<피플웨어: 정말로 일하고 싶어지는 직장 만들기> 29쪽, 박승범 옮김, 매일경제신문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글·그림으로 부처님 행적 좇아



석씨원류응화사적
이광우 번역
법보원 | 20만원

'석씨원류응화사적' 한글번역본 발간

보물 제591호 석씨원류응화사적책판(釋氏源流應化事蹟冊板)이 한글번역본으로 발간됐다.

4권 1질로 발행된 <석씨원류응화사적>은 <불본행집경> <인과경><열반경> 등 경전에서 인용한 부처님의 일대기가 1 · 2권에, <고승전 > <불조통기> 등에서 뽑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어받은 전법 제자들의 행적이 3 · 4권에 실려있다.

책은 4 · 6배판으로 원문, 그림, 한글번역으로 출간하여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성은 앞부분에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 뒷부분에는 책판 원문과 그림이 실려있다.

1673년(현종 14) 양주 불암사에서 목판에 새긴 석씨원류응화사적책판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권은 100항목 212매로 구성되어 있다.

목판의 양면에 본문이 새겨진 체제이며, 각 면에 책의 중간이 접히는 판심(板心)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4자구로 된 제목을 달았다. 본문은 12행 24자씩 배열하였으며, 왼쪽에 책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원래 불암사에 소장되었으나 현재는 동국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책판은 새김도 비교적 정교하며 내용과 그림이 동시에 묘사되어 있다.

또한 내용에서도 신라시대 의상, 자장과 고려시대 의통 스님등의 사적도 실려 있다. 또 1486년(성종 17) 명나라 헌종의 <어제석씨원류서>, 1672년에 쓴 이해의<석씨원류서>, 당나라 왕발의 <석가여래성도응화사적기>, 처능의 <석씨원류후발>도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편집되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본문 끝에 실려 있는 발문에 의하면, 1631년(인조 9)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정두원이 가지고 와서 금강산 백운암에 두었다고 한다. 그 뒤 유점사 지십(智什) 스님이 1673년(현종 14) 양주 불암사에서 처음 개간했다고 한다.

한편 책을 번역한 이광우씨는 동국대 국어국문과 강사를 거쳐 현재 중국 북경대학에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책판에 나오는, 부처님 탄생도.

조사들의 숨결 생생한 禪의 고전

'선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한 존재의 중심에 깊이 가 닿을 수 있는 내적인 지각 능력을 강조하는데 있다' (스즈키 다이세츠: 선불교를 서양에 전파한 세계적인 불교학자)

선에 대한 정의는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다.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선사들의 동문서답과 돌출행동. 선사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책에는 중국 선종의 문을 연 보리달마가 부정의 방법으로 제자들을 깨치는 공부법을 소개한다. 즉 혜가가 "제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스승이여 제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소서"라고 애기하자 달마는 "네 마음을 여기에 내놓아라. 그러면 평화롭게 해주리라"고 답한다. 이에 혜가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 지 찾지 못했다"고 말하자, 달마는 "이미 네 마음은 평화롭게 됐느니라"고 화답한다.

이 밖에도 육조 혜능, 남악 회양, 마조 도일, 황벽, 조주, 임제, 도오, 덕산 선사등 역대조사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법담과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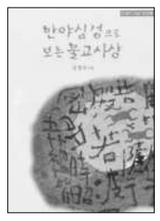


선의 황금시대
김연수 옮김
한문화멀티미디어
1만5000원

선의 황금시대는 선사들이 많이 배출됐던 당나라 시대를 말한다. 이 책 <선의 황금시대>는 1967년 초판 발행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의 텍스트로 남아 있을 만큼 고전이 된 책이다.

중화민국 주재 바티칸 교황청의 공사를 지낸 존 C.H. 우(오경웅)가 선에 대해 20세기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스즈키 다이세츠 박사를 만나 역대조사들의 깊은 통찰에 깊이 빠져든 뒤 발간한 서적. 이 책은 다양한 판본과 각국의 언어로 전 세계에서 발간돼 선의 정신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7년 서돈각 박사 번역으로 초판이 발행된데 이어 1986년 류시화씨 번역본도 출간됐다.

소설가인 김연수씨가 96년 발행된 델(DELL)출판사본을 번역한 이 책은 역대조사의 일화와 선시들을 동서양 철학과 종교를 넘나드는 저자의 풍부한 해설을 통해 만나면서 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반야심경으로 보는 불교사상
김영무 지음
현대미학사
1만2000원

반야심경으로 푼 불교

공(空)사상의 광활한 넓이와 불교사상의 심오한 깊이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반야심경 해설서가 나왔다.

이 책 <반야심경으로 보는 불교사상>은 기존의 학자나 수행자가 발간한 책과 달리 극작가인 김영무씨가 스스로 갖고있던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듯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교적 입장에 치우치거나 학문적이지도 않다.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용어풀이와 해설, 보살의 세계, 공사상의 배경과 의미, 우주의 모습, 깨달음의 경지, 반야심경의 역사적 배경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김영무씨는 "21세기 문명의 큰 두가지 화두는 '동양으로의 귀환'과 '생태적 상상력의 복원'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답은 동양의 지혜와 사상을 담으면서 인간생활의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불교'에서 찾아야 하며 그 핵심인 반야심경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살아생전 한번만이라도
도천당 건덕스님
날마다좋은날
8000원

투병을 수행삼아 이웃과 함께

20여년간 신부전증을 앓으면서도 투석을 수행삼아 소년소녀가장돕기, 신장병 어린이 후원 및 불우이웃돕기등 실천불교에 앞장서왔으나 지난해 12월 3일 입적한 도천당 건덕 스님의 유고집이 나왔다.

<살아생전 단 한번만이라도>에는 20년간 단 한방울의 오줌도 누워보지 못한 스님의 아픔과 물을 한번 실컷 마셔보고 싶은 소원이 들어있다.

이밖에도 자살, 출가, 복인줄 알고 감사의 눈물이, 슬픈계절에 만나요, 나의 가슴에 묻어둔 신장병 어린이등 스님이 틈틈이 쓴 글과 미룡사 주지 정각 스님을 비롯 고향친구와 도반, 신도들이 쓴 추모글등 41편이 실려있다.

스님은 평생 숙원이었던 신장병어린이 후원회 결성을 20여일 앞두고 자서전 출판과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던중 몸을 돌보지 않고 강행군을 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입적에 들었다.

스님의 법구는 생전 유언에 따라 동아대 병원에 기증됐다.

김원우 기자



직관
백원기 옮김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8000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족계를 받은 영국 아마라와띠 수도원 원장인 아잔 수메도의 실천적 가르침을 엮은 법문집.

<직관>은 아잔 수메도가 2001년 영국 햄스테드의 아마라와띠 수도원에서 정기적으로 설한 법문의 내용이 담겨있다.

아잔 수메도는 40여년이 넘는 오랜 수행을 통해 그가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전달하고 있다.

그의 가르침은 '어떠해야 한다'는 이상으로의 추구가 아니라 다만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대상,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어떤 경험을 하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에 관한 것이고, 심지어 고통조차도 환영하고 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 '직관적 알아차림'을 가지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법의 하나로 모든 것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침묵의 관조자'가 될 것을 제안한다. 이 '침묵의 소리'는 스스로 집착과 관념에서 벗어난 내면의 울림이며 우주적 의식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다.

새로나온 책

■ **삶, 그리고 죽음(최장수 지음, 교음사)=** 강원도교육청 장학사와 홍천 서석고와 홍천여중 교장을 역임한 수필가 최장수 씨의 희수(70세) 기념 수필집.



2004년 뇌경색으로 병원 신세를 진후 새로 느낀 삶에 대한 글이 많다. 이 책에는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죽음의 준비' '산사에서 만난 소녀' '보시 바라밀' '할머니 스님' '눈속에서 만난 마애불상' '아잔타 석굴' '초전법륜지'등 31편의 수필이 실려있다. 저자는 "영구불변하는 존재는 없으며 생명있는 것은 죽는다"며 "삶은 무아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고귀하다. 무상한 삶을 뜻있고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 이 책을 엮었다"고 말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초기불전연구원, 각묵 스님, 1만원
- **불교의 이해와 신행** 조계종출판사,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9000원
- **생활속의 금강경** 효림, 우룡 스님, 7000원
- **인도불교사1, 2** 시공사, 에띠엔 라모뜨, 6만5000원
- **달라이라마의 깨달음에 이르는길** 하얀연꽃, 텐진가초, 1만28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깨달음에 이르는 길

초발심에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수행법의 결정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완역출간이며 한국 불교에 기념비적인 경론!!

교보문고 불교부분 1위

달라이 라마가 2005년 12월 〈한국인을 위한 법회〉에서 추천했던 바로 그 책!!

승속을 불문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환희심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

저자는 이 책에서 법과 영적 스승에 귀의함으로써 누구에게나 필연적인 죽음,
인과법칙과 수많은 고통을 뛰어 넘어 사랑과 열정을 바탕에 둔 이타의 보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더 나아가 궁극적 진리인 자기도 없고 남도 없는 공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결국 모든 인간에게 소중하게 부여된 궁극적 깨달음을 향한 자유의 길을 제시해준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대중적인 수행의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며 좀 더 높은 차원의 티베트 불교의 독특한 수행단계도 소개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진리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수행은 인위적으로 총카파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이천 년 동안 붓다와 그 제자들이 스스로 실천해 온 방식이기도 하다.

수행자들은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을 때 압도당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
그럼으로써 수백 번, 수천 번 엎드려 절을 하며 자기들의 영혼을 정화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제 당신도 세계 불교를 이끌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정수를 만나게 됩니다!



총카파 지음 / 청전 옮김
신국판 변형, 양장본 / 1008쪽 / 값 43,000원

지영사 Tel. 02) 747-6333

산중일지

늦깍이 수행자의 25년간의 진솔한 수행담!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극찬했던 바로 그 책!



저자는 우리 불교사의 중요한 시기에 수행했던 원로였다.
이 책은 수행자의 사표를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책이며
당대 선지식인들의 면모를 후대인들에 의해
윤색되지 않은 생생한 일화로 만날 수 있다.
'활로'를 모색해가는 한 수좌의 평범한 일상과
철저하게 은둔속에 갇힌 수행자의 길과 그 길 속에서
수없이 만나는 의문의 물음들에 대해
너무도 진솔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현칙 지음 / 신국판 변형 / 값 10,000원

동국대 역경원장 월운 스님이 옮기고 해설한

부모은중경



부모는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자식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
잊고 사는 부모의 은혜가
왜 소중한지, 왜 다 갚을 수 없는지
가슴 깊이 알게 해주는 책이다.

신국판 변형, 양장본 / 값 8,000원

한 땀 한 땀 전통脈 바느질

동국대 사회교육원 전통자수반 칠조 가사 조성



2월 24일 동국대학교 특강에서 유희순 교수가 일광 · 월광을 설명하고 있다.

손바느질로 이어가는 전통가사

부처님께서 몸소 보인 인욕을 상징하기도 하고 인과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한 가사는 수행자들의 의식복이며 법복이다.

손바느질로 전통 가사의 맥을 잇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됐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전통자수반(교수 유희순)이 2월 한 달 동안 겨울방학 특강으로 전통가사연구원 정지상 원장의 강의를 마련해 칠조 가사를 조성했다.

지금까지 가사 제작은 재봉틀 등을 활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통의 맥을 오롯이 이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번 특강은 재봉틀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전통의 방식을 전승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30대에서부터 60대에 이르는 수강생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조성했다. 전통 가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 전통 가사 만들기

전통가사는 가사불사를 주관하는 도편수스님의 지휘 하에 가사 마름질을 하는 양공스님, 바느질을 하는 침선스님, 염불하는 송주스님이 정성과 신심을 다해 완성한다.

전통가사를 만드는 바느질은 당침이라 한다. 홑바느질의 일종으로 가사를 조성할 때 사용하는 바느질법이다. 가사바느질은 바늘땀이 동글동글 보이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사의 조수(條數)를 결정해야 한다. 조수에 따라 대의(大衣) 중의(中衣) 소의(小衣)로 나뉜다. 이때 긴 조각을 장, 짧은 조각을 단이라 부르는데 조수별로 장 · 단의 숫자가 다르게 결정된다.

우선 대의는 정식가사인 승가리(僧伽梨)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뉜다. 상품(21조 23조 25조) 가사는 4장1단으로 5쪽을, 중품(15조 17조 19조) 가사는 3장1단으로 4쪽을, 하품(9조 11조 13조) 가사는 2장1단으로 3쪽을 마른다. 중의인 7조 울다라승은 윗옷 속옷, 소의인 5조 안타회는 하의 속옷을 말한다.

가장 큰 25조 가사는 대종사 법계에서 수할 수 있는 가사인데 125조각을 이어 만든다. 23조 가사는 115조각, 21조 가사는 105조각, 19조 가사는 76조각, 17조 가사는 68조각, 15조 가사는 60조각, 13조 가사는 39조각, 11조 가사는 33조각, 9조 가사는 27조각으로 이루어진다. 7조 울다라승은 21조각, 5조 안타회는 10조각이다.

조각들을 이을 때는 가사를 펼쳤을 때의 중심인 주복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같은 수만큼의 조각을 이어 붙인다. 그 다음에 네모로 완성된 위

바늘땀이 보이도록 제작
점안식 거쳐야 법의 인정
佛名 염송하며 통문 작업
용도 등에 따라 명칭 달라

에 난(欄)을 얹어 바깥쪽은 반당침으로 하고 안쪽은 상침으로 세 땀씩만 뜬다. 네 귀를 짠 다음 사천왕과 일광 월광을 달고 영자(끈)를 품에 맞게 달아 완성시킨다. 완성된 가사는 점안식을 거쳐야 비로소 법의로 탄생한다.

가사의 크기는 실용성을 감안하여 적당한 크기여야 하는데 '율'에서는 '자기의 몸을 재서 적당한 분량으로 맞게만 입으면 된다'고 했다.

대가사는 위의를 갖추어 의식을 집전할 때 수하는데 가로 180cm~240cm, 세로 85cm~120cm 크기의 장방형이다. 야외법회 또는 예불을 올릴 때나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하는 반가사는 보통 가로 160cm~170cm, 세로 60cm~70cm의 크기로 한다.

정지상 전통가사연구원장은 "가사는 법복이기에 한 땀 한 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가사불사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전통을 계승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사에 장식하는 일광(오른쪽)과 월광.

△ 통문(通門)이란?

마름질한 조각들을 연결해 만들어내는 가사는 일반 바느질과는 달리 그 연결 부위에 통문(通門)을 만든다. 통문은 콩을 넣었을 때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연결 부위마다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 통문을 통해 부처님이 통하는 것이다.

가사를 수한 스님에게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천왕이 외호를 한다. 부처님께서는 우주와 법계에 가득한 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문을 통해 다가오는 것. 이 문의 숫자는 가사의 조수에 따라 다른데 25조 대가사의 경우에는 332곳의 통문이 존재한다. 23조 가사는 306개, 21조 가사는 280개, 19조 가사는 199개, 17조 가사는 179개, 15조 가사는 159개, 13조 가사는 102개, 11조 가사는 88개, 9조 가사는 74개의 통문을 가지고 있다.

통문을 바느질 할 때에는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데 상품 중품 하품가사를 바느질 할 때 각기 다른 부처님의 이름을 염불하게 된다.

상품(21조 23조 25조)가사의 경우 제일금강당불, 제이아미타불, 제삼석가모니불, 제사미륵존불, 제오아촉불, 제육묘색신불, 제칠묘음성불, 제팔향적광불, 제구대통지승여래불을, 중품(15조 17조 19조)가사는 제일유위불, 제이시기불, 제삼패엽불, 제사구류손불, 제오구나함모니불, 제육가섭불, 제칠교주석가모니불을, 하품(9조 11조 13조)가사는 제일청정법신비로자나불, 제이원만보신노사나불, 제삼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 제사구품도사아미타불, 제오당래하생미륵존불 등의 불명호를 염불한다.

△ 가사의 다른 이름

가사는 용도 모양 공덕 색에 의한 명칭이 다다르다. 염의(染衣) 적혈색의(赤血色衣) 괴색의(壞色衣) 간색의(間色衣)는 색깔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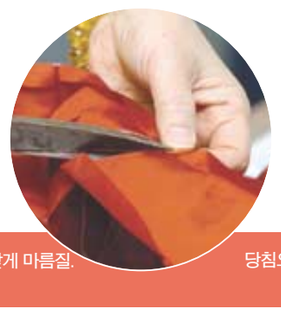
신도들이 시주함으로 복을 짓기에 복전의(福田衣), 속념을 떠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효과를 지녔다 해 해탈복(解脫服)이라고도 불린다.

이밖에 여법의(如法衣) 응법의(應法衣) 항마의(降魔衣) 자비복(慈悲服) 분소의(糞掃衣) 공덕의(功德衣) 라는 명칭도 가졌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천 다림질.



크기에 맞게 마름질.



당침으로 조각 잇기.



'통문' 내기.

졸업생에 '중덕' 법계 품수

옥천범음대 영산반 졸업식서

옥천범음대학(학장 일운)이 2월 17일 졸업식을 갖고 2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부터 옥천범음대학의 영산반을 수강한 졸업생 가운데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졸업생들에게는 '중덕' 법계를 품수한다. 올해에는 22명의 졸업생 가운데 5명의 스님이 중덕 법계를 받는 혜택을 입었다.

1969년 옥천범음회로 시작한 태고종의 영산재 전승교육은 1994년 옥천범음대학의 설립으로 현대적인 기틀을 갖추었다. 옥천범음대학의 '옥천(玉泉)'은 신라 진감선사가 하동에 창건한 옥천사에서 따왔다. 804년 당나라에 유학을 가 범패를 배워 온 진감선사가 귀국해 지은 옥천사에서 범패를 전수했다는 진감선사 대공탑 비문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학장 일운 스님은 "옥천사에서 범패를 전수한 진감선사의 전승이 우리 옥천범음대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을 담아 옥천범음대학의 이름을 삼았다"며 "동방불교대 졸업생으로 옥천범음대학 영산반까지 마친 스님들에게 중덕 법계까지 주는 만큼 더 많은 수강생들이 전통 계승의 길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지사랑교육원전통공예강좌

공모전 입상 · 전시 경험 강사 초빙

서울 수효사 부설 지사랑교육원(원장 이재정)이 다양한 전통 공예 강좌를 개설한다. 수강과목은 전지공예 닥인형 손뜨개인형 그림부조(전통회화) 조각보 자수 민화 등 7개 과목. 전국 공모전에 입상 및 다수의 전시 경험이 있는 우수 강사진을 갖추고 교육을 시작한다. 수강료는 전지공예의 경우 주2회 초급 10만원이며, 다른 수업은 주1회 초급 8만원이다.

올해 초 문을 연 지사랑교육원은 당초 한지공예 전시관으로 지난해 말 개관했으나 한지공예를 보다 대중화 일반화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교육장소로 변신했다. 60평 규모의 대강의실과 40평 규모의 단체 체험실 등으로 마련된 교육 공간은 국내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넓이이다.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도 하며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이재정 원장은 "사찰용품 등을 한지공예 제품을 기획해 인위적인 소재가 아닌 전통기법으로 보시함에서부터 불단장식에 이르기까지 불교용품을 제품화할 생각도 있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02)364-5047

강지연 기자

현대불교경전시리즈 .01

현대불교신문사

팔만사천 법문의 골수이자 핵인 반야심경
마침내 대중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다



신간

한암대원 선사의 반야심경 강설

처처에 빛나는 반야 지혜의 눈이 소리 없는 몽둥이를 내리쳐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봄바람을 일으킨다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유교까지를 두루 섭렵, "원전에 매이되 매이지 않는" 반야심경 주해로 이름을 떨친 무구자 도인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고 행적도 묘연했지만, 속장경에 실린 그의 반야심경 주해는 오랜 동안 공부하는 스님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오등시민 선원을 개원,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이,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한가운데로 뛰쳐들도록 촉구한다.

한암대원 강설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신국판 / 양장본 / 440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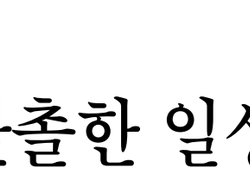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閒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고봉, 석릉, 관응,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02)2004-8200(代), 02)2004-8225(출판부), Fax:02)737-0696

단출한 일상 뒤엔 무소유의 넉넉함이 …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혜정 스님 (법주사 회주)



마애불 앞에 선 혜정 스님. 마애불의 미소와 혜정 스님의 미소가 닮았다.



혜정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사리각. 사리각 담벽을 둘러싸고 있는 담쟁이 덩굴이 정겹다.

복잡다단한 세상. 시대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추락하고 만다. 살기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등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우리들. 이제 단순함은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힘겨운 날개를 잠시 접고 미륵대불로 유명한 보은 법주사를 찾았다. 회주 혜정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서다. 선 · 교 · 율을 겸비한 선지식을 사리각에서 뵐 수 있었다.

스님의 처소에 들어서는 순간, 한지가 떠올랐다. 무서우리만치 흰색도 아니면서 적당한 흰빛을 머금은 종이. 만져보면 약간은 거친 듯한 느낌을 주지만 포근한 마음을 가져다주는 한지.

스님의 방에서도 이 느낌이 났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던 스님의 방에 있는 것이라곤 가사, 죽비, 탁자, 시계 뿐. 조사어록 등이 담긴 그 흔한 액자 하나 없었다. 잠시 후 들어온 혜정 스님의 모습에서도 그 느낌이 다시 났다. 자그마한 체구에 엷은 미소만 뿐.

혜정 스님의 일상사는 '단순' 그 자체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능인전에서 1시간 정도 예불을 드리고 30분 동안 정진을 한 뒤 다시 처소에 들어와 정진을 한다. 아침 6시 공양을 하고 사시마지를 올린 뒤, 오전 11시 30분 점심공양. 오후 6시 저녁예불 후 뒤 9시 취침.

스님 방엔 가사 · 죽비 · 탁자 · 시계 뿐

특별한 건강 비결도 없었다. 참선이나 기도 그 자체가 건강 비결이기 때문이다. 다만 "난 참선이나 기도를 잘 못해 건강하지 않다"는 겸손뿐이었다. 스님의 이러한 생활태도는 은사 금오 스님의 영향이 크다.

스님은 서당 훈장이었던 할아버지 영향으로 책을 가까이 하던 중 우연히 불교잡지를 보게 된다. 그 불교잡지에서 "생은 어디를 좇아 왔으며 죽음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생은 곧 한 조각의 뜬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은 한 조각의 뜬구름이 사라짐과 같으니라"는 대목이 가슴 깊숙한 곳에 꽂혔다. 그 가슴앓이는 김구 선생이 공부했던 마곡사 대원암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했다.

스님은 행자로 있으면서도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 화두를 불잡았다. 그러던 중 어느 깊은 밤 이상한 경계를 만나게 된다. 앉아있다는 의식도 없어지고 공중에 떠 있다는 느낌, 무엇인가 확 터지는 느낌, 그리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 스님은 수덕사에서 은사 금오 스님을 만났다. 금오 스님은 '참선 이외의 것은 외도(外道)'라고 할 정도로 참선을 강조했다. 행자가 울력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참선에 들고 있으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해 할 정도였다.

금오 스님은 또 무소유를 강조했을 뿐 아니라 계율을 중요시했다. 스님이라면 부처님 법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지론 때문이다. 금오스님은 율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추호의 배격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연스레 혜정 스님 몸으로 전이됐다.

"요즘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은사스님은 어떻게 처리했을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사스님을 잘 모시지 못했다는 마음,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늘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사스님을 떠올리는 혜정 스님의 목소리에 물기가 묻어난다.

혜정 스님은 1970년대 중반 법주사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법주사 강원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강원에 유명한 교수를 초빙했고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영어, 심리학, 비교종교학 등 내외전을 모두 교과과정에 도입시켰다. 이러한 교과과정과 함께 율반, 포교반, 외국어반, 편집반, 염불반, 미화반 등 6개 자율반을 편성해 활기를 띠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당시 종정이었던 서옹 스님의 부름으로 총무원장직을 맡았지만 곧 자리를 내놓고 월출산에 있는 토굴로 내려갔다. 도갑사에서 도보로 1시간 거리에 있던 이 토굴은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만 있을 뿐이었다. 시계도 없어 새 우는 소리로 시간을 짐작할 정도였다.

토굴마당에 풀 우거져야 '진짜'

바람 불면 월출산 전체가 흔들리고 비오면 월출산 전체가 온몸을 흠뻑 적셨지만, 겨울밤 달빛에 비친 순백의 세계는 아직도 스님의 가슴을 뛰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회향도 토굴에서 하고픈 마음이다.

"토굴이나 암자 수행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중 선원에서 기틀을 다진 수행자는 토굴에서의 집중 수행을 통해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요. 하지만 초심자가 토굴에 들어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자칫 나태해지기 쉬우니까요."

스님은 어떤 토굴이 열심히 정진하는 토굴인지 식별할 수 있는 방법도 귀띔해줬다.

"마당이나 부엌이 깨끗한 토굴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토굴인 것 같죠. 아닙니다. 마당이나 부엌이 깨끗한 토굴은 수행자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당에 풀이 우거지고 부엌은 더럽더라도 방에 좌복 하나 있는 토굴이 진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스님에게 법문을 청해 듣고 사리각 주변을 둘러봤다. 커다란 바위에 마애불이 새겨져 있었다. 수많은 세월 비와 눈보라가 몰아쳐도 엷은 미소를 띤 채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마애불. 조금 전 사리각에서 보았던 선지식의 모습과 닮아있었다.

글=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이사 겸비한 수행자의 귀감

혜정 스님은 1933년 전라북도 정읍의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 19살 때 예산 수덕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62~83년 1~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72년 중앙종회 부의장, 77년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법주사 주지와 율주 소임을 거쳐 현재 조계종 법계위원장, 원로의원이다. 이(理)와 사(事)를 겸비한 대표적 스님으로 수행자의 귀감을 보이고 있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뒷면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뒷면-소원성취 · 사고방지
※ 50개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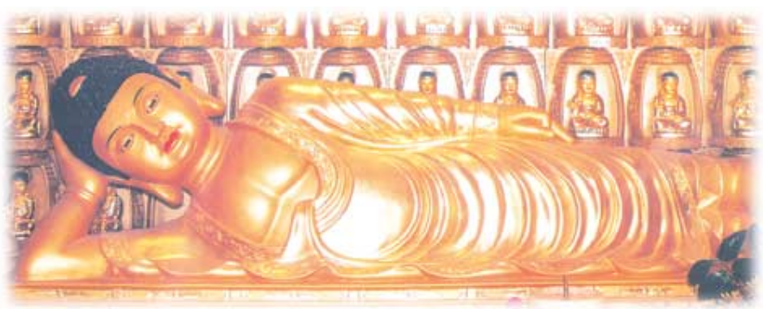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삼사순례 및 방생기도도량
감로법비의 성지 동 해 사







세계최대 약사여래와불 조성불사중

▶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대형주차장완비
▶ 점심공양 무료제공 (예약에 한함)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불자라면 인간적으로 살아야

혜정 스님의 가르침

불교는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종교입니다. 대신 인간을 중심으로 마음을 닦아 깨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얼마 안돼 신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인도는 밤하늘의 별 만큼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또 당시 인도 국민들은 신들을 절대시해, 신과 인간과 관계는 철저한 종속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신의 계시에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숙명적으로 정착된 때였습니다. 그 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신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교에도 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엄경〉을 비롯해 여러 경전에도 나오는 신은 일종의 마음의 변형입니다. 즉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자립적이고 존재적인 신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불교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종교라면 인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중구조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요 또 다른 하나는 마음입니다. 육신은 사대(四大:地, 水, 火, 風)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환원됩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지만 가짜 나인 가아(假我)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나입니까. 가짜 나와 상대되는 것,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마음을 찾아서 깨친다고 했는데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마음을 어떻게 접근해 깨칩니까.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자기 마음 깨친 정신적 대 혁명가

그래서 고인(古人)들이 마음으로 마음을 찾으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비유컨대 물은 모든 것을 씻지만 물 자체는 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찾을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여기서 다른 학문이나 진리추구와는 다른 방법이 대두됩니다. 말도 문자도 생각도 일체 접근을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관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3000년 전 직관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조사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 것, 중국에 와서 달마대사가 재창조한 것이 바로 간화선입니다.

간화선이라는 것은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두는 뭐냐, 의심덩어리입니다. 이 의심덩어리를 깨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깨치는 근본자리입니다.

화두는 양미간에 든다고 했습니다. 어느 노스님은 화두를 들면 산을 보되 산이 아니요 물을 보되 물이 아니요, 행하되 행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몸과 마음을 통해 오직 의심덩어리 하나만 끝까지 쉬지 말고 정진해야만 깨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두도 깨치기 전까지 공부하는 방법론이지 궁극에 가면 망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버려야합니다. 무심한 경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심한 경지란 허공 같아서 막힘도 없고 거리낄 것도 없고, 목석과 같아 움직임도 없고 흔들림도 없는 것입니다.

버리는 경계를 무심이라고 했습니다. 무심한 경계에 도달하면 그것이 깨치는 것이고 우리의 구경처입니까. 아닙니다. 물이 흘러가다 멈추면 썩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한 경지에 안주해 이것이다 하고 주저앉게 되면, 비유컨대 깊은 귀신굴에 떨어져서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명을 바쳐 진일보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목숨을 바쳐 한걸음 더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요 깨치는 구경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 어느 외도가 와서 "아주 훌륭한 성자라고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괴로우니 한 말씀 해 주십시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그 외도가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말하고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설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인연이나 근기가 마주치면 가능한 일입니다.

화두를 들고 끝까지 정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화두를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신심을 견지하고 꾸준히 정진하면 구경에 도달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먼 길이요, 고달픈 길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막막한 사막을 걸어야만 합니다. 걸어가다 보면 회오리바람을 만나 세상을 떠날 수 있고, 독충이나 맹수를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으며, 작열하는 태양에 일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문의 본분은 수행입니다. 수행을 위해 집과 가족, 모든 것을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바쳐 한 번 해보는 것입니다.



혜정 스님은 "불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부처란 무엇이냐. 부처는 최고의 인격경지를 수행을 통해 체득한 사람, 생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한 사람, 모든 고통을 여의고 고통 없는 세계를 체득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마음을 깨쳐서 된 정신적인 대 혁명가입니다. 즉 부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지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나무는 아래서 위로 자랐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렀습니다. 지금도 나무는 위로 자라고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인간이 부처가 됐다는 것, 마음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깨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삼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합니다.

요즘 위빠사나를 한다 요가를 한다 그럽니다. 안되니까, 답답하니까, 세월은 자꾸 가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으니까 방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신심을 굳건히 해서 원력을 세운 다음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불교는 신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4〉



미녀들이 기다리는 천국

덴마크의 한 일간지가 지난 해 9월30일부터 '무하마드'라는 제목으로 12컷의 풍자만화(카툰)를 옴니버스식으로 게재하였습니다. 만화가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느낀 무하마드(마호메드)를 한 컷의 만화로 그려낸 것입니다. 이 카툰 중에는 구름 위에 서 있는 무하마드가 자살폭탄 테러로 숨져 하늘로 온 지하드 용사들에게 두 팔을 저으며 "그만, 그만. 이제 처녀가 다 떨어졌단 말이야"라고 말하는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주간조선 1892호).

당연히 무슬림들의 반발을 샀고 '표현의 자유'를 이해 못하는 '무지하고 완고한 무슬림'들에게 유럽의 언론들은 연쇄적이고 지속적으로 풍자만화를 실음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을 더욱 상처 내었습니다. 이슬람국가들에서는 해당 유럽국가의 공관에 물리적인 공격과 시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고 국기를 불태우는 등의 심한 저항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천국의 미녀를 탐내어서 종교 행위에 열심인 광신도를 풍자한 내용을 보면서 부처님의 이복동생인 난타가 생각났습니다. 고향을 방문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려다 부처님이 발우를 받아들지 않자 엉겁결에 절까지 따라왔고 그 날 강제로 출가를 '당했던' 난타 말입니다.

부처님 눈치가 보여 수행의 흉내는 내고 있지만 그의 귓가에는 '내 화장이 마르기 전까지는 돌아오라'는 아내의 음성이 쟁쟁하였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아내의 모습이 어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도망치려고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붙잡혀왔습니다.

그런 난타의 마음을 진작 알고 있던 부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라는 곳은 선업을 지은 이들이 그 과보로 올라가 더할 수 없는 쾌락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공간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난타는 자기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녀들이 그가 수행을 하여 하루라도 빨리 하늘에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미인들이라….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빼어난 하늘 여인들의 자태에 넋이 나간 난타에게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네 고향집에서 널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이 여인들을 비교해보렴. 네가 조금만 수행에 정진하면 이 천국의 여인들이 모두 네 품에 안길 텐데 그래도 수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느냐?"

난타는 도리질하였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달콤한 과보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후 난타는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참선도 하고 선업도 지었습니다. 밤낮없이 용맹정진하는 난타를 보고 도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난타를 좀 봐. 저 자는 하늘의 미인들을 차지하려고 수행하고 있어. 그는 절대로 참다운 수행자가 될 수 없어."

온화한 성품의 아난조차도 이런 난타의 모습에 매우 신랄하게 비난하였습니다.

"난타의 행동은 마치 숫양이 싸우려고 앞으로 나섰다가 몇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잡보장경 8권)

도반들의 수군거림과 존경하는 이들의 차디찬 응대는 난타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요히 나무 아래에 앉아 진정한 수행에 들어섰습니다. 고향의 아내를 그리워하던 자신의 마음도 냉정하게 돌이켜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들의 비웃음에 성자가 된 난타와 무슬림들의 폭력 부른 풍자만화의 차이점은?

'나는 진정 그녀의 무엇을 그리도 그리워하였는가.'

그는 마음속에서 탐욕을 덜어냈습니다. 분노를 덜어내고 마침내 어리석음의 더께마저 깨끗하게 털어버렸습니다. 그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의 교리에 의거해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행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그 천국의 행복이란 것이 결코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누리는 한없는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서구 일간지들은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무슬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풍자만화를 실어 일부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행위를 비웃었습니다. 자살폭탄테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를 비난하려면 왜 그런 테러행위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비웃음이 어떤 경우는 그를 성자로 완성시켰고 다른 경우는 더욱 거센 반발과 물리적인 폭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체 어떤 차이가 바탕에 숨어 있을까요?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밀납양초 (Bee's Candle)

2006年 新製品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 전문 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있는 양초의 형사용, 기도용 주문제조 판매)

양초가 연소되면서 나는 향만이 천연 향 입니다.
국내외에서는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등이 있습니다.

그을음 걱정은 이제 그만!!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되는 그을음 내음새를 한번에 해결한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천연약쑥향 양초의 특징

① 일반양초보다 연소시간이 40%이상 길어진다.
② 실내에 배어있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③ 천연쑥향이 양초가 연소되면서 은은히 실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머리를 맑게하여 진취적 사고를 솟아나게 합니다.
천연약쑥향 양초 (발명특허 122357호)
국내 산천에 자생하는 약쑥에서 추출한 향이 첨가된 발명품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1호 5.9㎝ × 18cm 연소시간 約 72시간 以上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3호 4.7㎝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以上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4호 4.7㎝ ×9.5cm 연소시간 約 24시간 以上
- 금강경 7개 세트 5.9㎝ ×19.5cm 연소시간 約 80시간 以上
- 약쑥향양초 1호(돈타대) 5.6㎝ × 27cm 연소시간 約 100시간 以上
- 약쑥향양초 2호(밀대) 4.6㎝ × 25cm 연소시간 約 40시간 以上
- 금강반야바라밀경찬 5.9㎝ × 19cm 연소시간 約 80시간 以上



※ 팩스로 주소 보내주시면 견본이나 팜플렛 보내드리겠습니다

밀납초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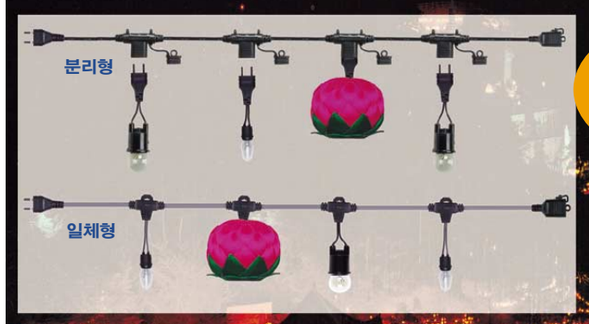
① 그을음이 없습니다.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보다 2배이상 길어집니다.
③ 연소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을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여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시고 기도하실때는 반드시 밀납양초를 이용합시다.

- 1호 5.9㎝ × 18cm 연소시간 約 72시간 以上
- 2호 5.9㎝ × 13cm 연소시간 約 50시간 以上
- 3호 4.7㎝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以上
- 4호 4.7㎝ × 9.5cm 연소시간 約 24시간 以上
- 밀납초 받침대 1호 ~ 4호까지 사용
- pc컵초 7시간 以上
- 선물용 세트 (1 ~ 4호 밀납초 받침대)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 (정품)
- 볼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컬라멘트가 6배 (특 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견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초의선사, 조주다풍 이은것 아니다”

‘옛선인다회’ 강우석 회장

‘<다신전>과 초의선사…’ 논문서 주장



조선 말기 제작된 작자 미상의 초의선사 영정. 공인박물관 소장.

초의선사 다풍은?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흥조로 불리는 초의 선사(1786~1866).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초의 선사의 다풍(茶風)은 흔히 ‘끽다거(喫茶去)’로 대표되는 ‘조주다풍’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초의 선사는 조주다풍이 아닌 초의다풍을 세웠고, <다신전(茶神傳)>을 통해 이를 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옛선인다회를 이끌고 있는 강우석 회장은 최근 본사에 ‘<다신전>과 초의 선사의 차문화 중흥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보내왔다. 이 논문에서 강 회장은 “우리나라의 다풍은 <다신전> 이래 잎차 중심의 초의다풍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가루차와 덩이차를 중심으로 하는 조주다풍과는 맥을 달리 한다”고 말한다.



▷ 다신전이란?

<다신전>은 조선후기 초의 선사가 청나라 모환문(毛煥文)이 쓴 <만보전서(萬寶全書)>의 ‘다경채요(茶經採要)’를 등초한 것으로, 1830년 정서를 마치고 세상에 선보인 고전다서다. 이때 초의선사가 등초한 ‘다경채요’는 명나라 장원(張源)의 <다록(茶錄)>을 필사한 것이니, <다신전>의 실질적 원전은 <다록>이라 할 수 있다. 초의 선사가 일지암에서 직접 정서했다는 친필본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를 다시 필사한 것으로 추측되는 다예관본(태평양화학 다예관 소장), 법진본(전남 담양 수진 스님 소장), 이일우본(이일우 소장), 송광사본(송광사 소장), 경암본(다문화연구소 소장) 등 몇 가지 필사본들이 전하고 있다.

<다신전>은 본문 1420여자, 발문 98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를 따고 만들고 마시는 등 차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장원의 <다록>에 전하는 ‘분다합(分茶盒)’ 부분을 생략했으며 초의 선사가 직접 쓴 발문(跋文)이 붙어 있는 것이 원본과 다른 점이다.

▷ 다신전 발문에는 어떤 내용이?

강우석 회장은 “그동안 초의 선사가 직접 지은 <동다송>과는 달리 다른 다서를 옮겨 적은 책이라는 점에서 <다신전>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다신전>의 발문을 보면 초의선사가 차문화 중흥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차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초의 선사가 ‘참선을 못할 지경에서도 화롯불을 곁에 두고 정서를 계속했다(庚寅中春 休菴病禪 雪窓擁爐 謹書)’는 기록은 차문화 중흥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강 회장은 초의 선사가 발문을 통해 시대적 다풍에 맞는 올바른 다도를 정립하고자 했다는 데 주목한다. ‘총림에 조주의 다풍을 흉내를 내는 자가 있을 지라도 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叢林或有趙州風 而盡不知茶道)’는 대목은 당시 불가(佛家)에서는 ‘끽다거’로 대표되는 당나라 조주종심 선사(778~897)의 다풍이 널리 퍼져있었음에도 ‘조주다풍’의 정확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초의 선사 당시에는 말차 중심적이고 비가시적(非可視的)·비다구적(非茶具的)·사상적(思想的)인 조주다풍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나라의 차문화에 어울리는 다도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잎차 문화를 중심으로 한 명대에 쓰여진 <다록>을 필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강 회장은 “초의 선사가 <다신전>의 마지막 장에서 ‘다위(장원의 <다록>에서는 다도로 기록)’라고 정의한 것이 바로 초의선사의 차정신을 함축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초의다풍’이다”고 말한다. 이 같은 초의다풍은 잎차 중심의 가시적(可視的)·다구적(茶具的)·물질적(物質的) 다풍이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다풍의 골격을 이룬다고 강 회장은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조주의 다풍 흉내 내는 자 있어도 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
> ‘다신전’ 발문, 다도정립 의지 보여
> 잎차 중심 가시적·다구적 다풍 형성

도예가 김정옥씨 독일 전시



중요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 김정옥씨(사진 · 영남요 대표)가 3월 3일까지 독일 베를린 한국대사관 문화홍보관 갤러리에서 ‘대한민국 도예전’을 열고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다.

주독한국대사관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다기와 청화백자 등 대표작 6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경북 문경에서 7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김씨는 1991년 대한민국 도예명장에, 1996년 중요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으로 지정됐다.

最古 차나무, 도기념물 지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나무로 꼽히는 경남 하동 정금리 도심다원(대표 오시영) 내 차나무가 경남도기념물 제264호로 지정됐다.

화개면 도심마을 회강이골 해발 200m 산중턱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차나무 단지에 생육하고 있는 이 차나무의 높이는 4.2m이고 지표면 부분의 나무둘레는 57㎝, 수관폭은 5.6cm로 국내 차나무 중 가장 크다. 현재 수령은 1천여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瑞榮普洱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7. 보이차 속 인자보이차

보이차가 오늘날까지 신드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인자보이차(印字普洱茶)의 공이 절대적이다. ‘인자(印字)’란 보이차 겉 포장지에 글자를 인쇄했다는 뜻이다.

사실 앞서 출하됐던 골동보이차에는 포장지 자체가 없었다.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진 골동보이차는 보이원차(普洱圓茶)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찻잎을 증기로 가공할 때 차상점들이 자신들의 상호와 제품에 관한 내용을 작은 종이에 새겨 찻잎과 함께 압제하였으며, 이러한 종이를 가리켜 ‘내비(內飛)’라고 한다.

제품포장을 보면 죽통으로 싼 7편의 푸얼원차에는 포장지가 없었고, 다만 7편의 푸얼원차를 죽순으로 마무리 포장할 때 상호를 가리키는 도안 및 문구를 인쇄한 큰 종이 곧 ‘내표(內票)’를 7편 중 최상단의 원차 위에 깔아 출하한 것이 이들 개인 차상점들의 공통된 포장법이다.

내비와 내표는 모두 차상점의 선전물로 사용됐으며 때로는 차의 진위를 살피는 징표로 이용되기도 했다.

보이차를 포장지로 싸기 시작한 것은 1952년 때부터이며, 중국이 공산화된 후 3년만의 일이다.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 대신에 재산의 공유를 실현시킴으로써 계급 없는 평등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중국공산당정부는 차를 관장하는 각 지방의 국영회사의 이름을 바꾸는 동시에 중국차를 대표할 수 있는 심벌마크를 정하기에 이르렀다.

1950년 보이차를 관장하는 회사는 중국차엽공사운남성공사(中國茶葉公司雲南省公司)로 개명되었고, 이듬해인 1951년 조승후(趙承煦)라는 사람이 설계한 도안인 ‘팔중차(八中茶)’가 중국 내의 모든 차상품의 공식로고로 등재된다. 상표 등록된 이 도안은 8개의 붉은 ‘중(中)’자로 둥글 원을 만들고 그 중앙에 녹색 ‘차(茶)’자를 새긴 마크로 되어있다. 여기서의 ‘중’자는 중국을 말하고, ‘팔(八)’이란 발(發)의 음을 빌려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색상에 있어 ‘중’자를 붉은 색으로 택한 것은 공산당의 상징적 빛깔과 길상(吉祥)이라는 뜻을 내포되어 있고, ‘차’자를 녹색으로 쓴 것은 찻잎의 원색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팔중차’로고가 탄생된 후 보이차는 모두 개별 포장되어 출하됐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개인 차상점곧 무포장지 보이차 제품의 근거지가 이무(易武)였다면 공산화 이후 국영업체의 포장지 있는 보이차 제품의 중심지는 맹해(勐海)였다는 점이다.

인자를 대표하는 보이차로는 홍인(紅印), 녹인(綠印), 황인(黃印) 등 제품이 있다. 이러한 명칭은 출시 때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후일 시장상인들에 의해 붙여진 상품이름이다. 그냥 보이원차로 출하됐던 차를 어째서 색깔로 새로이 분류되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일까? 그 연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쇄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中 공산화 이후 ‘팔중차’로고 붙여 포장

인자급도 인쇄지 · 글자체 따라 맛 달라

5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생산되었던 인자급 보이차의 포장지에는 사실 2가지 색상밖에 없다. 팔중차 로고 중 ‘차(茶)’자만 녹색으로 될 뿐 남은 글자는 모두 붉은 색으로 인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출하된 보이원차 상품에서 ‘차’자를 비롯해 포장지 전체를 붉은 색으로 인쇄했던 것은 당시의 낙후된 인쇄기술과 작업자의 나태한 자세에서 비롯된 합작물이다. 이러한 잘못된 포장지의 인쇄는 몇 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때의 상품을 후일 ‘홍인’이라 명하게 된다. 이후 포장지의 ‘차’자를 원안대로 녹색으로 인쇄하게 되는데, 이 제품을 ‘녹인’이라 불렀고, 이어 잉크 배합비율의 실수로 인해 ‘차’자가 노란색을 띈 것을 ‘황인’이라 했다. 그리고 홍콩의 상인들이 붙인 ‘녹인’이라는 이름이 타이완 사람에게 건너가 ‘남인(藍印)’으로 불리어 또 한 차례 변신하게 된다.

홍인과 녹인의 차맛은 다르다. 이는 인쇄지와 글씨체의 형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찻잎은 농작물이기에 해마다 품질이 같을 수가 없고 찻잎의 원료와 배합비율에서 생긴 차이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한서대학교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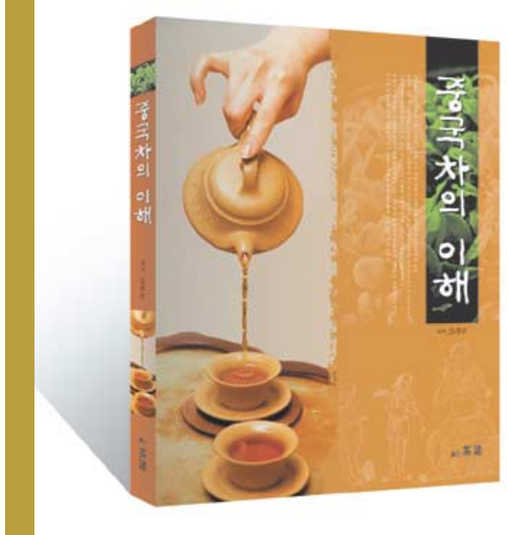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중국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사호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컬러(183×235), 288페이지
가격 : 24,000원
저자 : 김경우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

효소 식품 혈액 속 독소 빼주고 세포 대사기능 높이고 건강에 딱!

웰빙 바람을 타고 각종 건강보조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케이블 TV에서는 연일 건강보조식품 홈쇼핑 광고가 방영된다. 이 같은 건강보조식품 시장에서 조금씩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효소식품'이다. 많은 사람들에겐 아직 낯선 이름이지만 과일이나 채소, 곡류를 발효·숙성시킨 효소는 오랜 세월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식품이다. 효소식품이란 무엇이고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본다.

과일 · 채소 · 들풀 발효 숙성
만들기 쉽고 무기질 등 풍부
물 타 먹거나 환부에 바르기도

▷ 효소식품의 효능

효소식품은 발효와 숙성과정을 통해 각종 생리활성물질과 영양소를 생성시키고 유익한 균을 증식시키는 등 효소(酵素, enzyme)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식품을 말한다.

효소란 생명체 내 화학반응의 촉매가 되는 여러 가지 미생물로부터 생기는 유기화합물이다. 동물, 식물 등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는 여러 종류의 효소가 있으며, 이러한 효소는 생명체의 화학적 반응에 관여한다.

예를 들어 손을 베었을 때 상처를 통해 병균이 침입하는데, 이때 체내의 효소가 모여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 출혈을 막고 세포를 만드는 작용을 한다. 이처럼 우리 몸속에서는 2000가지 이상의 효소가 약 300만 건의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곡류와 채소 등에 들어 있는 효소를 활성화시킨 것을 '효소식품'이라고 부른다. 효소식품은 소화흡수를 돕고 혈액 속의 독소와 이물질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다. 또한 세포의 대사기능을 활성화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반 현미효소가 처음 개발된 이래 어성초, 삼백초, 율무, 알로에 등 각종 곡류와 채소 등을 이용한 효소식품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 효소식품 종류와 제조법

효소식품 종류에는 곡류를 주원료(60% 이상)로 가공한 곡류 효소식품, 곡물의 배아를 주원료(40% 이상)로 하여 가공한 배아효소식품, 과 · 채류를 주원료(60% 이상)로 하여 가공한 과 · 채류효소식품, 그 외의 다른 재료를 가공한 기타효소식품 등이 있다. 최근에는 산야초를 이용한 효소식품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효소식품의 제조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효소를 만들고자 하는 원재료를 세척해 천연의 균을 제거한 후 흑설탕이나 단백질 분해효소의 생산능력이 높은 종균을 첨가해 배양시켜 만든다. 보통 원재료와 흑설탕을 1:1의 비율로 항아리에 넣은 다음 넓적한 돌을 눌러 한지로 덮는다. 이때 한지에 바늘로 공기구멍을 2~3개쯤 내야 한다.

발효기간은 여름철에는 일주일 정도, 겨울은 2주 정도 걸린다. 이때 항아리가 깨끗이 소독되지 않거나 재료에 미생물이 남아 있으면 발효되지 않고 부패하거나 알코올이 되기도 한다.

항아리에서 발효되는 소리가 그치고 나면 액체만 따라 서늘한 곳에 두고 100일 정도 숙성시킨다. 흔히 한 가지 재료만으로 만들기보다 다양한 종류의 야채나 산야초를 섞어 만드는데, 수십 종의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 야채효소는 수백 종의 효소가 복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활성도가 높다.

이렇게 완성된 효소 원액은 4~5배 정도의 물을 타서 마시거나 환부에 직접 바르기도 한다.

▷ 효소 집에서 만들기

◆ 야채효소

야채나 들풀은 모두 효소식품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배추나 무 등 수분함량이 너무 많은 것은 원료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흔히 케일, 신선초, 당근, 시금치, 미나리, 달래, 냉이, 더덕, 도라지 등 구하기 쉬운 재료를 많이 사용한다. 이때 재료는 농약이나 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 원료로 사용할 야채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털고 그늘에 널어 물기를 말린 후 2~3cm 길이로 잘라 골고루 섞는다.
2. 준비한 야채의 무게만큼 흑설탕을 야채와 섞어 항아리에 넣어 눌러 다진 후 넓적한 돌을 끓는 물에 소독해 눌러 놓는다.
3. 단지 위를 한지로 덮어 고무줄로 묶은 후 바늘구멍을 몇 개 낸다.
4. 48시간 정도 후부터 발효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2주 정도 후 망에 걸러 액체만 항아리에 담아 서늘한 곳에서 100일 정도 숙성시킨다.

◆ 산야초효소

산야초에는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각종 비타민과 효소, 무기질, 섬유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땅두릅, 엄나무, 오미자, 솔잎, 참나물, 칡, 민들레 등 산과 들에서 나는 초목들 중 독이 없는 재료는 어떤 것이라도 효소로 만들 수 있다.

1. 채취한 산야초를 깨끗이 씻어 채반에 건져 햇볕에서 물기를 말린다.
2. 물기를 말린 산야초는 10~15cm 정도로 잘라 같은 무게만큼의 흑설탕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3. 항아리를 한지나 광목으로 봉한 뒤 서늘한 곳에 두었다가 2~3개월 뒤 걸러내 액체만 다시 항아리에 담는다. 이때 보통 1개월에 한 번씩 내용물을 뒤집어 준다.
4. 걸러낸 액체는 9개월 정도 숙성시킨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8〉

구수함의 백미-곤드레밥, 나물, 된장국

'곤드레'를 아시나요? 한두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직접 먹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곤드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곤드레란 엉겅퀴나물을 말린 것을 말합니다. 국으로도 끓여 먹고, 밥에 넣어 먹을 수도 있고, 나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빈궁기에 구황식품으로 먹던 곤드레가 요즘은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식이섬유 뿐 아니라 비타민, 칼슘, 단백질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강원도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갔을 때 시골집 대청마루에서 말려지고 있는 곤드레를 처음 봤습니다. 곤드레란 것을 처음 본 저는 '참 이상한 이름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난 다음날 새벽, 가까운 절에 약수를 뜨러 갔습니다. 그 절 역시 강원도 지역 특징 때문인지 곤드레로 만든 차로 나그네의 목을 축여주었습니다. 그 맛에 반한 전 이후 곤드레 너무나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찰음식 책을 기획하면서도 곤드레의 맛에 푹 빠져버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책을 만들기 위해 모인 스타일리스트와 사진 감독 그리고 함께한 교수님까지도 모두 이 곤드레 밥맛에 빠졌을 정도였으니까요. 미리 지어놓은 밥에 곤드레 나물을 넣어 쓱쓱 비벼 먹던 그 맛. 우리는 모두 촬영을 뒤로한 채 곤드레밥 삼매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저 나물 한 가지일 뿐인데, 어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제 부족한 표현력으로 곤드레의 구수함을 다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곤드레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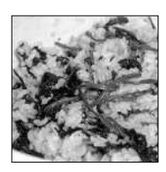
■만드는 법

〈곤드레 나물〉 재료: 불린 곤드레 1줌, 다진 대파 1 작은술, 참기름, 통깨, 양념장(된장 1큰술, 청국장 가루 1/2작은 술, 고추장)



① 불린 곤드레를 뜨거운 물에 데쳐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짠다. ②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들다. ③ 불린 곤드레를 양념장으로 무친 후 참기름과 다진 대파, 통깨를 넣어 마무리 한다.

〈곤드레 밥〉 재료: 곤드레 나물 1줌, 갓 지은 밥 1컵, 무생채 약간, 참기름



① 갓 지은 밥에 곤드레 나물과 참기름을 넣고 비벼준다. ② 밥공기에 담아 무생채를 고명으로 올려 완성한다.

〈곤드레 된장국〉 재료: 불린 곤드레 1줌, 채수 2컵, 된장 1큰술, 표고버섯가루, 산초가루, 죽염



① 불린 곤드레는 뜨거운 물에 데쳐 물기를 뺀 후 된장으로 무친다. ② 끓인 채수에 양념한 곤드레와 표고버섯가루, 죽염을 넣어 한번 끓여준다. ③ 불을 끄기 전 산초가루를 넣어 마무리한다.

▶다음 주에는 도토리 수제비와 선인죽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불가무술(태극선공)선요가.수련생.모집

무공이라함은 동작 의식호흡의 절묘한조화가 어우러지고 동중정의 경계를 행함이 있어야 진정한 무공수행이라 생각하는 수좌입니다. 6세에 출가해서 36년간 수행도중 부족하지만 수행체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울러 충분한 수행도량이 되도록 3만6천평의 연화지에 수행전문관 법당 길이(64미터)내공정진동굴(84미터)대웅전 요사채 자연산행수행터 등을 마련했습니다. 부디 진정한 각성을 여시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합니다. 관심있는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수행시간표 불가무술(태극선공)선요가 연화심관법

새벽 3시기상	예불
새벽 4시	좌선(연화기공 : 관법수행)
아침 7시	공양
아침 9시	불교예절교육; 초발심자경문 강의
10시	태극선공(외공;내공수련)
12시	점심공양
휴 식	
오후 2시	연화심관법(심수심법의 통찰수행의실체)
오후 3시	도량정비 : 울력(일체대중동참)
오후 4시30분	차담(수행도중일어나는현상토론)
오후 5시	저녁예불
오후 6시	저녁공양
오후 7시30분	연화기공 수행
오후 9시	저녁점검 취침 및 개인수행

●수련보시금 : 1일 2만원, 7일10만원, 한달 40만원 숙식제공

(부전스님 2명, 공양주보살 1명 모십니다)

●장 소 : 경기도 평택시.진위면 동천 1리 산651번지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동선종. 경기도 총괄본찰 대각정사

주지 정관 합장

문의처010-9508-6330/종무소031)663-9066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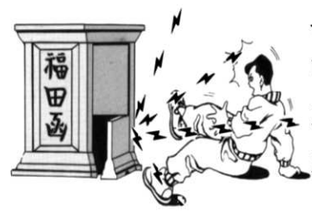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011-467-1472


그림 1-1


그림 1-2

불화 속의 명장면 (4)

日 교토 고려미술관 소장 '치성광여래강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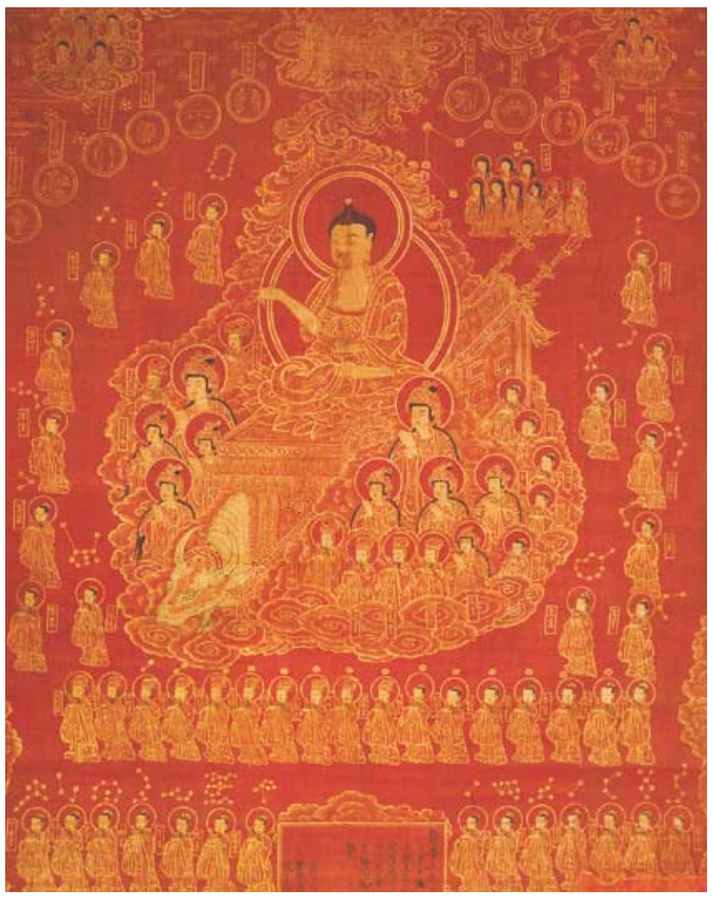
별자리에 담긴 불변의 진리 표현

밤하늘을 마지막으로 올려다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철야로 켜져 있는 빌딩 숲의 불빛, 네온사인으로 불야성을 이루는 거리거리들. 잠들지 않는 대도시 속에 살며, 우리는 바로 머리 위에 드리운 커다란 하늘의 존재를 잊은 지 오래인 듯 합니다. 하늘의 달빛과 별빛의 청명한 신비로움과는 멀어진 지 오래인 듯 합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치성광여래강림도'는 천상의 모든 별자리를 한 폭의 불화에 가득 옮겨놓은 매우 이채로운 작품입니다. 작품의 주존불인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는 조금은 생소한 명칭의 부처님 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칠성각에 모셔진 부처님이 바로 치성광여래이고 또 칠성탱화의 주존불이기도 하십니다.

칠성각의 부처로 '북극성' 의미하며 천자와 동일

28성수신, 도교 신앙 불교와 결합된 것으로 판단



치성광여래강림도(熾盛光如來降臨圖). 조선전기(1569년) 作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소장.
그림1-1: 황도12궁 중 좌측 6궁. 그림1-2: 황도12궁 중 우측 6궁. 그림2: 북두칠성과 칠성신. 그림3: 가장 외곽의 28수 성수신 중 부분.

치성광여래의 정체는 바로 하늘의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별로, 방위의 지침이 되고 또 무수한 별자리의 기준이 되는 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북극성은 절대불변의 진리, 우주의 중심 등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천계의 중심에 대응하는 지상계의 중심으로 천자와 동일시되어, 그 신격화의 유구하고도 다양한 종교적 천문학적 전통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불교에서 이 북극성은, 본 작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치성광여래로 신성시되어 숭배됩니다.

조선후기 사찰의 거의 전국적 분포를 보이는 칠성각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북극전 또는 북극보전(北極寶殿) 등의 현판이 확인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답니다. 본도의 치성광여래 좌우로는 해와 달에 해당하는 일광(日光)보살과 월광(月光)보살, 그 주변으로는 북두칠성에 대응하는 칠성보살, 또 그 주변으로는 오성(五星) 등이 주존을 보좌하며 중심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심군을 한 번 더 외곽에서 둘러 협시하는 것은 28수에 해당하는 28성수신(星宿神, 그림3)입니다. 이 성수신의 머리 위에는 해당 별자리가 그려져 있고, 이들은 도교의 성군(星君)의 복장인 조복에 홀(笏)을 들고 있어, 도교적 성수신앙이 불교와 습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치성광여래가 천공의 모든 다양한 별자리를 거느리고 지상으로 왕림해 내려오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기에 '치성광여래제성강림도(熾盛光如來諸星降臨圖)'라고도 부릅니다.

작품의 가장 윗부분에는 좌우 6개의 원안에 12궁(그림1)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래 바빌로니아에 그 기원을 두는 그리스의 황도 12궁체계가 동점되어 중국으로 전파된 것인데, 본래 서양 전래의 별자리 도상이


그림 2

12궁 통해 별자리 조선 전파 역사적 상관성 보여줘

신앙적 기능 등 우리만의 불화장르 칠성탱의 모태

참으로 긴 세월 동안 그대로 유전되어 중국을 거쳐 결국 조선전기 16세기 작품(1569년)인 본 그림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상과 그 성립 전거에 있어서의 필연적 상관성과 역사적 유구성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본존불의 바로 우측에는 북두칠성의 별자리와 함께 칠성신(보성과 필성을 더해 합 9성, 그림2)이 따로 강조되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북두칠성의 존재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 쉽게 찾을 수 있어 예로부터 항로나 육로 여행자들의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했고, 또 그 위치변화는 사계절을 알려주는 지표였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칠성여래로 신격화되어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서 '대중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본도 '치성광여래강림도'에 나타나는 북두칠성신은 조선전기 어느 시점부터 그 대중적 인기와 더불어 '여래형'으로 승격하여, 특히 조선후기에는 칠성불 또는 칠성여래로, 민간과 가장 친근한 부처님 중 한 분으로 대대적으로 유행합니다.

이러한 칠성여래의 강조 현상과 더불어 조금은 부르기 어려운 '치성광여래도'라는 명칭에서 '칠성탱'으로의 전이가 옵니다. 또 치성광여래와 칠성여래의 신앙적 기능은 충첩되고 서로 보완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치성광여래강림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불화장르인 칠성탱화의 모태가 되는 귀중한 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치성광여래소제일체재다라니경>(약칭, 고려대장경 권34-95)에는 '별자리의 운행(또는 천체의 운행)에 의해 생겨나는 지상의 일체의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단을 세우고 이 치성광법 다라니를 독송하면 일체의 재난이 소멸된다'라고 쓰여 있어 그 신앙적 기능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수의 변화에 의해 지상의 변화가 야기되고, 또 개인 및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운명속성설' 또는 '생명속성설'은, 본래 하늘과 땅이 서로 감응하여 움직인다는 '천인감응설'에 그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은 천공의 별들의 운행으로 점쳐지기도 했고,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은 하늘과 땅을 잇는 군주의 부도덕한 소치로 읽혀지기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요.


그림 3

'천지가 합일하고 일월이 빛나며/ 사계절이 순서에 따라 찾아오고/ 별들이 운행하고/ 강물이 흐르고/ 만물이 창성하고/ 좋아하고 싫어함에 절도가 있고/ 즐거움과 성냄이 합당함을 얻게 되고/ 그리하여 백성된 사람은 순종하고/ 왕이 된 사람은 명철해 진다.'

사마천의 사기 <예서>의 한 구절은 이 천인감응설을 매우 유려하고도 명료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의 앞에는, 말하자면, '體(내용 · 본질)와 用(형식 · 수식)을 겸비한 예(禮)가 갖추어 지면'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즉, 지상의 예제(풍속과 제도)가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와 하늘의 뜻에 부합하여 잘 운영되었을 때 저절로 얻어지는 지상의 아름다운 평화를 읊은 것입니다. 고전들을 살펴보면 옛 사람들은 현대인보다 하늘에 훨씬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털 오만하고, 천체의 운행에 다시 한번 하늘의 뜻을 가늠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지는 기회를 가졌던 것은 아닐까요?

특히 조선후기에는 다양한 별자리신 중에서도 가장 민간에 친숙했던 칠성여래가, 그 많은 신앙적 기능 중에서도 생명을 주관하는 '수명 연장의 신'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어 숭배되어 졌습니다. 여기 소개한 치성광여래강림도는 우리에게 친숙한 칠성탱의 연원적 유래를 보이는 작품입니다. 칠성탱은 반드시 치성광여래를 주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식 학술적 명칭은 치성광여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오늘날에도 이 칠성각에서 기도되는 수많은 염원들, 지병을 낫게 해달라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는, 아이를 점지해 달라는, 재난을 소멸케 해달라는, 공부에 진보가 있게 해달라는, 제짝을 만나게 해달라는 등의 이 지상의 갖가지 간절한 소원들이, 불화 속에 왕림한 별자리 부처님을 통해 하늘에 가 닿기를 기원해봅니다.

강소연(홍익대학교 겸임교수)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30-0705


●보상사 부처님 치아사리

유람선으로 출발하는

중국 산동성 성지 순례 5박 6일

여행경비 : ₩ 450,000원 (화동페리 이용)

북경 사찰 순례및 관광 7일 (유람선 이용 금요일 출발)
₩450000원 (가이드 기사 팁 포함, 비자, TAX 별도)

여행조건

1. 국제선박료, 현지 차량, 입장료, 식사비, 중국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사 팁 등 제 비용 포함(개인 경비만 제외)
2. 선내 2박은 다인실 기준, 현지 호텔은 2인 1실 기준
3. 출발은 10명이상 가능
4. 10명이상 단체는 타 페리 이용 출발요일 변경 가능하니 문의 요망



일 자	도 시 명	교 통 편	순 례 일 정
제1일	인 천 석 도	화동페리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17시 승선, 인천항 출발, 선내 휴식
제2일	청 주 치 박	전용버스	08시 석도항 도착 / 입국 수속 후 청주로 이동 불교 문화 유산이 잘 보관된 "청주 박물관" 관람 "타산석굴" 참배후 치박으로 이동 호텔 휴식
제3일	치 박 제 남 태 산	전용버스	제남으로 이동 명대 4대 사찰인 "영암사" 순례 후 태안으로 이동 고려조 만공대사께서 창건하신 "보조사" 순례 케블카 이용 태산 등정 후 호텔 휴식
제4일	태 산 제 남 유 방	전용버스	석가모니 부처님의 佛齒를 모신 "보상사" 순례 제남 경유 유방으로 이동 양가부 민속촌 관람 → 호텔 휴식
제5일	유 방 석 도	전용버스 화동페리	석도로 이동 장보고 대사께서 창건한 "적산법화원" 순례 석도항으로 이동 출국 수속 및 승선 18시 출항, 선내 자유시간 및 휴식
제6일	인 천		09시 인천 도착 입국 수속 후 해산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제567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3월 1일(음력 2월 2일) 수요일

그대로 묵묵히 한발 한발 걸어가세요!

오늘 날씨가 따뜻한 거 보니까 개구리 입이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허허허…. 여러분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좋죠? 내 입술에 병이 나서 말을 잘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치과에 가서 이를 뺐더니 이렇게 부어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여러분께서 여직껏 길을 걸어오셨으니까 오늘은 질문과 토론으로 우리 해 보십시다. 질문을 하실 때에 차근차근히 한 건씩 얘기하세요. 범벅을 해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질문자1(남):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법문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윤회 사상에 대하여 스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인생의 생사 변이가 윤회이며, 우주의 물리적 변화가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변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도윤회의 깊은 도리를 우매한 중생이 믿지 못하므로, 옛 조사님들은 경전이 아니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이 아니면 이 말씀을 하실 수 없다고 한탄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성암 선사는 「권발보리심(勸發菩提心)」에서 "나는 중생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겁 동안 해탈 못하고 생사에 머물며 인간과 천상, 사바세계와 피안의 세계에 갖가지 모습으로 출몰하고 부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님께 육도윤회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자세하게 법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는 제법무아(諸法無我)라고 합니다. 그럼 제법(諸法)이 무아(無我)라면 어찌 윤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평상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만행(萬行)입니다. 그대로 만행입니다. 만행이 따로 있어서 만행이 아니라, 그대로 만행입니다. 끝없이 이어가는 그 행이, 고정됨이 없이 행하는 그 생활이 즉 만행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만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도만행(六道萬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만행이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육도윤회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육도윤회에 매이지 말라, 끄달리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신 거죠. '끓어라' 그러신 게 아니라 '매이지 말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서 발 하나하나 디뎌 놓는 것도 바로 윤회거늘, 어찌 한 발짝 떼어 놓고 또 한 발짝 떼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쳐서 끄달리고 매이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윤회에 매이지 말라.'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도 얘기를 하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차를 한 잔 주는데 뜨거웠어요. 여기 올라오긴 해야겠고 이거를 빨리 식으라고 젓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다." 즉 "네가, 차걸랑은 데워 먹고 뜨겁걸랑은 식혀 먹어라. 이게 진법(眞法)이다."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항상 육도만행을 하면서 육도윤회를 합니다.

그런데 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사에 의해서만이 윤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좔나좔나 돌아가는 것이 윤회입니다. 화(化)해서 나투면서 좔나좔나 변화되면서 돌아가는 이 만행이 즉, 윤회입니다. 윤회인 까닭에 그 윤회에 매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재차 얘기하지만 '매이지 말라. 끄달리지 말라.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대로 들을 수 있다면 그대로 여여하니라. 그대로 점프해서 넘어가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도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고정됨이 없이 공(空)했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그것이니 매이지 말고 끄달리지 마라.'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공했느니라. 너를 세울 것도 없고 나를 세울 것도 없고, 나를 꼬집어서 내세워서 나라고 할 게 없느니라. 안과 밖이 다 그러니라. 안에도 내 집안의 모든 생명체의 의식들인 내가, 그러니까 사람 속엔 사람이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어떠한 것을 꼬집어서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공하고 없다. 내세울 게 없다. 없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세울 게 없다. 세울 게 없는데 무엇에 매이고 무엇에 끄달릴 게 있느냐? 그러니까 윤회라는 이름조차도 없느니라. 살면서 모두 그 이름을 지어 놓지 않는다면 질서를 문란케 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 놓고 부르느니라.'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셔야 또 그것이 상세하게 돌아가겠으니까, 질문들 잘하셨어요. 별달리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만행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고 사는 것이 윤회라면, 이것 보세요. 아까도 물 얘기 했지만, 뜨거운 거를 억지로 식히려고, 금방 먹기 위해서 막 식히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요. 놔두면 저절로 그냥 식기도 하고, 정히 급하면 찬물에다 띄워서 식혀서 먹어라. 재간대로 해라, 재간대로 하는 반면에 데워서 먹고 식혀서 먹어라. 매사의 일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 아등바등 애쓰지 말고 내 재간껏 식혀 먹고 데워 먹고, 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넉넉히 그냥 놔두면 식어! 때가 되면 그냥 먹게 돼. 급한 거는 빨리 식혀서 먹고, 급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먹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관습에 의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삶에 대해서 어지럽고 괴롭고 그렇지,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괴로울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두 쪽이 나고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불교가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느긋하게 생각하신다면 바다를 삼킬 수 있고, 삼키기만 해서도 아니 되니까 토하기도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바다를 삼킬 수 있고 바다를 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능히 부처이며 능히 법의 보살이며 능히 어느 보살이 아니 되는 게 없고 어느 중생이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틈에서 부처가 나는 것이지 우리들을 떠나서 생활을 떠나서 부처님이 있고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만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불도에 귀의해서 알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심으로써 부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제법이 무아라고 했는데 윤회가 될 수 있겠느냐고 했죠? 무아라는 뜻은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무아가 뭔데요?

▲질문자1(남):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자기 자신조차도 없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우리가 제법이라 하면 일체를 말하고, 이 무아라고 한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없는 그 가운데에 나, 자아(自我)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 되고 그냥 콱 차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아라고 한 것이지 이러한 무아가 없다면 윤회가 어디 있으며, 윤회가 없다면 이러한 무아가 어딨습니까? 눈이 없는데 귀가 어딨고 귀가 없는데 눈이 어딨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육신이 보이지 않아서 무효고, 육체가 없어도 보이지 않으니깐 무효고, 또는 생각을 해내지 못해도 목석이니깐 무효야. 다 갖추어서 생김생김이 잘생기고 잘 행할 수 있는 똑바른 사람이라야 그걸 제법의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그렇단 얘깁니다. 그래서 세상 뜻이 모두가 공해서 좔나좔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경지이기 때문에 제법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없어서 무아가 아니라, 우리 몸뚱이 속에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내세워서 나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모두가 작은 것 큰 것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모든 법칙에 의해서는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법이 무아인데 어찌 윤회가 있겠습니까?' 이런다면 우린 움죽거리지도 말고 목석이 돼야죠. 물도 파도도 없고 흘러가는 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넉넉히 흘러가고 움죽거리고 자동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무아인 것입니다. 허허허….

그리고 참, 아까 어느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댔죠? 피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라고 그랬더라?

▲질문자1(남): 네, 성암 선사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나는 중생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겁 동안 해탈을 못하고 생사에 머물며 인간과 천상, 사바세계와 피안의 세계에 갖가지 모습으로 출몰하고 부침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스님: 그러니까 함이 없이 그 말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생전에, 몸 떨어지기 전에 알아야지 몸 떨어지고 난 뒤에 해탈을 하려면 해탈치 못합니다. 부딪침도 없고 더함도 덜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윤회에 매이지 말고 모든 작을 떠나서 그대로 그대로 해라 이겁니다. 그대로 모두 하고들 계십니다. 그대로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모두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는 도리로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뭐 하나를 생각하면 꼭 붙들고 늘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 장난에 끄달리고 그러니까, 모두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입력이 돼서 바로 그게 악업 선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살아나가면서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듯이 우리는 그 어항 속에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안의 그 언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네 모습이 어떠하든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소리겠죠. 하여튼, 누가 하는 소리든 그냥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마음을 넓게 갖는다면 우주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공기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림 · 최주현

지혜롭고 물리가 터져서 점프를 할 수 있는 능한 마음이 생겨야

일체가 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 윤회라는 것에도 매이지 말자

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느냔 얘깁니다, 예?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고 얽매여서 그냥 고인 물에서만 헤매고 도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물리가 터져서, 점프를 할 수 있는 능한 마음이 생겨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묘법이다. 마음이 묘하다. 마음이 악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선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 점프를 해서 이 지구 바깥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우주세계를 한 좔나좔나 돌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마음을 가둬 놓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한마음을 말하고, 전체, 안과 밖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한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즉 다시 말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내기 이전 마음은 바로 다스리는 마음의 선장입니다. 다스려야 할 선

☞30면으로 계속

모든 것이 부처님 보살핌

서용칠 (서울 노원구 상계동)



그림 ·· 문병성

개신교 믿었으나 불교방송 듣고 개종
군포교하며 전법의 보람으로 하루 하루
아들 사고때 가피 얻고 믿음 더 강해져

"자랑스런 군불자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큰일났네' '큰일났다'는 말을 절대로 쓰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일을 겪었을 때나 쓰는 말입니다. 사소한 일에 큰일났다고 하면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정말로 큰일을 낼 수 있으니 그 마음부터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원당 호국비호사에서 외람되이 사자좌에 올라 젊은 병사들 앞에서 설법을 하고 의식을 행하며 군포교에 뛰어든지도 어느새 5년. 매월 두 곳의 군법당에 3~4번씩 찾아 나섰더니 시간가는 줄 모르고 전법의 보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나는 사실 개신교 재단에서 설립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래서 30대까지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줄 알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했다.

그러던 중 시절인연이 닿아 불교방송을 만났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택시를 타고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가던 중 들려온 법음이 내게 한 줄기 충격으로 다가왔을 뿐.

나름대로 개신교 신자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렇게 법음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불연이 깊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청강생처럼 매일매일 방송을 듣고, 불음을 들으며 책을 사 읽고 하였으나 아무래도 순서가 틀린 듯 했다. 어째 바다의 넓이만 재고 있을뿐 깊이는 모르고 있는듯 하여 체계적으로 교리를 배워보고 싶어진 것이다. 동산불교대학에 입학해 포교사 자격까지 얻게 된 후에는 부루나 존자의 뒤를 잇고자 군포교에 뜻을 두었다.

군포교에 매진하고 있던 2005년 9월이었다. 문득 100일기도가 하고 싶어 내 생전 처음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로 하루를 시작했다. 매일 108배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내 생애에서 그렇게 기쁜 나날도 없었다.

그렇게 군대에서, 법당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내가 '큰일났다' 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병사들에게 법문으로 강조한지 몇 주 후였던가, 나에겐 정말로 '큰일날 뻔' 한 사건이 생겼다.

그 날은 우리 집 큰아들이 회사를 옮겨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던 2005년 11월 1일이었다.

"여기는 창동 주차장인데 119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아들의 힘없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오더니 끊어지는 것이다. 다급히 불러보아도 다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온갖 불길한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제일 의문인 것이 '지금 이 시간에 회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창동 주차장에 있는가'였다. 감기라도 걸려서 일찍 퇴근중인가? 그러나 구급차는 왜 불러달라는 것일까?

짧은 시간 동안 온갖 나쁜 생각이 스쳤지만 불길한 마음 간신히 억누르고 119에 전화해 위치와 차번호 그리고 상황을 말해주었다. 그리고는 나도 허둥지둥 집 밖을 나와서는 창동역 주차장에 달려갔다. 곧장 관리사무실로 뛰어가 상황을 말하고 5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 넓은 주차장에서 우리 아이의 차를 찾기 시작했다.

긴급 출동한 재난구조대원은 찾아봐도 없으니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것 아니냐며 이 근처에서 교통사고 났는지 수배 하고는 돌아가겠다고 하고, 직원들도 접촉사고나 사람들이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했다. 참으로 난감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 행동을 하여야 할지 막막했다. 나는 좀 더 찾아보자면서 대원들을 설득했다.

바로 그때 이야기를 나누던 그 대원이 소리를 쳤다.

"엇, 아드님 차가 저기 있네요."

대원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눈에 익은 우리 아이의 차가 있었다. 달려가 문을 확 열자 이름을 부르며 흔들어도 미동도 없이 운전석 의자가 반 넘게 제쳐있는 상태에서 반듯하게 누워있는 아들이 보였다.

휴대폰과 안경, 신발이 차 바닥에 굴러 떨어져있고 오른팔이 축 늘어뜨려져 있었다. 대원들이 달려들어 구급차에 옮겨 싣고 산소마스크를 채우고는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어둠이 깔린 대로변의 혼잡한 차 사이사이로 내달렸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라는 생각만 들었다. 도저히 추리가 되지 않고 내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럽고 나의 업장이 이렇게 두터운 것일까 싶었다.

응급실에 누운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깜빡이며 스치는데 아이가 "아버지 물 좀 주세요" 라고 했다. 이때의 감격, 눈물, 기쁨 어찌 필설로 이어지랴. 그때가 8시쯤 된 것 같다.

이날 아들은 새 직장에서 연봉과 근무기간을 계약하는 날이라 집에서 조금 일찍 나갔다. 차를 주차하고는 감기기운이 조금 있어 약 한 봉을 먹었는데 하도 피곤하고 졸려서 잠깐만 쉬고 가야지 하고는 의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시동을 껐단다.

밀폐된 공간, 내리쬐는 햇볕의 열기에 차안 온도가 오르고 산소도 부족한 상태에서 온몸이 마비된 상태로 10여 시간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있자니 눈뜰 기운도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더란다. 다시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이것이 꿈인가 잠결인가, 죽음과 삶이 왔다갔다 하는 찰나에 어디선가 맑고 시원한 바람 한줄기가 '휘익' 하며 얼굴로 지나더란다. 그런데 휴대폰이 어떻게 손에 쥐여져 전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뒤늦게 도착한 아내는 아들을 부여잡고 "이 녀석아! 네가 나보다 먼저 가려했느냐"며 슬피 울었다. 나도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잇지 못하였다.

이제 불교에 입문한지 30년! 마을버스 삯 500원이 아까워 걸어 다니면서도 군법당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내게,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 잘하면 광신도 되겠네' 하면서 밉지 않게 놀려대곤 했다.

나는 아들이 살아난 것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한다. 100일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군법당에 열심히 나갔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누가 뭐라해도 한줄기 바람이라는 형태로 관세음보살이 나투시어 내 아들을 살려주었다고 확신한다.

그 일로 인해 나는 깨달은 것이 있다. 우리 삶 속에서 바로 내 앞에 희망이 있다면 뒤쪽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있으며, 오른쪽에 삶이 있다면 왼쪽에는 죽음의 어두움이 있다는 것이다.

관세음보살님 만세!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고맙습니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님들께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주문 및 문의
- 구성 : 전화 (02) 2004-8211, 2 / 팩스 02) 737-0697 /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 과년호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탈종공고

- 사찰명 : 동아사
- 주 지 : 지법(한재환)
- 주 소 :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229-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대구경북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에서 200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1년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회 영산재)
- 강사 : 경허 상진스님(영산재 보존회 회원)

학기	월별	강의내용	비고
1학기	2006년 3~6월	**기초** : 목탁치는법, 삼귀의례,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석, 종송 등 **예불**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오분향례), 각단예불 **불공** : 삼보통청(사시마지), 퇴공 각단 불공의식 **시식** :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음시식 구병시식, 장의편, 방생의식	기초불공의식 및 재사의식
	7~9월	**상주권공(범음범패)** 할향, 등게, 삼귀의, 합장게, 고향게, 개게, 쇄수게, 복청게, 사방찬, 도량게, 참회게	태징타법, 천수바라 도량게(나비춤) 외..... 범음 · 범패
2학기	10월 ~ 2007년 1월	**천도의식(전통범음)** 시련재, 대령재, 관욕재 옹호게 신중작법(39위) 상단권공 및 시식 삼보통청, 지장청, 시식회향	법주, 바라지 관욕바라, 화의재 바라 향수나열(범음) 사다라니 바라 운심게, 가지게 (범음) 화청, 축원화청
	2007년 2월	**시연회 준비** 전체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시연함.	특강 : 법고 공덕게 (범음)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06년 3월 9일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학기당 600,000원[총 2학기]
5.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8. 접수기간 : 2006년 3월 9일까지
9. 문 의 처 :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 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 전 속 성 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5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5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5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주영동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대흥사 두륜산 가련봉.

다양한 식생 국립공원 수준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55) 해남 두륜산 대흥사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저만큼 가깝다. 봄은 바다를 건너온다고 했다. 봄은 첨벙첨벙 물소리를 내며 개울물 건너듯 바다 건너서 온다고 했다.

땅끝 해남은 봄이 바다에서 올라와 첫발을 올려놓는 남도땅이다. 두륜산은 호남정맥에서 갈려져 나온 한 지봉이다. 대흥사는 바로 그 두륜산 기슭에 자리잡은 고찰이다.

대흥사 창건연기(創建緣起)가 몇몇 문헌에 단편적으로 실려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통분모는 신라가 통일하기 전에 신라 스님들이 내려와 대흥사를 창건했다는 점이다. 창건 후 대흥사가 역사에 우뚝 선 것은 선조 때 서산대사가 이곳을 삼재가 미치지 않는 곳이라 하여 자신의 의발(衣鉢)을 남기고부터이다.

대흥사의 들머리는 구림리(九林里)이다. 이름 그대로 예전엔 산첩첩 물첩첩 했던 동네다. 구림리 매표소에서 대흥사까지는 2.5㎞, 장춘골(長春) 개울을 따라 호젓한 숲길이 나 있다.

두륜산 골짜기에서 발원한 장춘골은 구림리를 벗어나면서 삼산천이라는 이름으로 서해바다로 흘러든다. 길이는 짧지만 오염원이 없어서 갈겨니, 검정망둑, 꺽지, 돌고기, 점줄종개, 자가사리 등등 다양한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춘골 숲길을 걷다보면 곳곳에서 편백나무숲, 삼나무숲, 동백나무숲을 지나게 된다. 편백과 삼나무는 일본에서 건너왔지만, 우리 나무들과 천연덕스럽게 잘 어울려 있다.

대흥사 동백숲은 선운사와 백련사 동백의 유명세에 가려서 알아주는 이는 적지만, 아름드리 동백들이 하늘이 보이지 않게 울울창창하다. 지난 겨울 잦은 폭설로 인해 가지가 찢어진 나무들이 곳곳에 눈이 아프게 들어온다. 그런 가운데서도 몇 송이씩 꽃을 피워내고 있어서 가상하고도 안쓰럽다.

피안교를 지나 경내까지는 비포장 흙길이라 걷는 즐거움이 있다. 부도전 주변에 남아있는 몇 그루의 노송은 두륜산 소나무의 마지막 세대들이다. 한때 두륜산에도 소나무 전성시대가 있었다. 두륜산의 소나무는 적송과 곰솔 두 종류인데, 특히 10여년 전 솔껍질 깍지벌레에 의해 회생불가의 피해를 입고, 졸지에 두륜산의 희귀종이 되었다.

운학교를 건너면 길옆 왼쪽 동백숲 속에 큼지막한 웅덩이가 있다. 산개구리들이 벌써 깨어나 알들을 낳아놓았다. 산개구리는 양서류 가운데 맨먼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장춘골 편백나무숲길.

대흥사의 가람배치는 금당천을 가운데 두고 남북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북쪽에는 대웅전과 응진전과 침계루 등이 있고, 남쪽에 천불전과 용화당과 표충사와 박물관이 있다.

금당천에 걸려 있는 심진교를 건너면 침계루이다. 얼마 전에 개와(改瓦)를 했는데, 쓸만한 옛 기와를 일일이 골라서 다시 지붕 위로 올렸다. 새 기와와 헌 기와가 천연덕스럽게 잘 어울린다.

무염지 조경은 겉멋이 들어가서 자연스러움이 덜하다. 연못가에 세우고 눕혀놓은 바위들과 연못 가운데 박아놓은 분수 등이 모두 겉멋이다. 이는 주로 대도시의 졸부와 관공서 정원 연못의 정형이 되었다.

표충사는 임진왜란을 당해 분연히 일어난 서산대사의 위국충정을 기리는 사당이다. 그런데, 이 반왜(反倭)의 성지에 영산홍류를 심은 것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다. 영산홍은 일본인들이 오랫동안 개량하고 육종한 일본철쭉이다. 우리 진달래나 철쭉에 비해 꽃이 현란하고 자극적이다.

표충사 앞을 지나면 산행로가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 진불암-상원암-남미륵암을 거쳐 두륜봉으로 가는 길, 천년수와 만일암터를 지나 만일재로 넘어가는 길, 북미륵암을 지나 오심재에서 고계봉으로 가는 길이 그것이다.


산개구리.


대흥사 동백꽃.

일지암 가는 길에 어디선가 멋쟁이새 몇 마리가 나타나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며 일지암을 안내하고 있다. 멋쟁이새는 참새보다 조금 크고, 부리는 뭉툭하고 튼튼하다. 분홍색과 오렌지색 등등 다양한 색으로 화장을 하고, 상록수 덤불이나 관목 사이에 살면서 아름다운 휘파람 소리를 낸다. 이름 그대로 집에서 기르는 애완조만큼 아름답다.

동백숲을 좋아하는 동박새들도 두륜산의 조류 가족이다. 참새보다 작은 동박새는 보호색인 초록색으로 치장되어 있다. 주로 상록활엽수림에서 살면서 곤충이나 거미 등 작은 동물을 잡아먹고 산다. 동백꽃이 피기 전까지는 가끔 절 주변으로 내려와 헌식대에 놓인 음식을 시식하고 간다.

일지암(一枝庵)이라는 이름은 선사가 '뱁새는 항상 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뭇가지 하나만 있어도 평안하다(巢於深林不過一枝)'는 한산시(寒山詩)에서 따왔다고 한다.

뱁새로 불리는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생태적으로 나뭇가지보다는 관목이나 덤불을 좋아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일지암은 산중에 있어서 붉은머리오목눈이를 보기 어렵다. 뱁새 대신 앞가슴이 붉은 곤줄박이 몇 마리가 암자 주변을 포르릭 날아다니고 있다.

일지암에 와서는 유천(乳泉)의 물맛을 보고가야 한다. 유천은 뒷숲에서 나와 대나무 대롱을 타고 3개의 돌그릇에 차례로 담겨져 흐른다. 다인들은 품천에 따라 물을 여덟 종류로 나누었는데, 유천은 옛부터 다인들이 칭송해 마지 않았던 물이다.

물을 만드는 것은 숲이다. 숲이 변하면 물맛이 변할 수 밖에 없다. 선사 당시의 소나무 숲이 활엽수 중심으로 바뀌었으니 물의 과학적 성분이 조금은 변했을 것이다.

일지암에서 삼거리로 도로 내려오면 북암으로 오르는 그윽한 숲길이 열려있다. 두륜산은 산의 높이나 산체의 크기에 비해 다양한 식생을 보여주고 있다. 남도에서는 지리산과 함께 종의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산이다. 전국의 사찰림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이다.

두륜산의 식생은 제주도에서 이어지는 난대성 상록수와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온 온대성 낙엽활엽수로 크게 나누어진다. 두륜산의 자랑인 난대상록활엽수로는 붉가시나무, 황칠나무, 동백나무, 굴거리나무, 비파나무, 생달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자금우, 마삭줄, 보리장나무, 송악 등이 있다.

산의 상부 및 능선부에는 소사나무와 신갈나무 등이 우점하고, 중복에는 동백과 붉가시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아래쪽은 서어나무와 참나무류가 2차림을 형성하고 있다.

북미륵암에는 앞서 말한 마애불과 동서쪽에 삼층석탑 2기가 서 있다. 석탑 중 동탑은 망탑(望塔)처럼 절벽의 자연석 위에 서 있는데, 탑의 기단을 지대석의 울퉁불퉁한 곡면에 따라 그랭이질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자연합일이 달리 없다.

북미륵암을 지나면 헬기장이 있는 오심재에 이른다. 오른쪽으로는 두륜산 정상인 가련봉(703m)이, 왼쪽으로는 고계봉(638m)이 자리하고 있다. 케이블카 전망대가 있는 고계봉 일대는 소사나무 군락이 숲의 바다를 이루고 있다. 육지의 소사나무 군락으로는 국내 최대의 규모이다. 천연기념물로 추천하여 보호해야할 가치가 충분하다.

몇 해 전에 해남군에서 구림리 시설지구에서 고계봉까지 국내 최장(1.6㎞) 케이블카를 놓았다. 그 바람에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고계봉의 소사나무 군락을 휘젓고 다녀 적잖이 훼손되었다. 당분간 등산로를 폐쇄시키고, 휴식년제를 두어 소사나무 군락을 지킬 필요가 있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 합니다)

등 | 불 | 로 | 전 | 하 | 는 | 자 | 비 | 광 | 명

찬 덕 연 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단등 | 팔각조립등(반야심경) | 주름등(만월봉축등) | 공단황금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연등, 카다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